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 ~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tra.or.kr
http://www.kt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8 / June / 2007

0706

칼럼
일관성(一貫性)에 대하여

시론
무정한 고향

회원작품
문화콘텐츠 센터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
중앙대학교 법학관
종로문화체육센터
팍스타워

작품노트
행복했던 기억들
- 김성윤 류마티스 클리닉, 청담동 Tribeca

계획작품
어린이도서관

현상설계
동대문구 수현원
청주 서부도서관

건축사 책을 말하다

일관성(一貫性)에 대하여

On Consistency

흔히 의지가 결연하고 자신이 세운 원칙(보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을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대쪽같은 사람' 이라고 표현한다. 과거 모 대선주자에게 따라다니던 수석어이기도 한 이 '대쪽' 이라는 표현은 유연성보다는 완고함을, 원칙에 예외가 없이 충실함을 비유하는 것으로 낭만적인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상황에 대한 공공적 판단이나 규정에 의거한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회정의 실천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찬사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유연성이 부족한 딱딱한 사람이라는 혹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대쪽' 을 일컫는 '일관성(一貫性)'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일관성의 유무는 국가, 사회, 특정 단체 등 집단의 정책이나 정체성 등에서 드러나게 되며, 그 집단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해당 집단의 근성으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는 엇갈린다.

즉 집단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정체성 없는 집단으로 폄하되기도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강직함과 꾸준함, 공정성은 높은 평가를 받겠으나 개인으로는 인간다움이, 조직으로는 유연성 부재에 의한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이 '일관성' 의 유지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의 경우 그 일관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변화를 예측 가능함으로써 시장상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자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는 어떠한가?

'4,855 대 1'

2007년 4월 6일 공개된 I광역시 S국제도시의 K건설사의 P오피스텔 최종 경쟁률이다. 고작 123실 모집에 36만 명이 몰렸으며 사흘 동안 들어온 청약증거금만 5조 2,899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이중 삼중 규제로 주택청약시장을 틀어막자 엉뚱하게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드롬' 이라는 진단도 나왔으며 최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일반인의 조급증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주택 청약은 온갖 규제에 묶여 있으나 오피스텔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기 때문이며 만 20세 이상이면 세 채까지 청약할 수 있고, 청약증거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후 바로 전매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

얼마 전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인근에
또다시 '로도텔' 광풍을 우려하는 신문기사가 제시되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쪽' 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제정,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유로운 오피스텔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라는 가치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왜 일개의 사무공간에 지나지 않는 오피스텔을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판단한 것일까? 일반건축물의 사무소 용도의 공간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투자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자체를 주택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실 설치의 제한, 바닥난방 방식의 제한, 업무부분 전용면적 비율의 제한 등 건설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여 오피스텔의 주택용도로의 전환은 일견 어렵게 보인다.

하지만 사용승인 후 주택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위(시공자), 이러한 상황의 현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행정부서(허가권자), 주택 용도로의 변경사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주(발주처, 시행자) 등 건축행위와 관련된 주체들의 합작품으로 이름만 오피스텔이고 실제로는 공동주택과 다름없고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기형적인 투자대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물론 주택 용도로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설계자와 도면과 현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현장의 감리자도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의 오피스텔 관련 규정의 변경고시 또한 일조를 했다. 2004년 강화했던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바닥난방 제한규정의 일부(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를 2006년 말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식 생활을 주로 하는 사무소의 바닥에 난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한 완화는 주택에서의 좌식 생활을 고려한 결과로 결국 오피스텔의 주택용도의 사용을 정부에서 인정한 꼴 아닌가?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린 결과의 대표적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오피스텔의 주택용도 사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서울근교의 신도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 건설된 기존의 상당수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용도로 당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규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에서 누가 그 규정을 지키겠는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용승인 후 용도점검이라도 했더라면 이와 같이 오피스텔 소유자의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인근에 또다시 '로도텔' 광풍을 우려하는 신문기사가 제시되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쪽' 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제정,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

무정한 고향

Cruel Hometown

강물이 무심하게 흐르며 불규칙한 물줄기를 낳듯이 내 고향의 풍경도 하염없이 거친 강가로 나서는 세월이다. 논두렁과 밭 이랑을 타고 넘으며 울고 웃던 사람들은 간 곳이 없고 다 쓰러져가는 집과 잡초로 문혀 가는 고향은 마치 타향처럼 나를 향해 달려든다. 허리가 꺾여있던 장년의 사람들은 어느새 등이 굽어 허리 너머로 둥근달이 보이고, 스치는 바람은 나를 아는 듯 거칠게 내 옷자락을 잡아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고향집의 초라한 모습처럼 어머니의 육신도 날이 갈수록 아위어만 간다. 삶의 고단함으로 굵은 어깨에는 애잔하고 쓸쓸한 무게에 눌려 진득한 외로움이 덕지덕지 묻어난다. 내가 이 고향에서 태어난 것이 언제이던가. 아무리 그 날을 기억하려 해도 시간은 앞으로만 내달릴 뿐 되돌아 흐르지 않는다. 눈은 서글픈 현재를 바라보고 마음은 옛 시절의 그림자를 찾아 더듬으며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허둥댄다.

무엇하러 내가 또 다시 고향을 찾아왔을까, 나를 반겨 주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고향을, 유정의 공간은 사라지고 무정만이 성장하는 황량한 곳, 살갑게 다가오던 지난 시절의 따스한 기운은 더 이상 마을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해도 고향은 늘 유정으로 충만한 세상이었기를 기대했건만, 세월이 빗겨만 가는 언덕으로 미끄러져만 간다.

비틀어지고 아위어만 가는 어머니의 다리, 그 연약한 다리로 누구를 놓고 누구를 기른 것인가. 모진 세월이 다리에 초췌한 흠집과 한을 남기며 쓸쓸하게 상처만 키웠다. 고향마을 선산에는 내 낳을 적 나무가 아직도 성성하건만, 나는 왜 이리 무정한 세상으로 나와 고독하게 타관을 떠돌고 있을까, 고향을 찾아와도 보이는 것은 슬픔과 외로움 뿐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고향이 그저 멀게만 느껴진다.

무슨 일인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는 푸념을 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 이제는 자식들 뒷전으로 물러나 바라만 보아도 될 일을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손에서 놓으면 놓을수록 빈손이 되어가는 것이거늘 무엇이랴도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신세, 사랑이 무엇인지 고향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도무지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시냇물은 졸졸졸 마을 길 옆을 따라 방향을 잃은 채 흘러가고 바람에 쓰러질 듯한 늙은 느티나무의 거친 울음소리, 그리고 부모를 따라와 조잘거리는 어린 아기의 유정한 소리, 오랜만에 다정한 유정의 공간을 만났건만 이 모두가 며칠도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곳을 찾아왔건만 그 모든 것이 무정으로만 다가오는 낯선 만남의 연속이다.

산에서 마을로 내리달리는 산들바람과 마을에서 산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고향은 사람을 품고자 하나 산 사람들

고향! 언제나 이 말에는 깊은 유정의 샘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고향에는 고독한 무정만이 밀려드는 세상이다.
 누렇게 검은 흙은 세월에 휩쓸려 속살의 치부를 드러내고,
 옛가락 같이 구부러진 오솔길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시멘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옛 전설을 속삭인다.
 고향의 애잔한 삶의 목소리들은 도시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삶에 지쳐 고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허공으로 발아만 간다.
 이곳이 차마 잊을 수 없는 내 고향이런가.
 고향이라는 강물에 한줌의 흙이라도 뿌리고 싶은 이 마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달래며 고향에서 유정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은 모두가 고향을 배척하려고만 한다. 무엇인가를 등지면 또 다른 것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이치이거늘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요 가슴에 안는다고 안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라지 않는가. 버리고 안는 것을 함께 취하게 될 때 유정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향이 무엇인지, 세월이 지날수록 유정에서 무정으로 가는 거리만 멀어지는 고향. 빙 둘러싼 산자락이 가끔은 나를 유혹한다지만 산은 산일 뿐 내 마음의 그리움이라는 바람은 어찌지를 못한다. 내 고향이 맑은 유리성으로 남아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리일까. 유정이 사라져가는 공간이지만 그나마 무정이라도 느끼며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산 사람은 도시의 가로등 불빛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이승을 떠난 사람은 고향의 달빛이 그리워 다시 찾아오는 고향. 번성했던 시절의 삶은 산자락에서나 만나고, 쓸쓸함에 고독의 잔을 기울이는 정경은 초라한 마을에서나 맛본다. 세월이 깊어갈수록 삶의 거친 욕망만 늘어간다. 그리워도 그리워할 수 없는 무정한 고향, 문명화의 바람에 밀려 고향의 풀냄새를 점점 잃어만 가는 무정한 세월.

고목에서 자라던 희망의 새싹은 고사된 지 이미 오래고, 햇빛은 나무껍질에는 고독의 냄새만 깊어 간다. 내 삶의 바탕은 무엇일까, 고향이라는 무대는 삶의 무대가 아닌 연극의 무대처럼 다가온다. 내게 불어왔던 바람과 꿈을 실어 나르던 구름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무정에서 유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단한 삶,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정거장 같은 고향이라지만 언제나 그 곳에는 나를 키우는 무정한 고향이 나를 대신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반가운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의 진정한 이유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고향의 옛터전은 그런 만남과 고독과 삶의 이유를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다. 비록 유정에서 무정으로 변해가는 험한 세상이지만 그 무정한 공간에서나마 유정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내 삶의 옛 상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고향! 언제나 이 말에는 깊은 유정의 샘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고향에는 고독한 무정만이 밀려드는 세상이다. 누렇게 검은 흙은 세월에 휩쓸려 속살의 치부를 드러내고, 옛가락 같이 구부러진 오솔길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시멘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옛 전설을 속삭인다. 고향의 애잔한 삶의 목소리들은 도시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삶에 지쳐 고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허공으로 발아만 간다. 이곳이 차마 잊을 수 없는 내 고향이런가. 고향이라는 강물에 한줌의 흙이라도 뿌리고 싶은 이 마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달래며 고향에서 유정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리워도 만날 수 없고, 나의 지나간 유년을 만나고 싶어도 사라진 빈 들녘. 산자락으로 넘어가는 흰 구름에게 이내 마음을 전하지만 구름은 말이 없다. 앞산에서 쪼르르 날아와 잃어버린 소식을 물고 온 텃새들과 바람을 타고 시절을 수련거리는 나무들에게 세월에 지쳐가는 내 마음의 무정한 상념이나 전해주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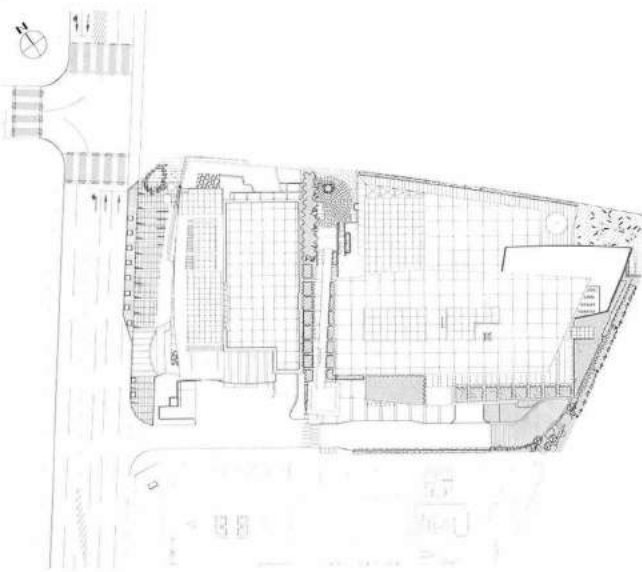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센터

Culture & Content Center

이종찬/정회원, (주)원양건축사사무소 +
 성진용/정회원, (주)원양건축사사무소 +
 박기성/정회원, (주)원양건축사사무소 +
 이승연/정회원, (주)원양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chan, KIRA & Sung, Jin-yong, KIRA &
 Park, Ki-seong, KIRA & Lee, Seung-young, KIRA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부지 내 C3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611㎡
건축면적	3,963㎡
연면적	43,610㎡
건폐율	59.95%
용적률	393.83%
규모	지하 4층, 지상 14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THK12 투명강화유리, 목재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계담당	박근우, 김하영, 박찬정, 석진수, 박해광, 김기범, 김치권
구조설계	(주)전우구조
설비설계	(주)한일 MEC
전기설계	(주)협인 전기
조경	(주)신화 컨설팅
시공사	(주)경남기업
설계기간	2003. 12. 26 ~ 2007. 03. 30
공사기간	2004. 12. 07 ~ 2007. 03. 30



Location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Site area	6,611㎡
Bldg area	3,963㎡
Gross floor area	43,610㎡
Bldg coverage ratio	59.95%
Gross floor ratio	393.83%
Structure	S,R,C + R,C
Bldg. Scale	B4, F14

1. Digital Media Street에서 바라본 주경 2. 북쪽 천경

D.M.S(Digital Media Street)를 걷다.

D.M.C(Digital Media City)부지내 C3는 D.M.C 단지 초입부에 위치한 곳으로, Digital Media 상징으로 강력한 Landmark의 설정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20m 보행자 도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와 건축, 상호간의 교류가 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으며, 문화콘텐츠 센터 내 2영역의 사업주체(문화콘텐츠 센터, 영상아카이브 센터)와 여러 복합 용도에 따른 영역설정 및 공간연계와 동선분리는 배치와 건축계획에 흥미로운 Process를 가져다 준다.

도시와 건축, 건축과 사람이 만난다.

C3부지 특징은 20m, 10m 보행자 도로를 끼고 있어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의 접근성 증대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외부에서 투영되는

로비를 중심으로 시설별 체계적인 영역 구분 및 16m 높이의 확트인 로비를 통한 내·외부의 유기적인 교감을 꾀하였다.

또한 보행자 도로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2개소의 Sunken은 지하 영화관으로의 자연스런 진입 유도 및 썸지휴게공간 제공, 위험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피난 동선을 제공한다.

문화콘텐츠 센터 지원시설은 3, 4층에 배치하여 기타 주변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지원시설 각각에 별도의 휴게 테라스를 제공하여 업무 환경을 고려하였다. 또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8, 9m의 업무시설 최적의 Span을 적용하였다.

끝으로 도심 속 공원인 5층의 하늘마당을 통한 휴게 녹지시설과 공개공지 및 9~14층에 이르는 휴게 아트리움은 입체적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콘텐츠 센터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





자연과 건축, 자연과 사람이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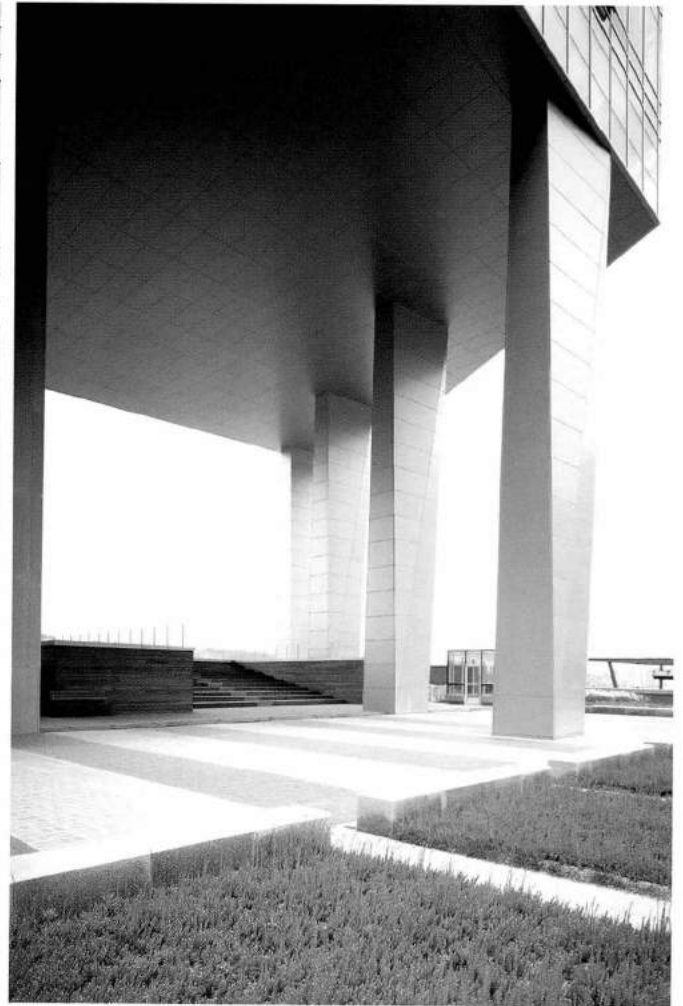
Media Street에 면해 D.P.G(Dot Point Glazing)공법으로 계획된 저층부의 카페테리아 및 복합체험관은 내·외부 경계를 최소화하며 보행자 도로의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유도하고, Setback된 고층부는 4개층에 이르는 '비움'으로 인해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영역의 독립성 및 가로 정면성에 의한 Identity를 확보한다.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의 외벽에 마감된 적삼목 패넬은 수장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각적 구성미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AI패넬과 더불어 전체 건축물

에 대한 구조적 기반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표출한다. 4개의 메가칼럼과 압출성형 시멘트 패넬로 마감된 중심코어에 의해 가능한 투명한 아트트리움과 상부의 하늘마당, 4개 층의 비움은 오피스 부분에 자연채광과 외기를 유입시킴으로서 에너지절약의 친환경적인 내부 환경을 조성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인해 D.M.C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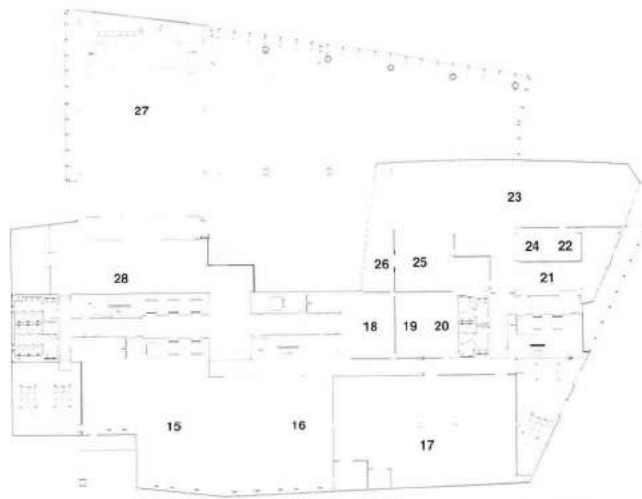


1. Digital Media Street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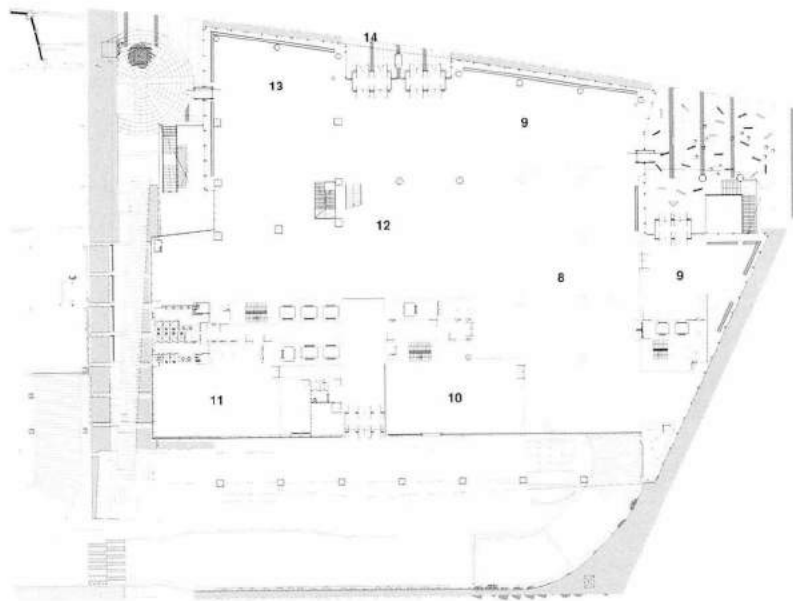
- 2. 지하 아케이드 천장시 Sunken 천장
- 3. 하늘마당 천장
- 4. 주출입구 입면 Detail
- 5. 저층부 커튼월 입면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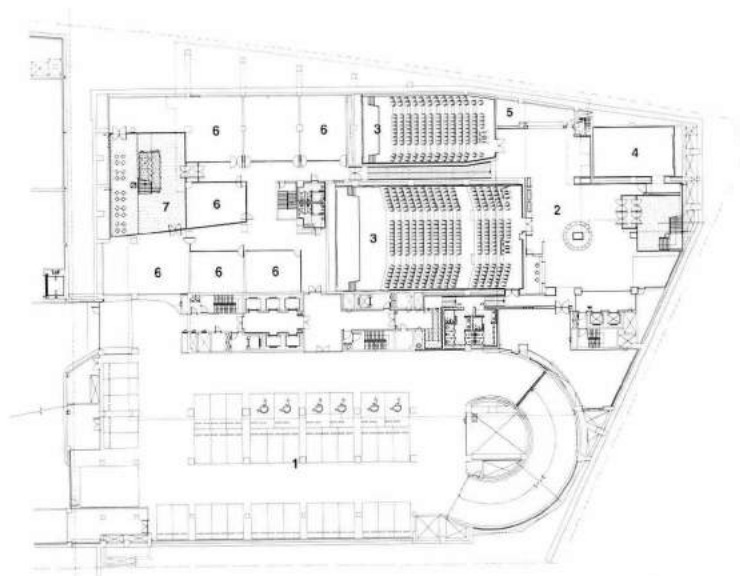
01. 주차장
02. 영화대기홀
03. 영화관
04. 컨퍼런스홀
05. 스넥바
06. 음식점
07. 선관
08. 영화박물관
09. 카메테리아
10. 수장고
11. 방재센터
12. 로비
13. 콘텐츠아트
14. 주출입구
15. 정보자료실
16. 사무실
17. 제1보존처리실
18. 교환실
19. 영상편집실
20. 인화현상실
21. 제2보존처리실
22. 연구자전용열람실
23. 영상자료열람실
24. 소그룹열람실
25. 열람조정실
26. 특수자료열람실
27. 다목적홀
28. 라운지
29. 조종실
30. 스릴수장고
31. 활용용 필름보관고
32. 비디오수장고
33. 원격위성회의실
34. 중형세미나실
35. 연구결과 데모및전시실
36. IDC
37. 문헌수장고
38. 영화사 연구소
39. 공동제작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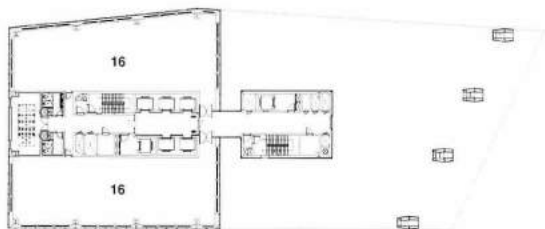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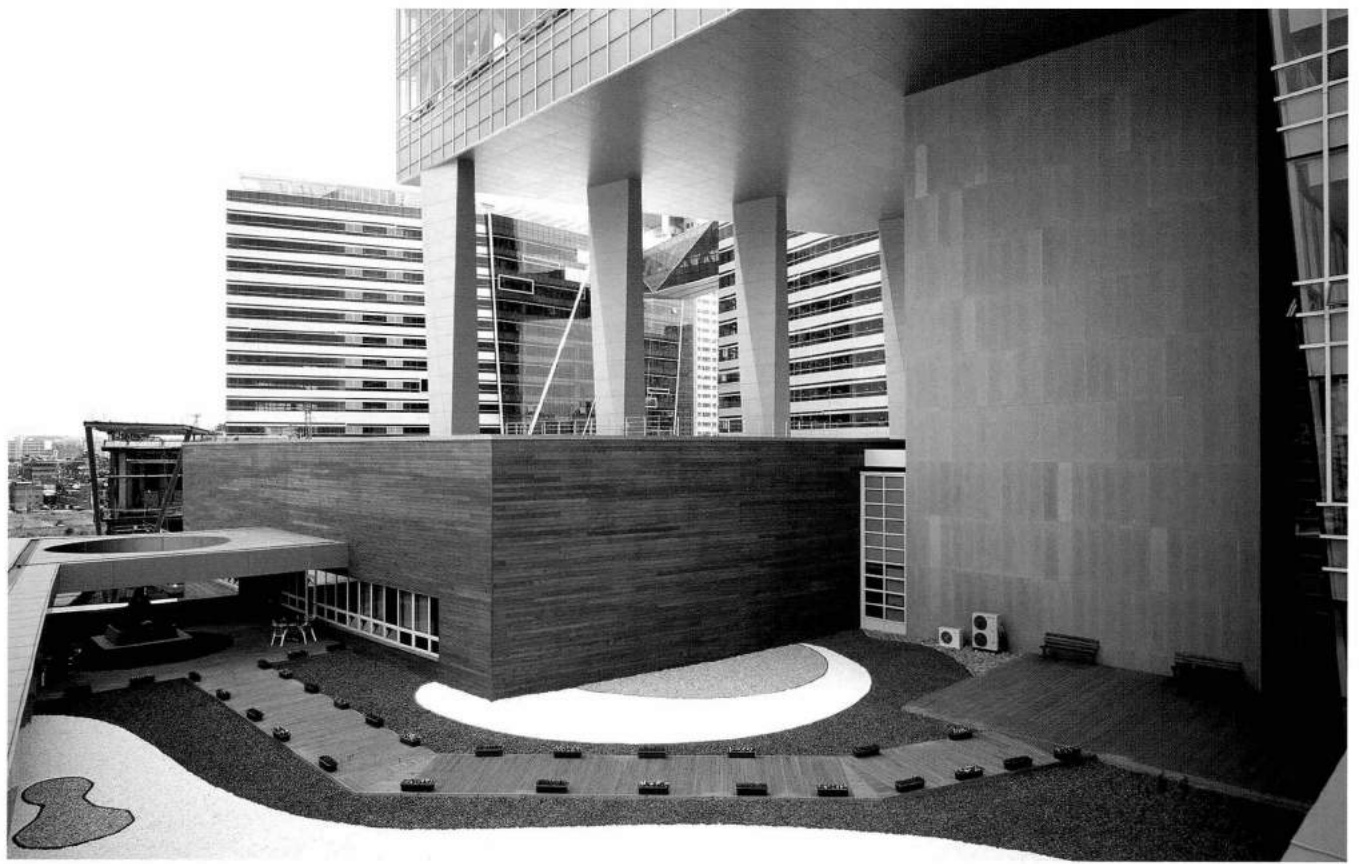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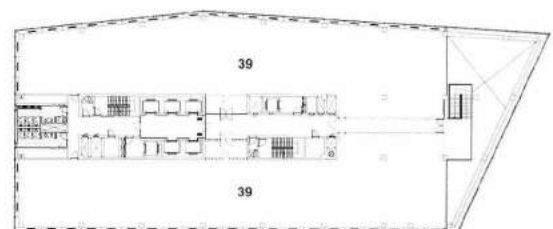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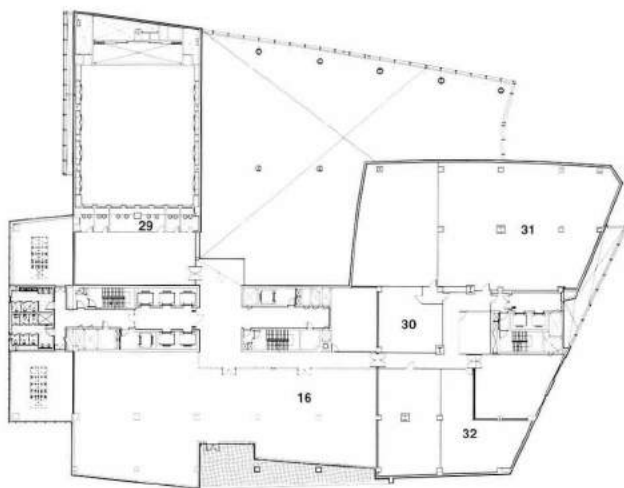
휴게데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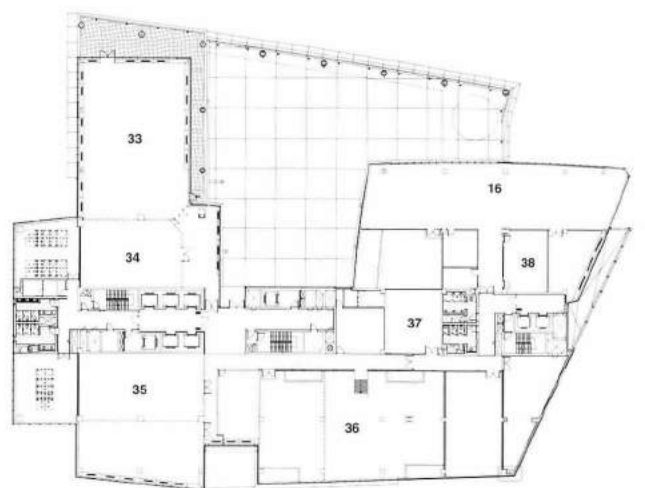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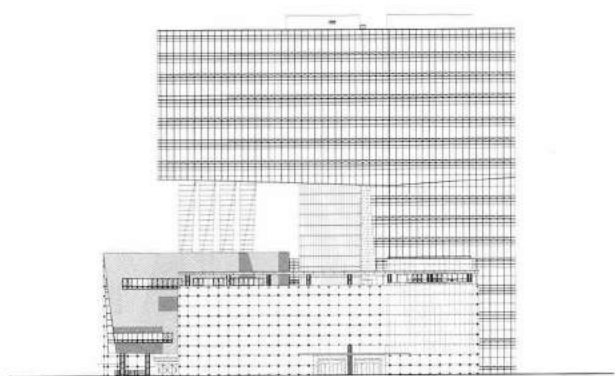
1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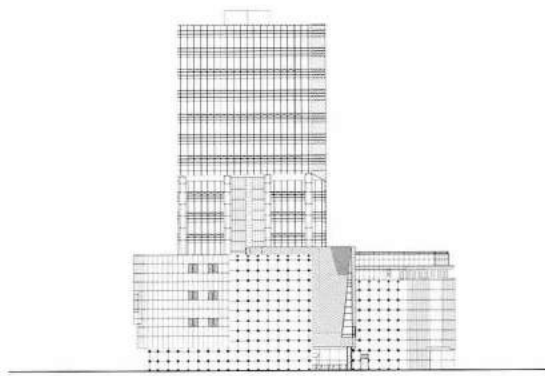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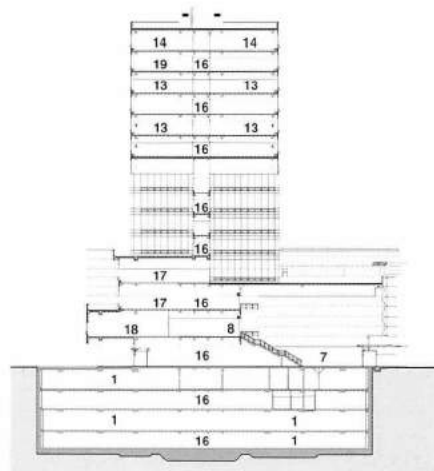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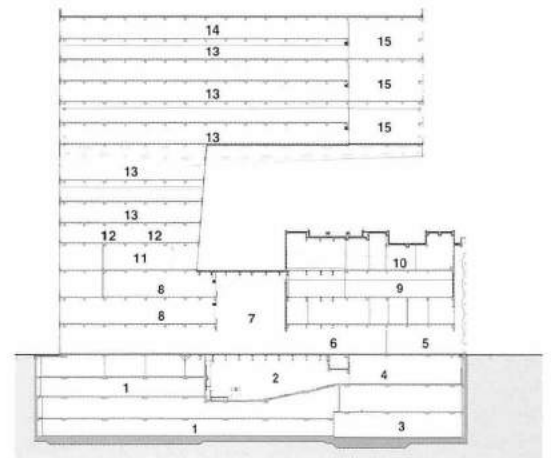
- | | |
|------------------|-------------------|
| 1. 업무시설 내부공간 | 4. 고층부 휴게 이트리움 |
| 2.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로비 | 5. 영화 상영관 내부 전경 |
| 3. 영화 상영관 로비 | 6. 라운지에서 바라본 외부경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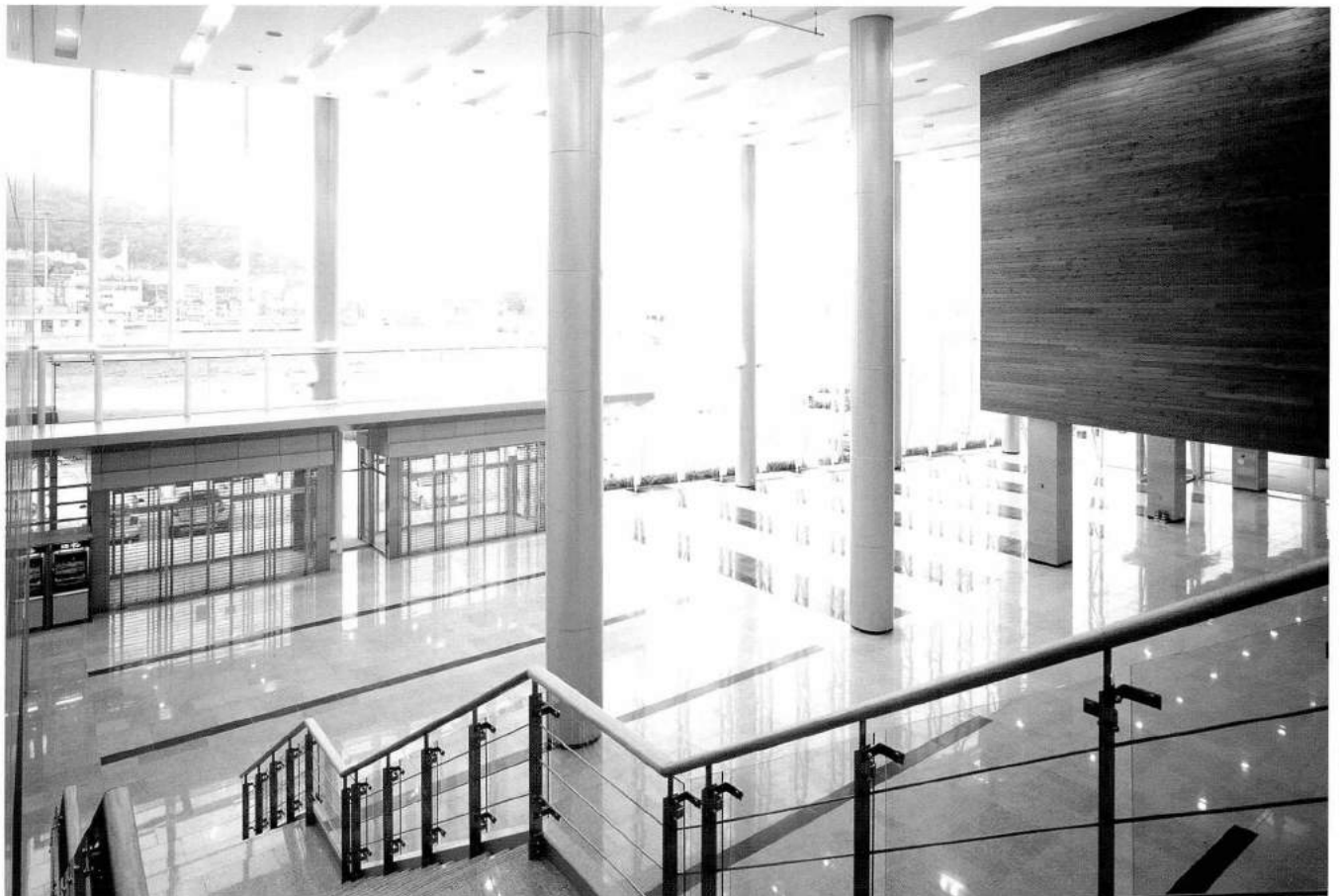
01. 주차장
02. 영화관
03. 기계실
04. 영화관 대기홀
05. 홀 및 카페테리아
06. 영화박물관
07. 로비
08. 라운지
09. 활용용 필름 보관고
10. 영화사연구소
11. 중형세미나실
12. 산학협력연구실
13. 사무실
14. 공동제작실
15. 휴게아트리움
16. 전실
17. 휴게실
18. 정보자료실
19. 에니스트UDIO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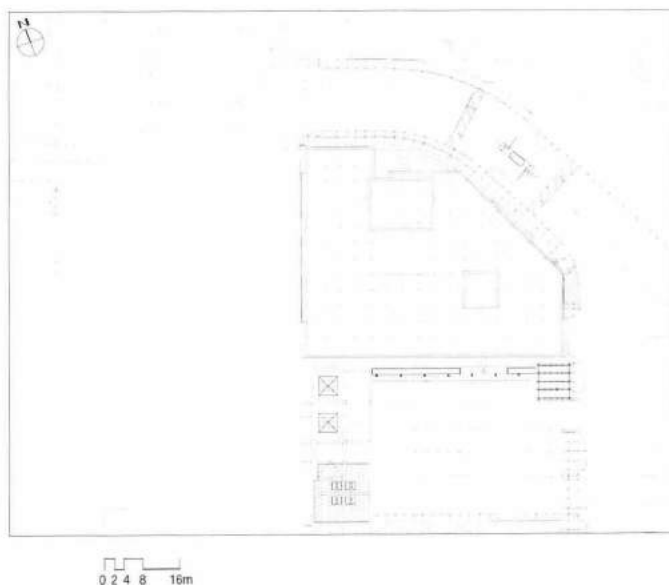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

Biomedical Science Research Center, Konkuk University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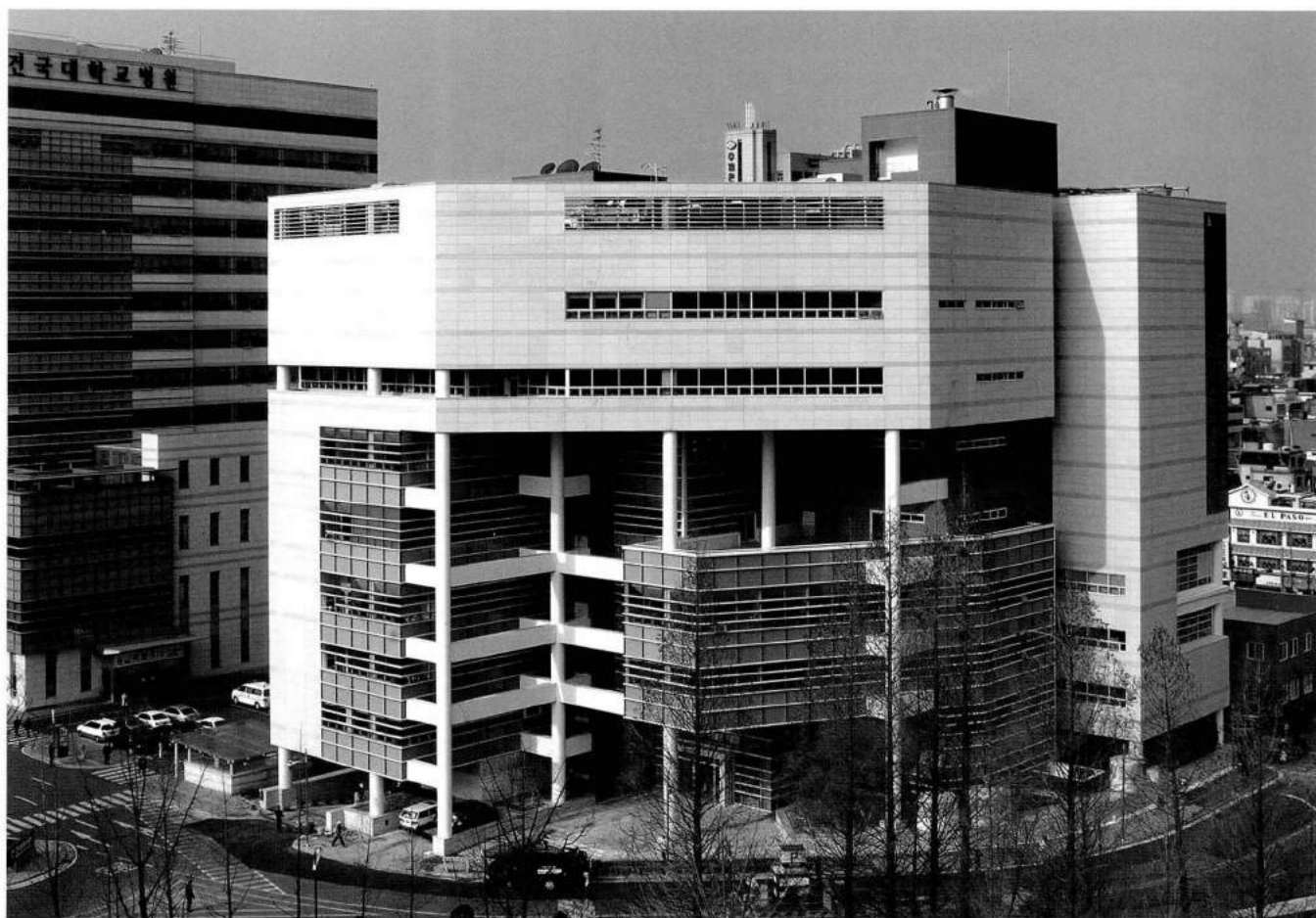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460,443.20㎡(캠퍼스면적)
건축면적	1,948.68㎡
연면적	18,901.97㎡
건폐율	0.42%
용적률	2.57%
규모	지하 4층, 지상 8층
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철골조
내부마감	무늬목 마감, 페인트 도장
외부마감	화강석, 알루미늄 시트
설계담당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구조설계	(주)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ENG 에너지디자인연구소
전기설계	(주)한양전설
시공사	(주)롯데건설
설계기간	2004. 05 ~ 2006. 03
공사기간	2005. 08 ~ 2007. 03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김원양)



Location	1, Hwayang-dong, G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460,443.20㎡(Campus)
Bldg area	1,948.68㎡
Gross floor area	18,901.97㎡
Bldg coverage ratio	0.42%
Gross floor ratio	2.57%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4, F8

1. 생명과학연구동 배면

2. 캠퍼스에서 바라본 조감



생명공학은 21세기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문적인 인재양성 및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는 신설된 부속병원과 대학 캠퍼스의 경계에 생명과학분야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연구,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생명과학연구동을 계획하였다.

의생명과학연구동은 설계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무균폐지 연구를 건물에 수용하여 지어진 특수한 연구시험동이다.

의생명과학연구동은 학교와는 병원진입도로를 경계로 하여 부속병원과 같은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지의 크기가 한정되고 있으며, 부속병원의 단지내 흐름을 마무리하는 공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대지면적에서 필요한 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캠퍼스의 서측 한계와 전면도로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물의 매스를 계획하고, 최대한의 건물외피용적을 확보하면서 단지내 건축물들의 흐름을 마무리하는 대지의 컨텍스트를 따를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연구동의 매스는 연구실의 특성상 외피에 면하는 개인 연구실이 많아야 하는 물리적 기능수용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품고 밖으로 꺼져 나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창조적인 '일'의 의미를 함축하여, 소프트하게 비워진 중심공간을 내부에 구성하고 외부에 솔리드한 면을 구성하였다.

건물의 진입면은 내부로 넘쳐 나오는 소프트한 지식을 나타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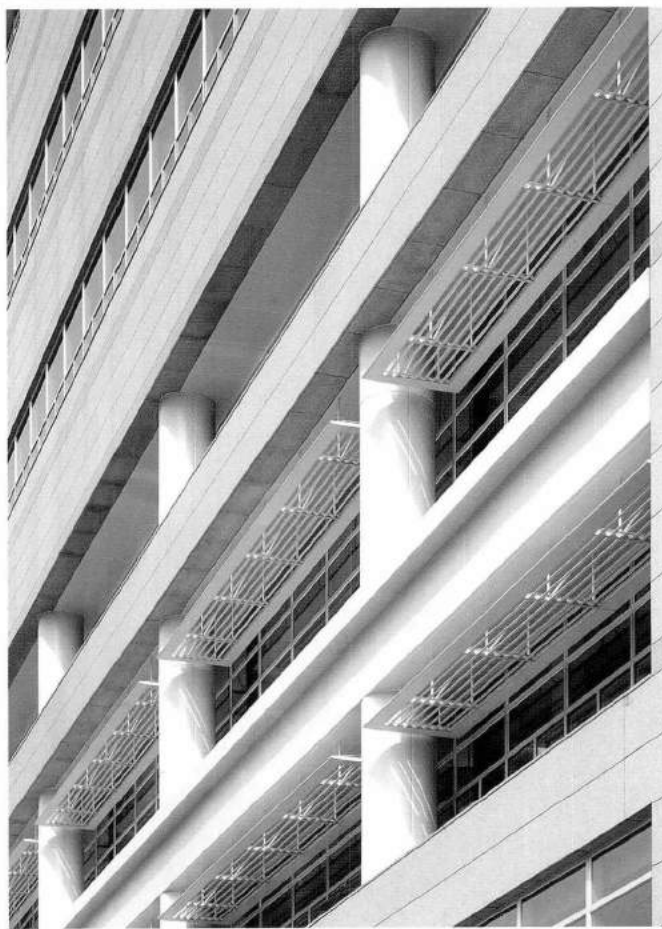
유리 커튼월로 구성되었다. 건물 주변의 동선과 시각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로티와 매스의 비움을 나타내었고, 그 안쪽에 진입구를 형성하고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두 개층으로 트인 내부 홀 공간이 위치하여 방문객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중정 공간은 2층 지붕이후 다시 외부 중정 공간으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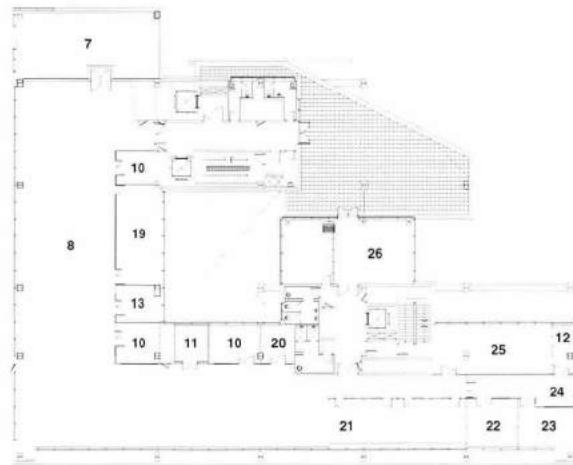
의생명과학연구동은 최근에 캠퍼스 내에 지어지거나 계획되어진 산학협력관, 제2생명공학관 등의 입면 언어의 컨텍스트를 따라 계획되었으며, 아울러 인근 건축물인 부속병원의 건축언어도 수용하고 있다.

배치에서의 컨텍스트 수용뿐만 아니라 입면과 매스에서의 컨텍스트 수용은 캠퍼스의 마스터플랜과 종합적인 발전방향의 대응으로써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공간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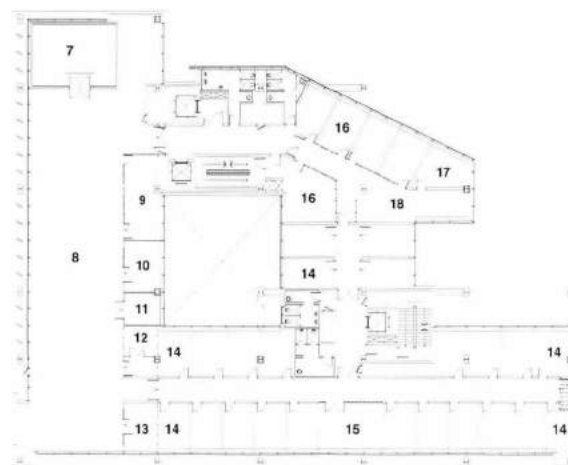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은 주변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인지성만을 독선적으로 내세우는 건물이기 보다는 캠퍼스의 주변 컨텍스트에 순응함으로써 조화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 되었으며, 이러한 중점사항들은 시공과정에서 건축주의 요구와 함께 반영되어 건국대학교 내 새로운 생명과학교육연구시설의 지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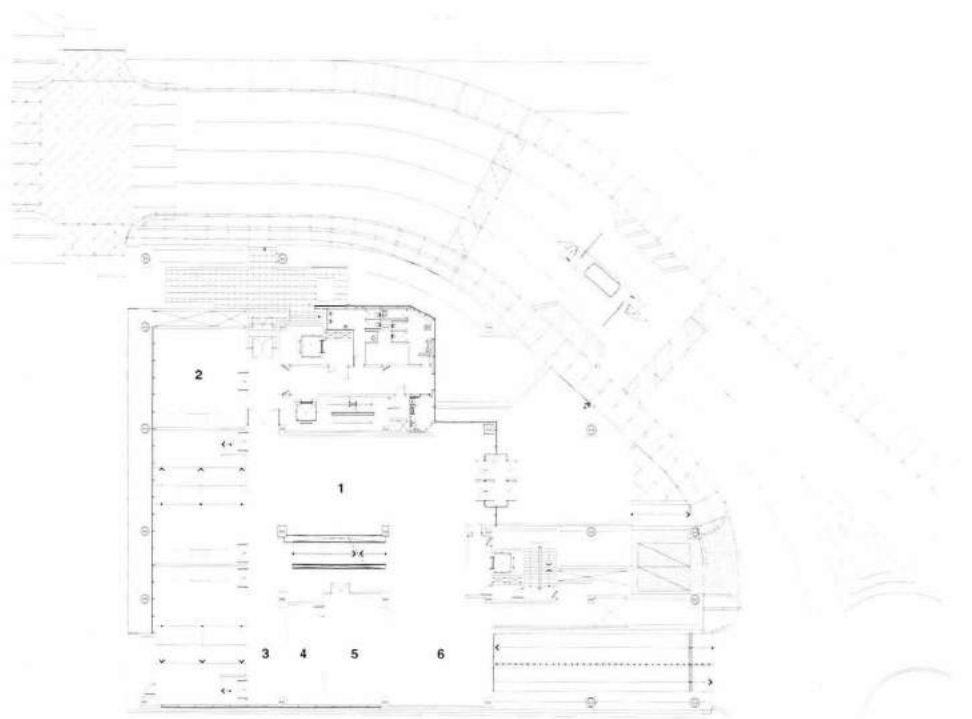
- 01. 홀
- 02. 강의실
- 03. Locker
- 04. MDF실
- 05. 관리실
- 06. 홍보협력실
- 07. 공조실
- 08. 실험실
- 09. 초저온 냉동고
- 10. 세포배양실
- 11. Cold Room
- 12. 암실
- 13. 고압멸균기실
- 14. 교수실
- 15. 회의실
- 16. 동아리실
- 17. 여자휴게실
- 18. 휴게실
- 19. 공동기기실
- 20. 환경 현미경실
- 21. 연구원실
- 22. 초박편질판실
- 23. TEM실
- 24. 전자현미경실
- 25. P3실
- 26. 세미나실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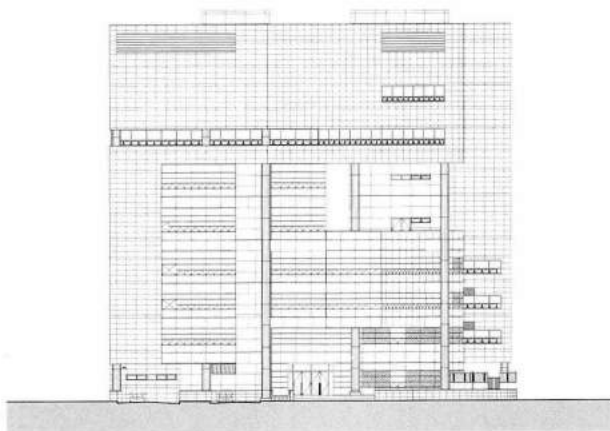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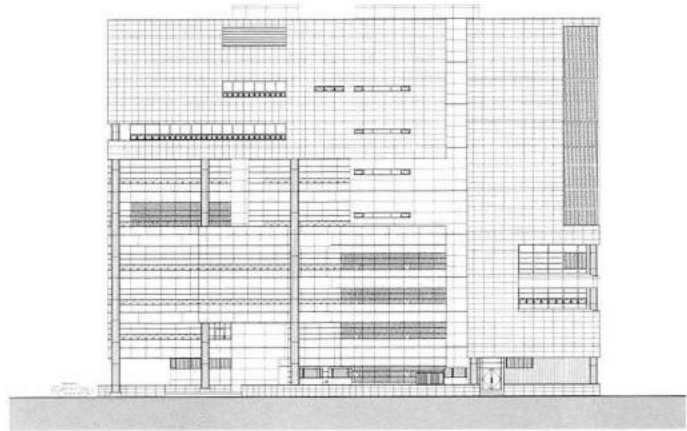
- 1. 생물공학연구동 정면
- 2. 주차입구
- 3. 남측면 창과 루버

0 2 4 8 16m

1층 평면도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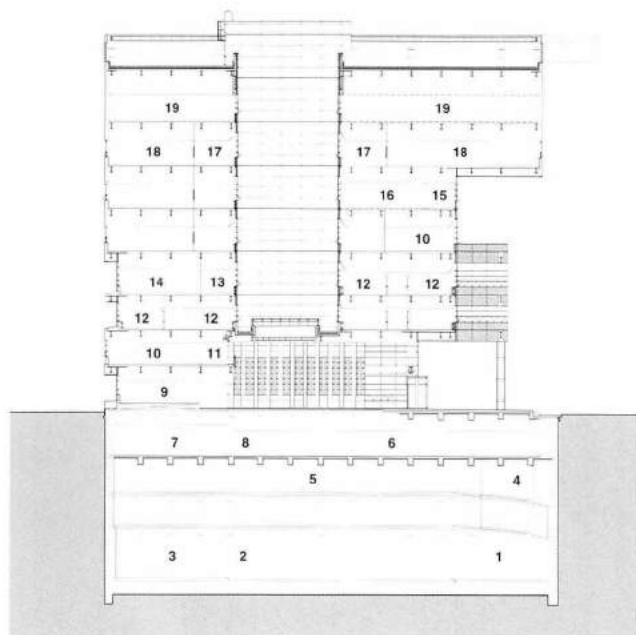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0 2 4 8 16m

- | | |
|-----------------------------|--------------|
| 1. 정면 매스의 변화
(요계실과 세미나실) | 3. 진입로 연결 계단 |
| 2. 3층 중정과 내부 입면 | 4. 연구실용 복도 |
| | 5. 주 진입로 |





주단면도

- | | | |
|----------|-----------|---------------|
| 01. 저수조 | 08. 홀 | 15. 암실 |
| 02. 기계실 | 09. 강의실 | 16. 방사선 동위원소실 |
| 03. 전기실 | 10. 세미나실 | 17. 공동기기실 |
| 04. 주차량표 | 11. 복도 | 18. 공동실험실 |
| 05. 주차장 | 12. 교수실 | 19. 동물실험실 |
| 06. 열람실 | 13. 세포배양실 | |
| 07. 소강당 | 14. 실험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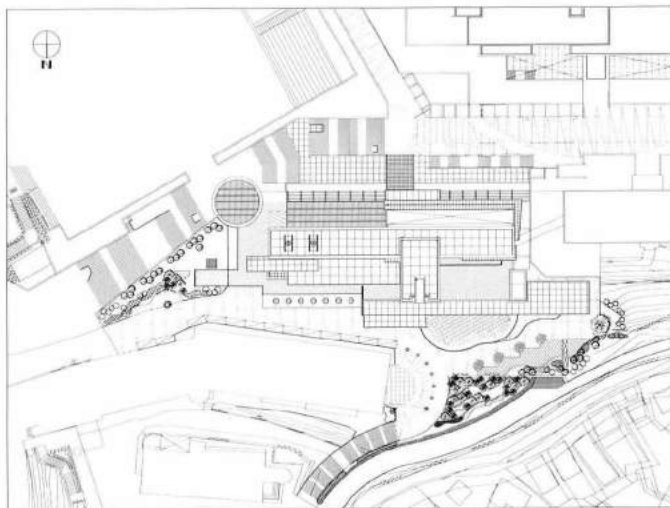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법학관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law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학교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43,808.00㎡
건축면적	3,449.62㎡
연면적	34,684.04㎡
건폐율	2.4%
용적률	17.07%
규모	지하 3층, 지상 1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화강석, 수성페인트, 비닐타일 등
외부마감	화강석, 알미늄쉬트 등
설계담당	고종준, 장근, 허인섭, 김영주, 김희성, 이상아, 조영채
구조설계	한울구조
설비설계	세익설비
전기설계	우덕전기
시공사	벽산건설(주)
설계기간	2001년 11월 ~ 2003년 3월
공사기간	2004년 1월 28일 ~ 2007년 2월 28일



Location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Korea
Site area	143,808.00㎡
Bldg area	3,449.62㎡
Gross floor area	34,684.04㎡
Bldg coverage ratio	2.4%
Gross floor ratio	17.07%
Structure	R,C
Bldg. Scale	B3, F14



1. 정면부분공간

2. 법학관 정면파사드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 내에 기존의 대학극장과 학군단 건물 철거 후 3개의 단과대(법대, 경영대, 정경대)를 위한 복합건물을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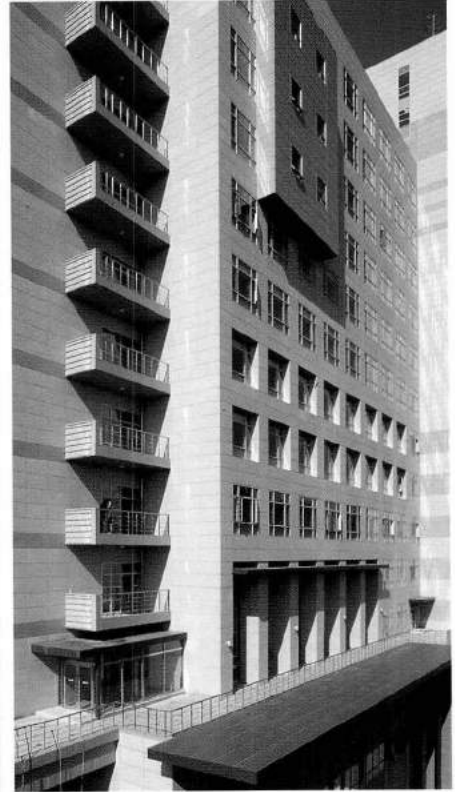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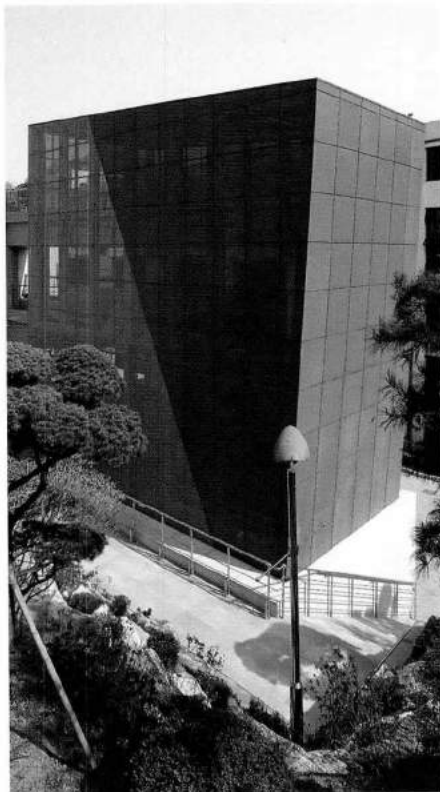
이는 2018년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목표로 시행되는 캠퍼스 장기 발전계획의 첫 번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계획은 건물의 규모에 비해 협소한 대지와 혼재된 축 및 대지의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극복해야하는 프로젝트였으며, 캠퍼스의 아이덴티티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했다. 우선 건물 축은 기존 후문의 가로축을 살리는 선형적 배치를 적용하였고, 후문-체육관-법학관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동선 연결을 통해 건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며, 기존 건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었다. 경사가 급한 대지지형의 진입레벨을 다양화함으로써 저층부와 상층부의 기능을 분리하였고, 이는 동적영역과 정적영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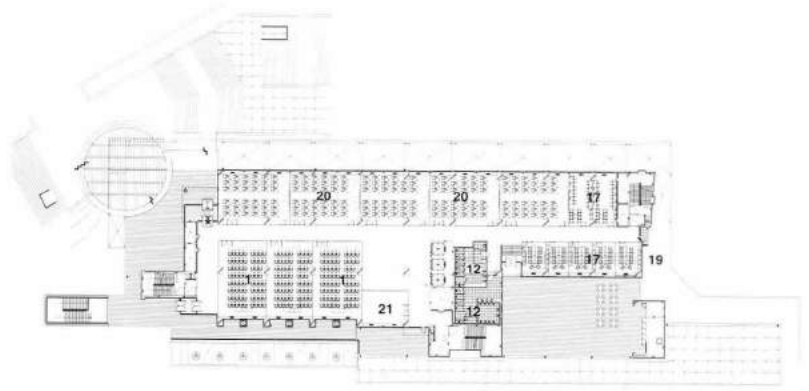
적절한 배분을 통해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최적의 조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많은 동선이 집중되거나, 교차하는 부분 등은 open 또는 필로티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다.

법학관의 파사드는 선형배치를 통해 진입부와 가로에서의 정면성을 부여함으로써 캠퍼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기존 캠퍼스시설의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건축재료의 투명성과 불투명성,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비적 효과를 통해 상징적 이미지에 맞는 간결하고 단아한 형태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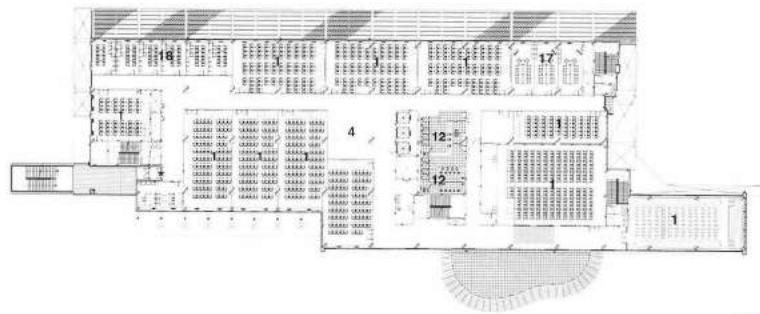
이는 상층부 창호의 리드미컬한 반복을 통한 통일성과 저층부 이용자의 움직임을 입면요소로서 시각화하여 표현하였고, 자연광을 모든 실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석재와 유리 등을 사용하여 법조인의 강건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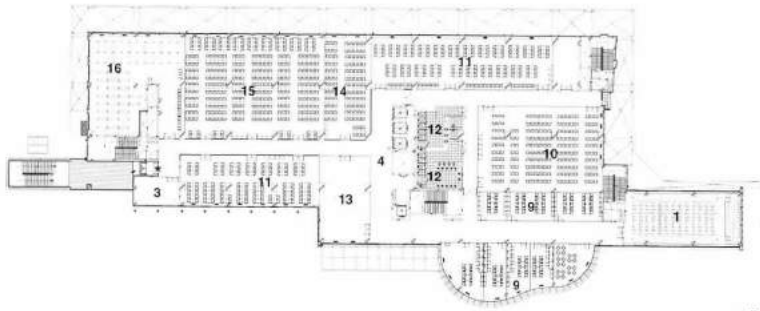
그 외에 Bridge 와 Atrium을 계획하여 단조로운 매스에 포인트 요소로 활용하여 건물 내부에 외부적 공간요소와 시각적 트임과 공간의 다양한 위계를 부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곳에서 젊은 시절 꿈과 열정을 보낼 미래의 법조인들을 위하여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들의 열정을 닳아낼 수 있는 그릇을 빚는 일 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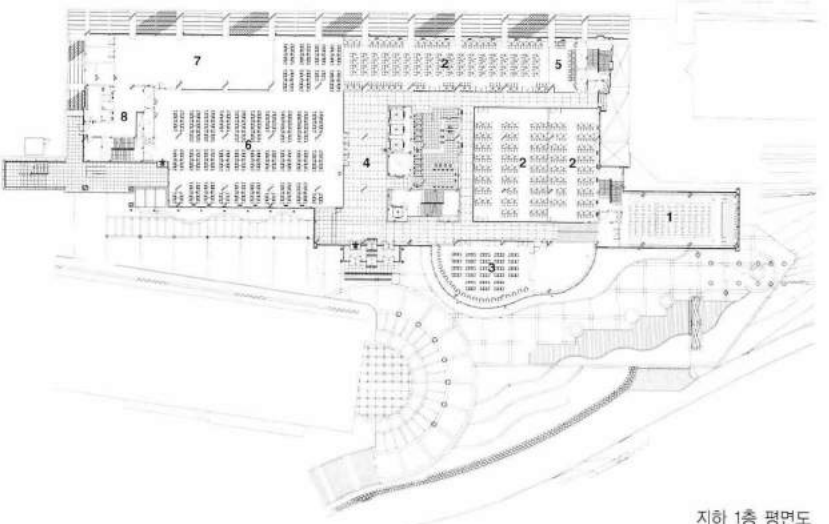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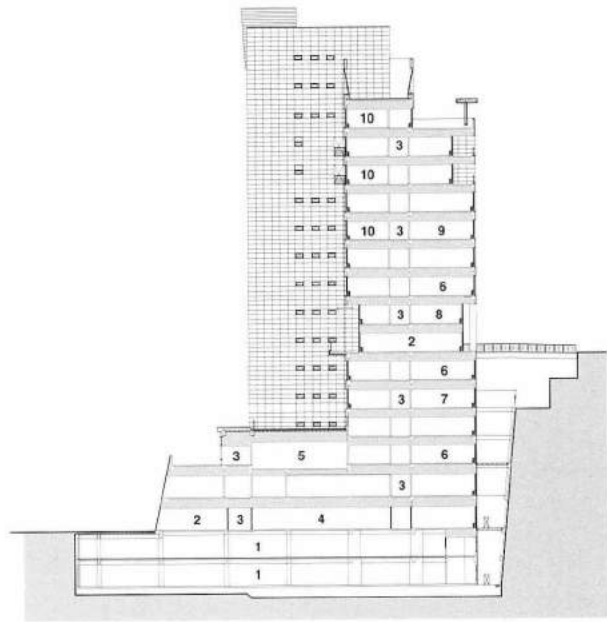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 강의실
02 컴퓨터실
03 휴게실
04 ELEV, 홀
05 정보화센터
06 식당
07 주방
08 전처리실
09 세미나실
10 열람실
11 개가열람실
12 화장실
13 방재센터
14 도서관
15 지정좌식열람실
16 도서관자료실
17 대학원연구실
18 통합학생회실
19 발코니
20 원단강의실
21 연구소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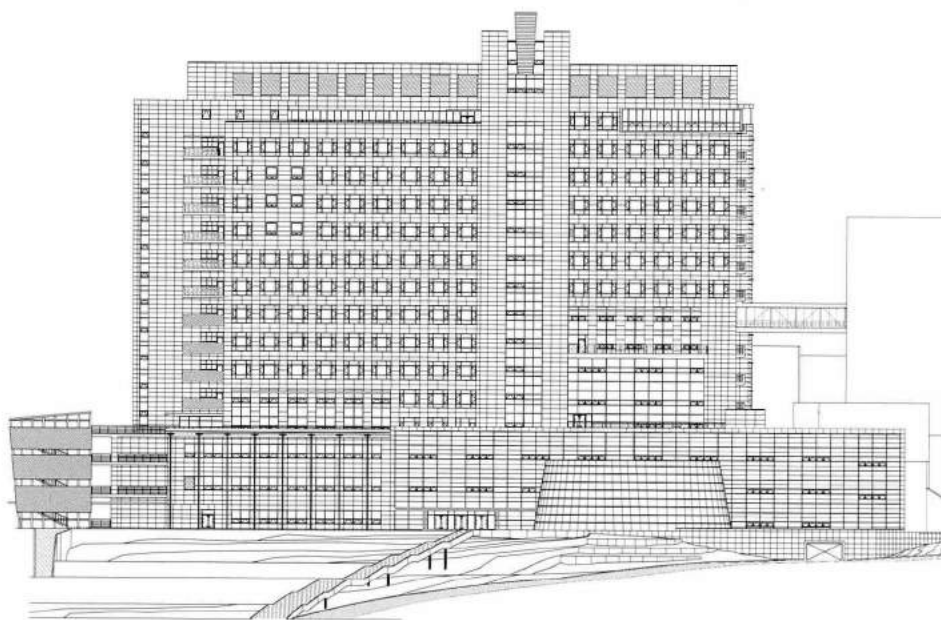
1. 저층부 아프리카 존경
2. 저층부 주출입구 존경
3. 동측 저층부 계단실 디테일
4. 동측 입면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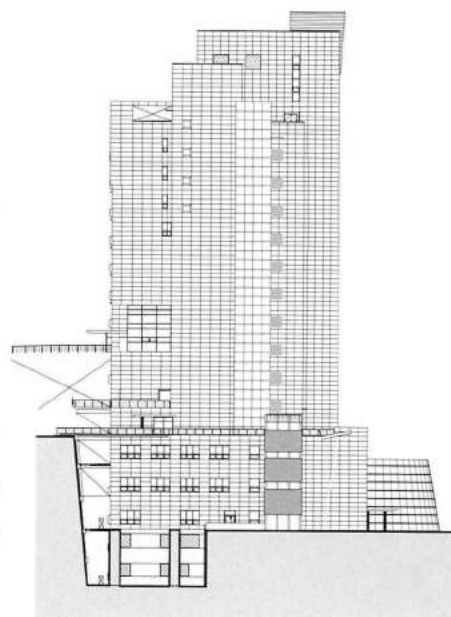
주단면도

- | | |
|---------------|--------------|
| 01_ 주차장 | 06_ 강의실(80인) |
| 02_ 휴게실 | 07_ 첨단강의실 |
| 03_ 복도 | 08_ 세미나실 |
| 04_ 정경대 컴퓨터실 | 09_ 부설연구소 |
| 05_ 강의실(200인) | 10_ 교수연구실 |





정면도



좌측면도

- 1. 엘리베이터 홀
- 2. 6층 로비
- 3. 카페테리아
- 4. 강의실
- 5. 법학과 실습실
- 6. 학생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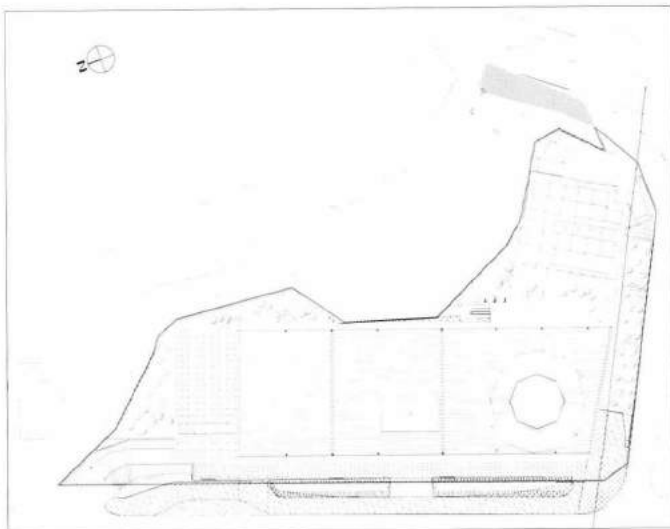


종로문화체육센터

Jongno Culture & Sports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48번지 일대(284-1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3,069.80㎡
건축면적	2,083.35㎡
연면적	6,756.14㎡
건폐율	3.20%
용적률	6.72%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체육관)
주차대수	59대
조경면적	661.46㎡
최고높이	27.9m
외부마감	THK4mm 알루미늄복합패널, THK24mm 컬러복층유리, THK30 화강석버너마감
건축주	종로구청
시공사	나라건설산업
준공일	2007년 2월 20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최정복)



Location	1-48, Sajik-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3,069.80㎡
Bldg area	2,083.35㎡
Gross floor area	6,756.14㎡
Bldg coverage ratio	3.20%
Gross floor ratio	6.72%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2, F3

Traditional Culture

서울의 종로구는 옛 왕조의 궁궐과 국가의 중요 시설들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최고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풍수지리에 의한 최고의 자리로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종묘와 사직을 두고 권위를 세운 왕조의 역사가 내려오는 땅이다.

Contemporary Culture

현재 종로구는 옛 역사의 흐름을 되찾아 잇고자 하는 노력이 시행 중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 성곽복원사업 등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직단의 중요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또한 같은 맥락이다.

Intensive Ring

경복궁을 가운데로 하여 오른쪽의 창덕궁-종묘-인사동은 현존하는 하나의 문화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왼쪽의 덕수궁-경희궁-사

직단을 하나의 문화고리로 간주하기엔 왠지 약한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존재하고는 있으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옛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통의 문화고리를 바탕으로 하여, 경복궁 근처와 인사동, 종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의 거리를 서쪽으로도 확산시켜 종로구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에 이번 프로젝트의 큰 맥락과 출발점이 되었다.

Symbol Landmark - a Bell

종로구의 상징인 동쪽의 보신각종과 함께 서쪽에는 '미래를 울리는 종'을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제시한다.

보신각종의 현대화/

현대적의미로 재해석한 보신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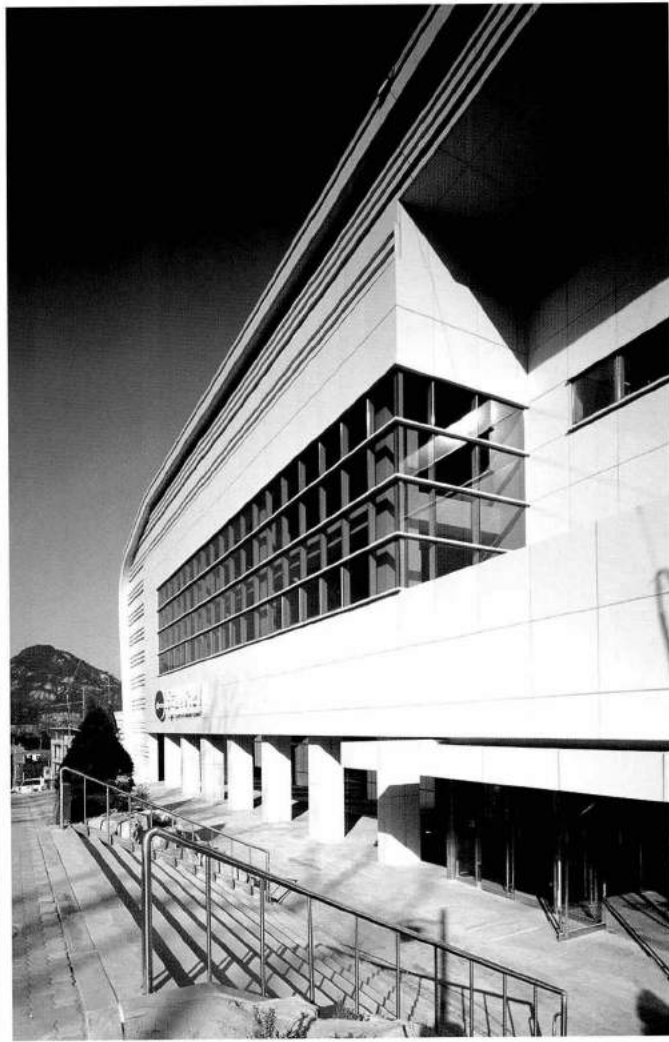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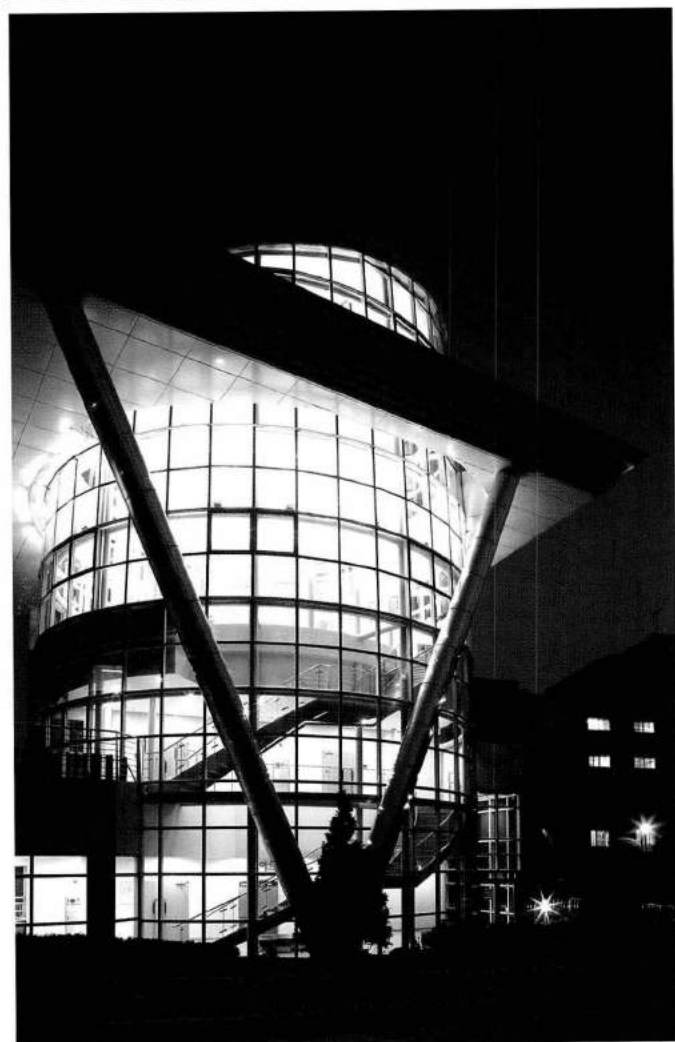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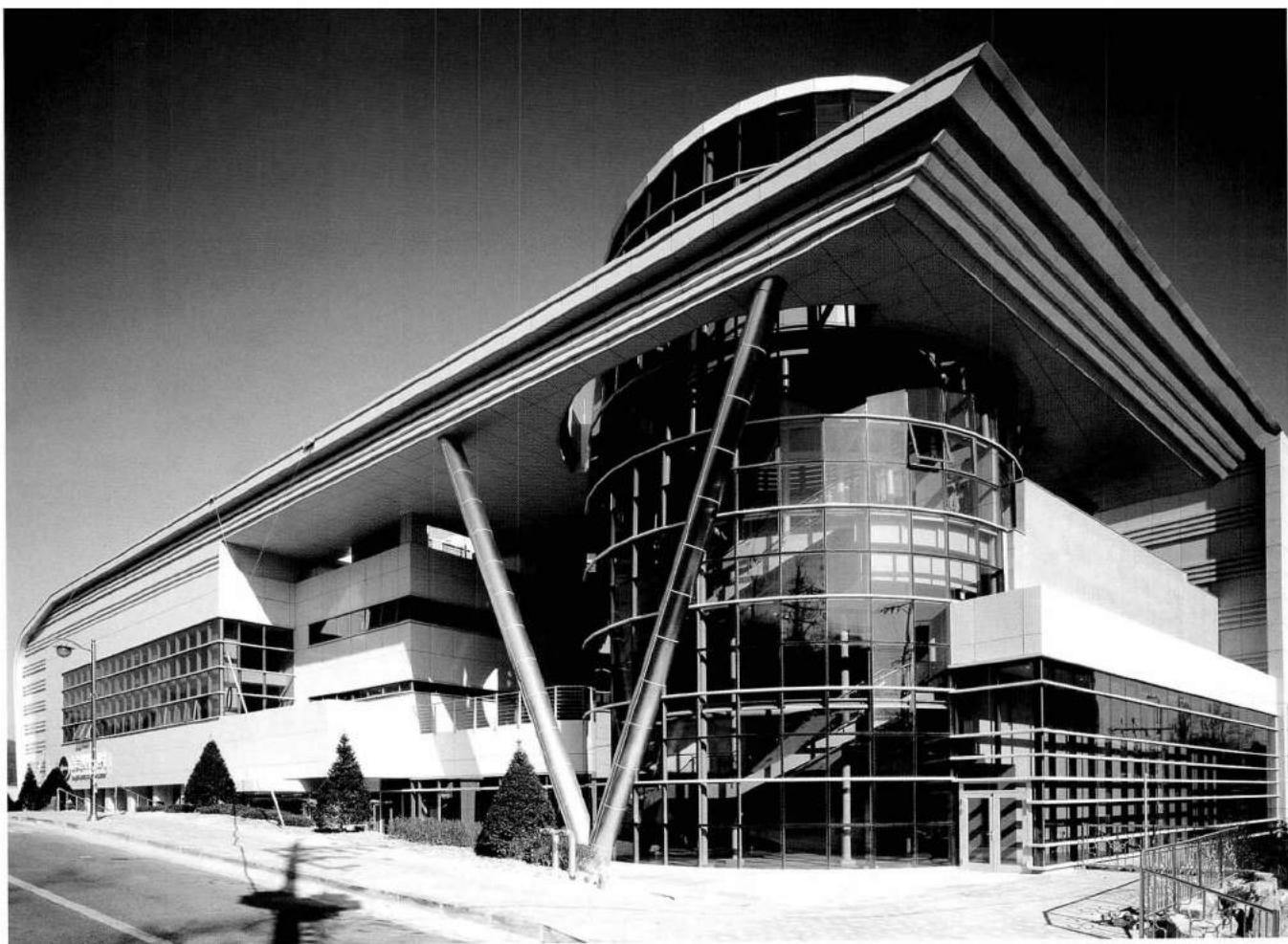
서울서쪽의 문화유산(우백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또 하나의 상징. 하얀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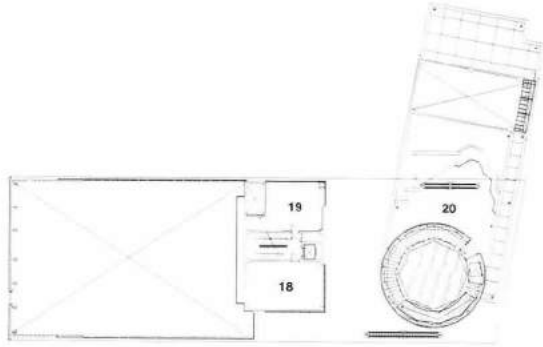
우직하고 용감한 호랑이의 의미/

문화적 울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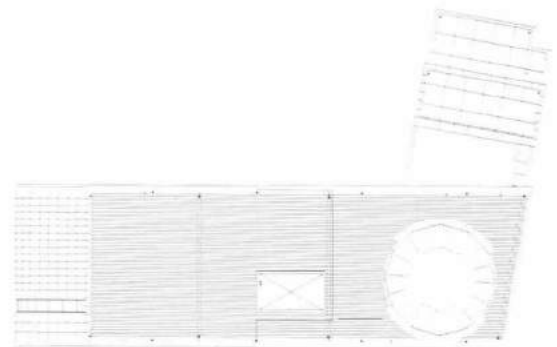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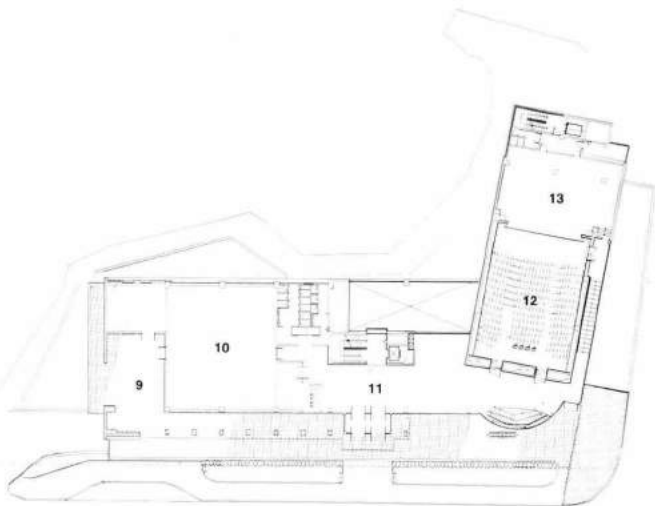
- | | | | |
|----------|----------|-------------|----------|
| 01_ 주차장 | 06_ 출 | 11_ 주출입구 로비 | 16_ 초청실 |
| 02_ 기계실 | 07_ 탈의실 | 12_ 공연장 | 17_ 연습실 |
| 03_ 물탱크실 | 08_ 헬스장 | 13_ 무대 | 18_ 사무실 |
| 04_ 전기실 | 09_ 휴게마당 | 14_ 다목적체육관 | 19_ 강조실 |
| 05_ 수영장 | 10_ 다목적실 | 15_ 옥외전시장 | 20_ 옥상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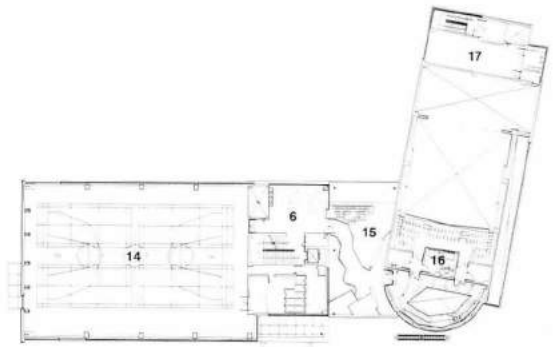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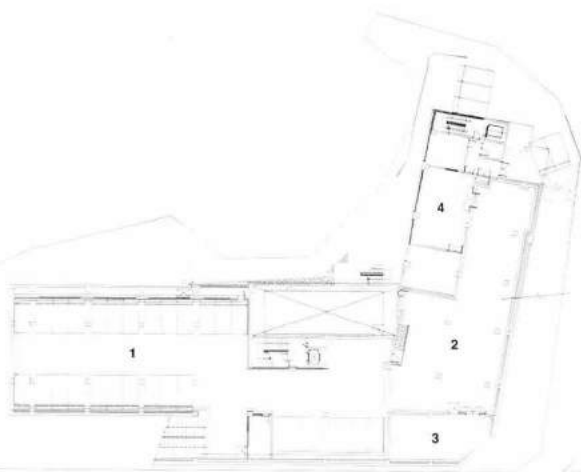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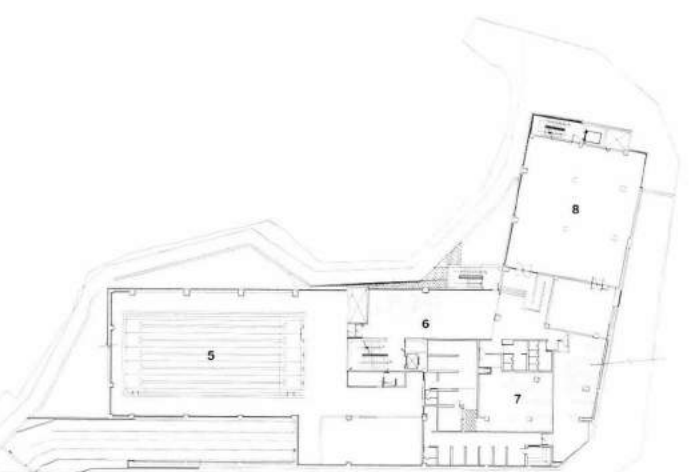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Ring City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사직단을 중심으로 한 서쪽의 링의 중추역할을 하게 된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던, 옛 문화의 연결고리들이 한데 얹혀져 하나의 코드를 형성하고 또한 이것과 맞물려 주변으로 또 하나의 다른 문화적 코드가 생겨나고...

종의 은은한 소리가 퍼져 나가듯이 고리고리 형성된 문화적 띠는 미래세대의 탄탄한 문화적 바탕이 될 것이다.

Architectural Process

• 외부공간계획

도시 및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요소로 데크 및 브리지를 이용하여 인왕산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한편, 대지경사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수법을 활용하였다.

•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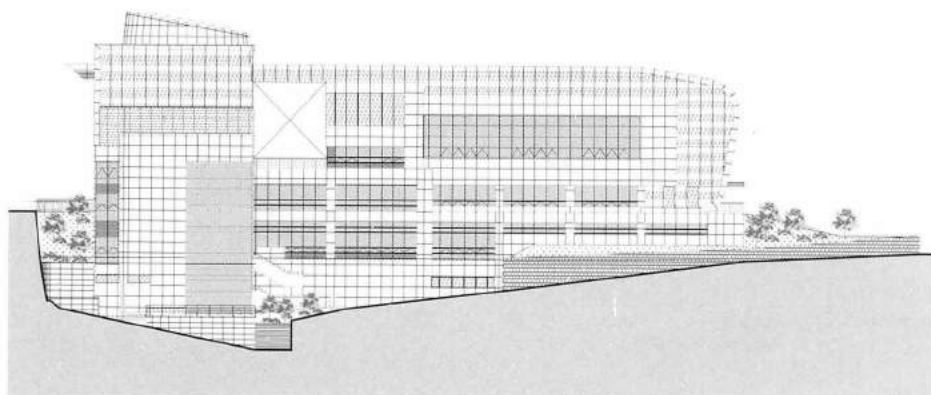
보신각종을 모티브로 상징성을 부각시켰으며 유리의 투명성 및 두 매스 사이가 만든 스크린을 통해 도시풍경과 인왕산이 투영되는 계획을 시도하였다.

또한 비상하는 지붕디자인으로 체육시설로서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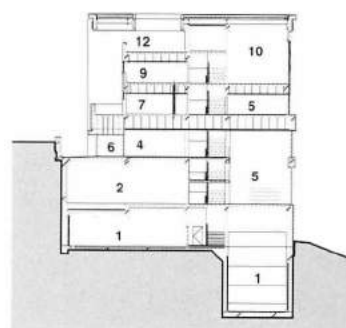
• 종합계획

지역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생활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의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종로구의 현대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종로구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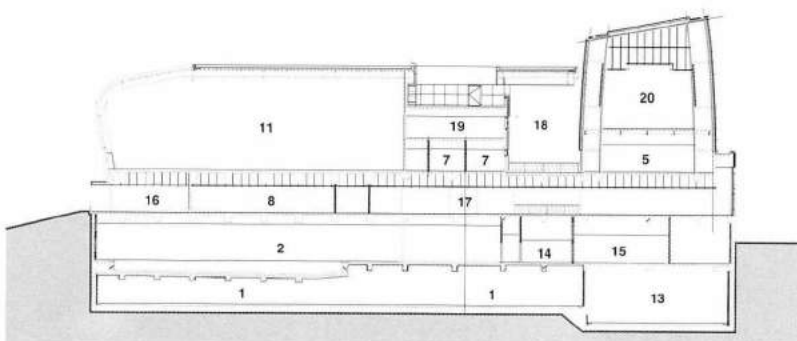




남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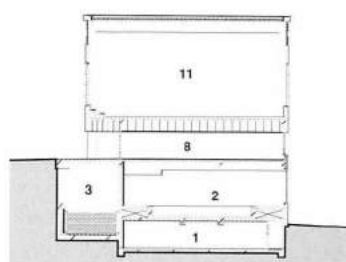


종단면도 1



횡단면도

- | | | | |
|----------|----------|-------------------|------------|
| 01_ 주차장 | 06_ 방음실 | 11_ 다목적체육관 | 16_ 휴게데크 |
| 02_ 수영장 | 07_ 화장실 | 12_ Cooling-Tower | 17_ 주출입구로비 |
| 03_ Ramp | 08_ 다목적실 | 13_ 기계실 | 18_ 옥외테라스 |
| 04_ 로비 | 09_ 세미나실 | 14_ 샤워실 | 19_ 사무실 |
| 05_ 홀 | 10_ 공조실 | 15_ 발의실 | 20_ 문화체험관 |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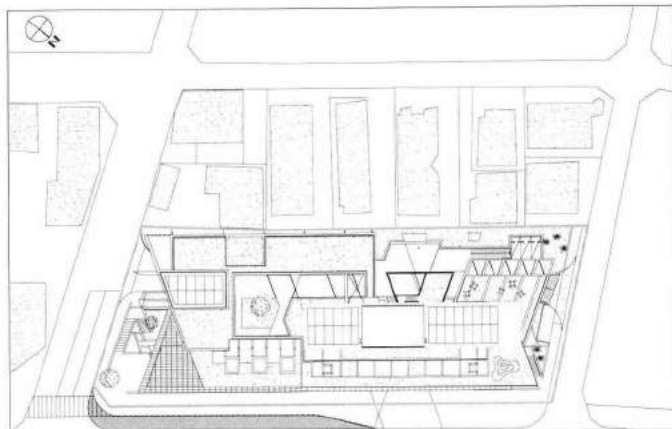


팍스타워

Pax Tow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1-9외 4필지
지역지구	일부 일반상업지역,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4,006.90㎡
건축면적	2,145.76㎡
연면적	27,988.12㎡
건폐율	53.55%
용적률	402.32%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바닥 - THK30 화강석물갈기, 대리석물갈기, O.A FLOOR THK7 카펫타일, THK3 비닐계타일 벽 - 내부용 천연수성페인트 천장 - THK15 암면흡음텍스, THK9.5 석고보드2겹 위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THK24 복층칼라유리, THK3 내후성강판, THK3 알미늄 편칭메탈, THK4 하니컴패널
설계담당	김동호, 신정섭, 임상규, 서영인, 김민경, 신용주
구조설계	김정선(CROSS구조)
설비설계	우진설비기술사사무소, 진호실업(주)
전기설계	다솔ENC기술, (주)대전사
시공사	노스웨스트건설(주)
설계기간	2003. 05. 20 ~ 2006. 02. 14
공사기간	2004. 05. 17 ~ 2006. 08. 25



Location	231-9,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4,006.90㎡
Bldg area	2,145.76㎡
Gross floor area	27,988.12㎡
Bldg coverage ratio	53.55%
Gross floor ratio	402.32%
Structure	SRC
Bldg. Scale	B4, F15



1. 전경

2. 야경 전경

이 업무시설은, 한 젊은 건축사로서는 흔치 않은 기회로 무척이나 욕심을 부리며 진행했던 프로젝트이다.

2년 남짓한 설계 과정 중에서 수없이 변한 규제(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의 변화, 최고높이지역의 지정, 용적률 적용의 변화 등)는 계속해서 다른 계획안과 최대의 법적 용적률 및 높이를 확보를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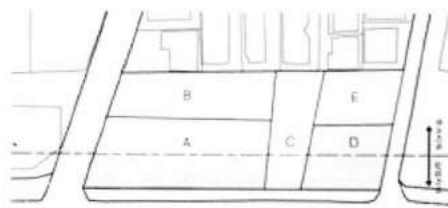
사업주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최대 사업성의 전제하에 들어간 디자인 작업은 새로운 조형의 창출 보다는 기이하고도 해괴한 우리의 건축규제가 만들어낸 매스를 확장하는 정도였다.

규제가 만들어준 매스

대지는 5개의 필지에 노선상업지역이 걸쳐져 있는 경우다. 다시 말

해 본 프로젝트는 하나의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쪽 붉은부분만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도로쪽으로 접근된 매스, 중앙의 커다란 보이드

(Void)와 건물 전반에 사용된 사선은 결국 규제에 의해 생긴 모습이다. 다행스럽게도 주거지역 용적률이 적용된 대지부분(C)을 저층부는 공개공지로, 상층부는 내, 외부로 오픈시켜 풍성한 공간과 의도되지 않은 외부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5개의 필지에 노선상업지역이 걸쳐져 있는 대지상황(국토법 84조)





1층 평면도

실패한 가벼움과 변화하는 입면

도심의 가로변 건물들은 그 거리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런 면에서 이 거리는 언주로를 지배할 만한 건물도 없고, 가로의 연계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호텔과 저층건물 등이 뒤섞여 산발적이다. 대지 건너편의 아파트는 도로에 바짝 붙어 그 높이를 자랑하며 건물매스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더욱 옥 매스를 도로쪽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사업성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프로젝트를 보다 투명하고 보다 단순하게 고층부 매스를 구성하여 가볍게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장식적요소를 배제하는 투명유리가 필요했다. 그 투명한 건물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며 만들어내는,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입면은 이 거리에 분명한 이슈를 던져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건물의 공사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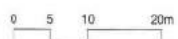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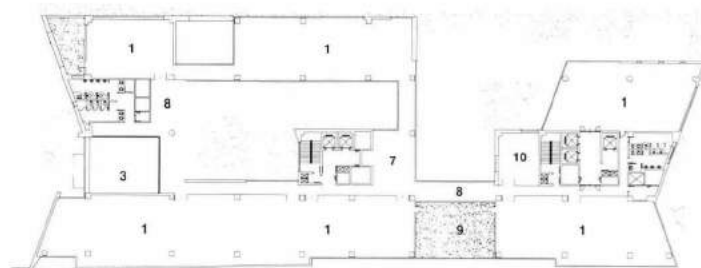
상층부의 투명유리는 흔하디 흔한 초록빛의 유리로 바뀌고 만다. 초록색 유리안에서 변화하는 입면은 가벼움도 도시경관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순간이었다. 완공된 초록빛의 유리덩어리를 보는 나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대지내 사선과 건물의 형태

대지내 필지구획선인 사선은 최대 용적률을 위해 건물에 사선축이 부여되었다. 이 사선의 축들은 보행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대지 내부로 유도하고 전체 건물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선들은 대지 구석구석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활동 및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



- 01. 업무시설
- 02. 로비
- 03. 아트리움
- 04. 공개공지
- 05. 내부마당
- 06. 선관
- 07. 휴게 & 홀
- 08. 복도
- 09. 휴게데크
- 10.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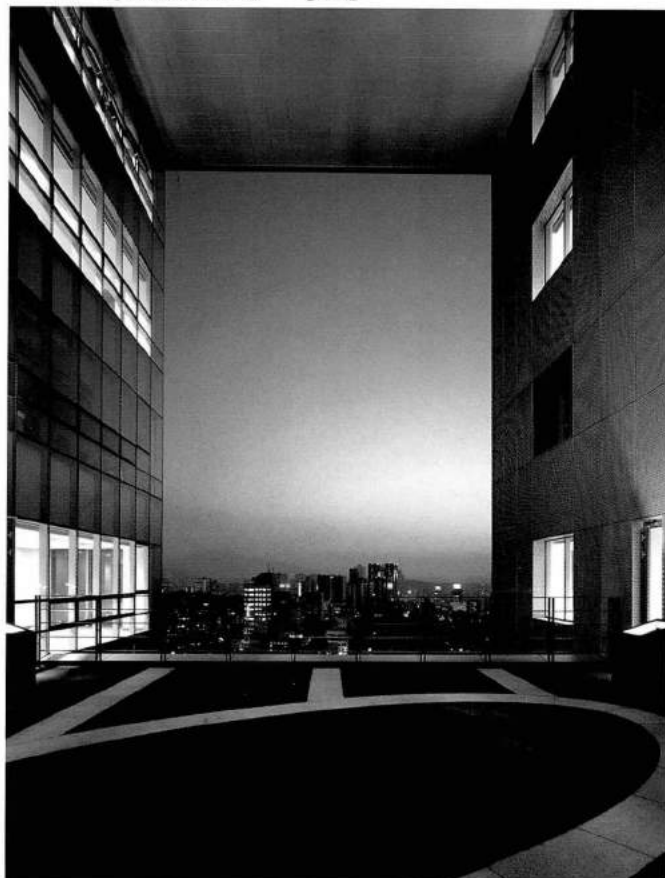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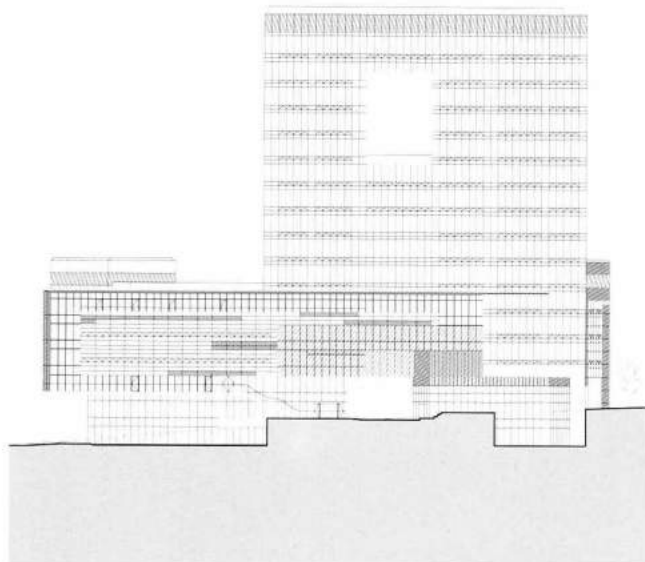


- 1. 주입로
- 2. 내부마당에서 올라다 본 전망
- 3. Void
- 4. 아트리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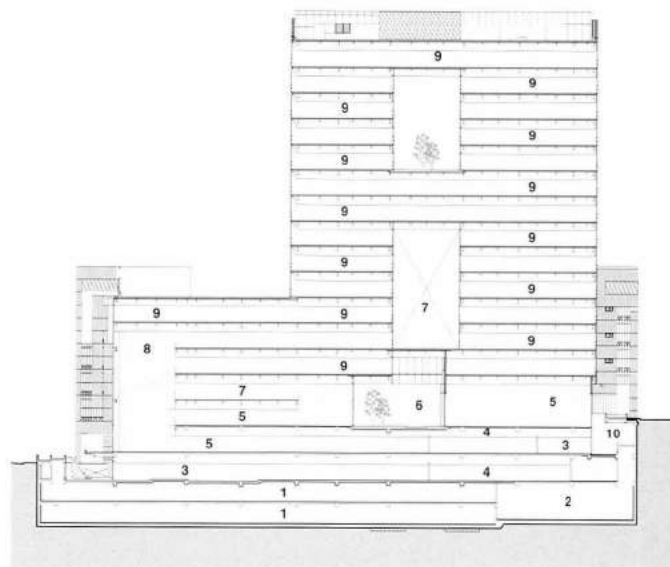






0 5 10 20m

정면도



횡단면도

- | | |
|----------|----------|
| 01. 주차장 | 06. 공개공지 |
| 02. 전기실 | 07. 아트리움 |
| 03. 홀 | 08. 업무시설 |
| 04. 판매시설 | 09. 선관 |
| 05. 로비 | |



- | | |
|------------------------|-------------|
| 1. 두 개동 사이의 Open Space | 4. 아트리움 계단실 |
| 2. 내부마당 | 5. 로비 |
| 3. 선관계단 | 6. 내부 복도 |

행복했던 기억들 - 김성운 류마티스 클리닉, 청담동 Tribeca

Memories of Happiness - Kim's clinic, Cheongdam Tribeca

김성운 류마티스 클리닉(kim's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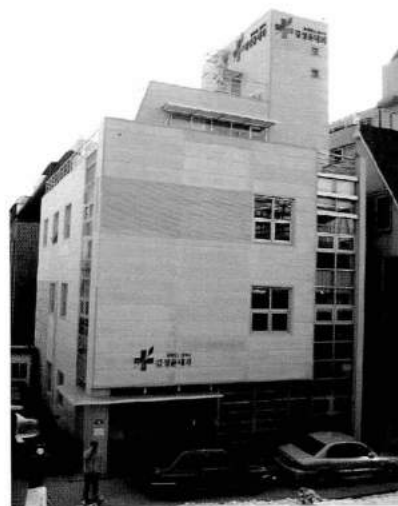
김성운 류마티스 클리닉의 경우 2001년에 진행했던 작업이다. 규모는 작지만 설계, 시공, 인테리어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작업이었다. 4개월에 4층 건물(약 500m)을 설계, 시공,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힘든 작업이었다. 골조 공사를 끝내자마자 외장, 내부, 설비, 전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낮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도면을 작성했다. 일정을 조정하면서 여름장마와 싸우며 힘겹게 완성해 나갔다. 가능하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건축주의 믿음과 지원이 아닌가 싶다. 설계자인 우리를 믿고 많은 부분을 맡겨주었고 지원해 주었다.

지금도 개원 전날 모든 작업을 마치고 건너편 건물에서 건축주와 야경을 바라 볼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다. 건축주의 고생했다는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고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만족감, 성취감, 희열 등으로 설계한 후 느꼈던 보람 중 최고였다. 참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가끔 힘들거나 나태해질때는 그 건물에 들러 그때 그 느

낌을 간직하려 한다. 지금도 건물을 아껴주고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할 부분이 있을 때도 꼭 필자에게 "당신이 디자인 했으니" 하며 의견을 물어보시는 김성운 원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성운 류마티스 클리닉은 4층 전체를 류마티스 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1층에는 접수, 주사, 원무과를 배치하였고 2층은 검사, 3, 4층은 진료실로 구성하였다. 계단은 홀이 좁아 별도 구획하지 않고 설치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



전경



외부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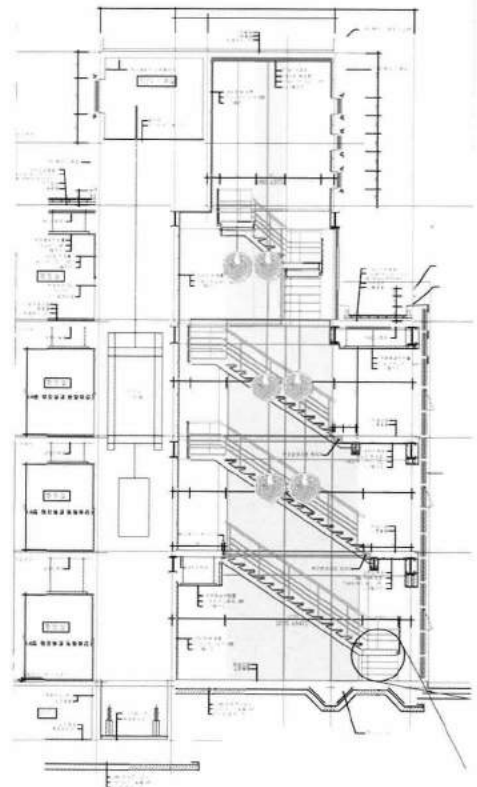


1_ 1층 내부 2_ 2층 내부 3_ 3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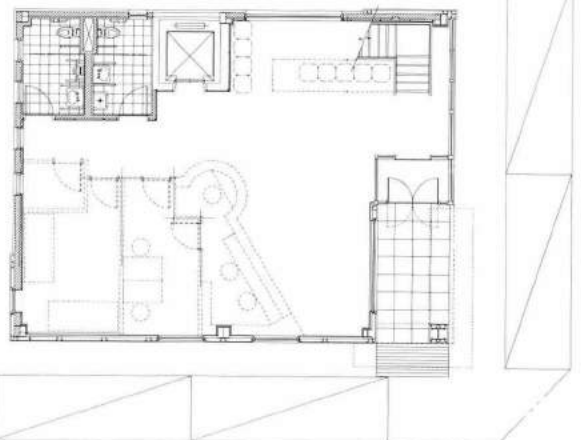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7-1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의원)
대지면적	251.30㎡
건축면적	133.93㎡
연면적	501.29㎡
건폐율	53.29 %
용적률	199.48 %
규모	지상 4층
구조	철골조
내부마감	석보보드위 vp, 무늬목
외부마감	임축시멘트성형패널(베이스패널)

였다. 외부는 의원으로써 깨끗하고 신뢰가 갈 수 있게 베이스 패널과 커튼월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내부는 석고보드에 흰 비닐페인트를 기본 마감으로 무늬목과 유리로 구성하여 환자들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공간이 많이 협소해 장비 및 실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圖



계단단면



1층 평면 및 배치도

청담동 Tribeca(Cheongdam Tribeca)

2003년 여름 아랫층에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온 것이다. 당장 대지를 방문하였는데, 언젠가 이 대지에 계획하면 괜찮은 건물이 건축될 것 같다고 생각한 대지였다. 대지가 도로와 약 9m정도 차이나는 평범하게 볼 수 없는 대지였다. 당장 연락하여 대지를 구입토록 하였고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건물의 기능 및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넓은 바(Bar)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었고 기타 기능은 카페, 와인 바 등의 상업건물이었다.

대지 자체에 레벨차이가 있다보니 옹벽으로 구성된 지하부 매스와 지상층 매스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졌다.

지하에는 주차장 및 넓은 공간이 필요한 바(Bar)를 위치시켰고, 도로에 노출된 지하외부 옹벽의 한쪽은 케라트윈 패널을 각을 주어 설치하였다. 한쪽은 메탈릭 패브릭을 설치하였으며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가로외부의 일부로서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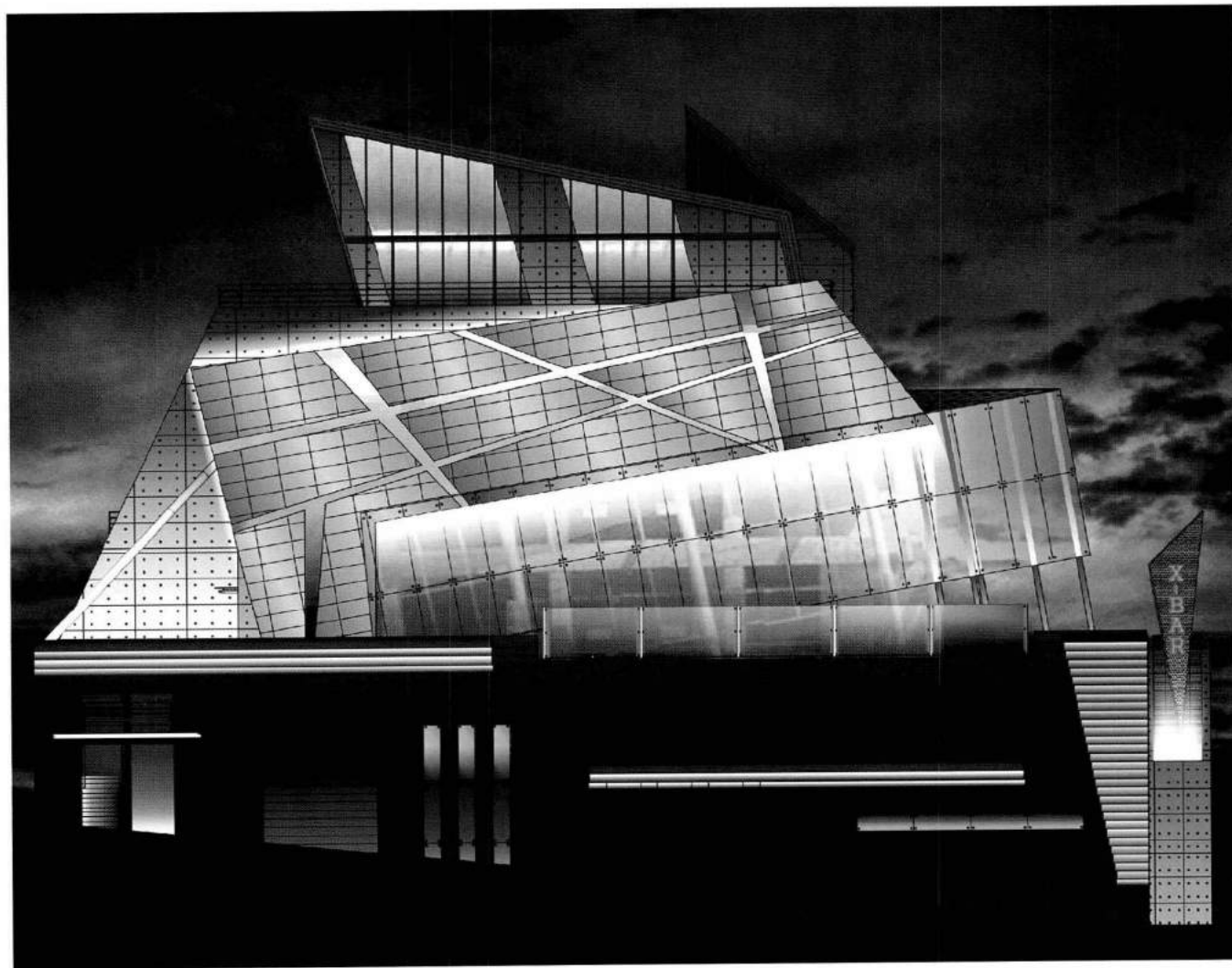
건물의 지상에는 카페, 와인 바 등을 위치시켰다. 1층이 도로로부터 9m 높이 설치되다보니 지상에 설치된 조경공간은 하늘 정원의 느낌이었고 SPG 시스템으로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내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지상 매스는 안정된 지하 매스 위에 역동

적으로 구성하였다. 지상층의 외부는 노출콘크리트를 기본으로 징크와 유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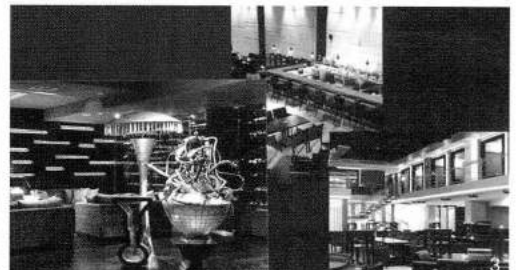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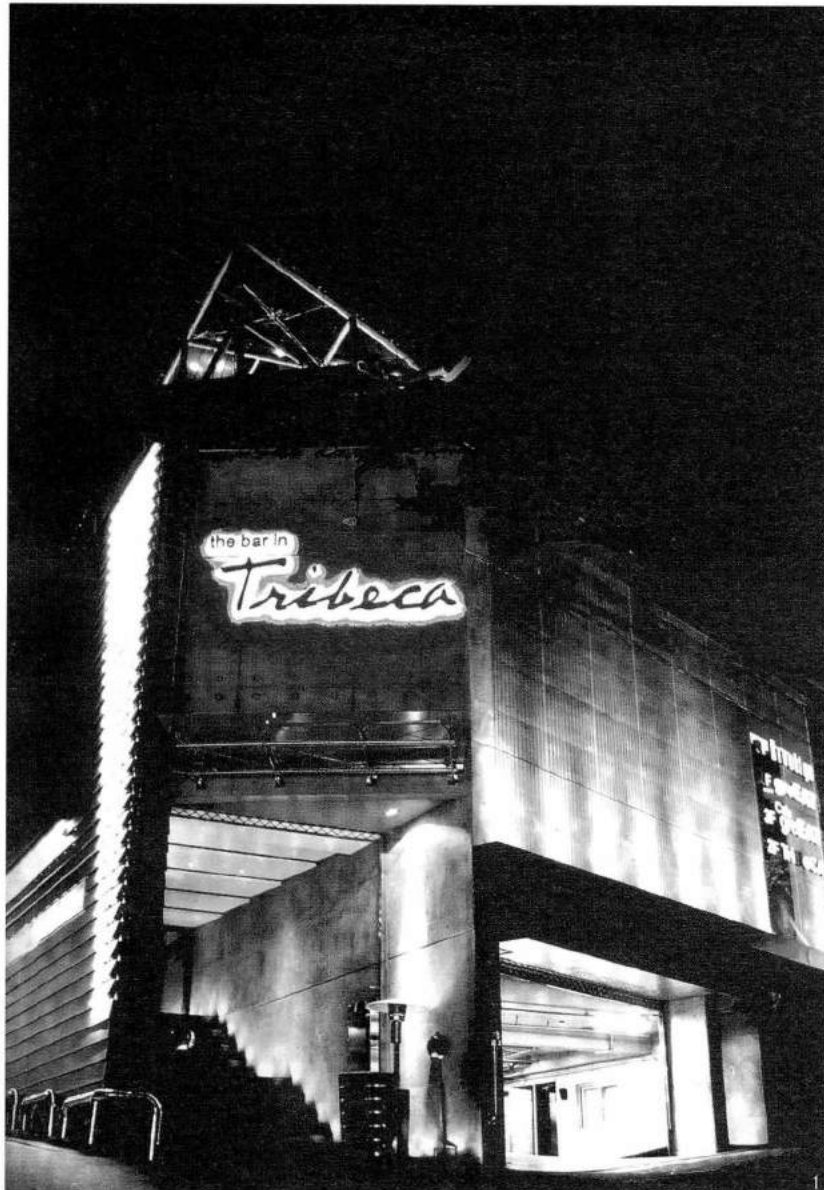
이 작업을 하면서 즐거웠던 점은 건축주의 많은 이해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건물의 건축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였다.



전경



Lighting Plan(정면도)



1_ 야경 2_ 전경 3_ 바(Bar) 내부

건축의 전문가가 보니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설계자로 하여금 완성도 높은 건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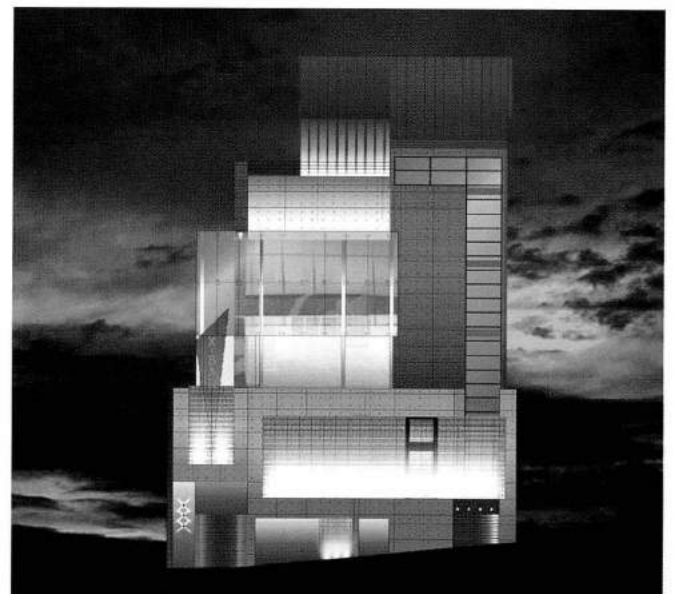
디자인을 결정 못해 힘들었을 때는 일본으로 견학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건물 디자인을 동의하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고 완성도 있는 건물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상 정원의 구성을 위하여 조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건물 내외부 조명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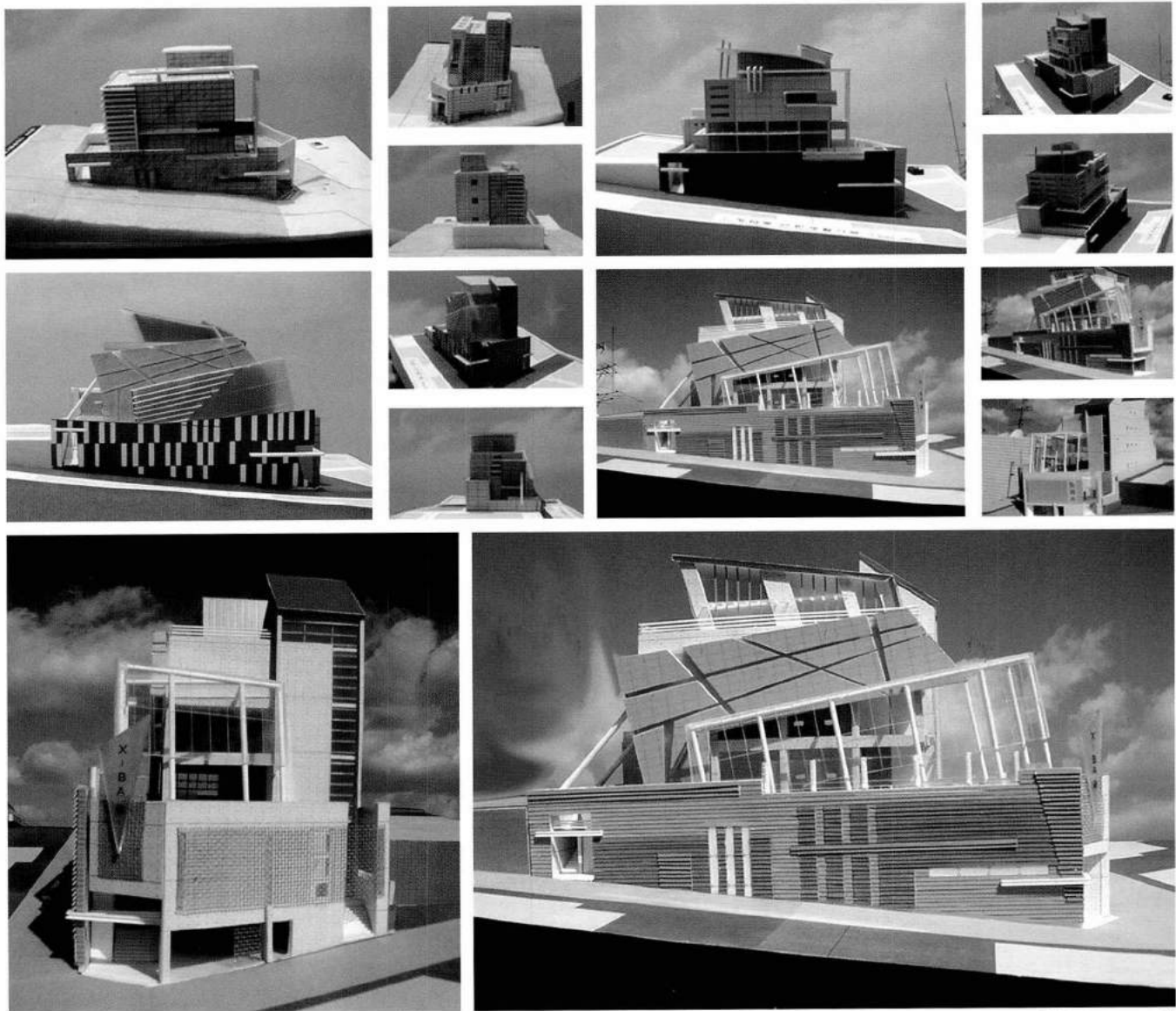
음향전문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도움들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시공, 감리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상업공간의 특성상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처음 디자인에서 많이 바뀌었고 준공 이후에 형태가 보존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변형되어 설계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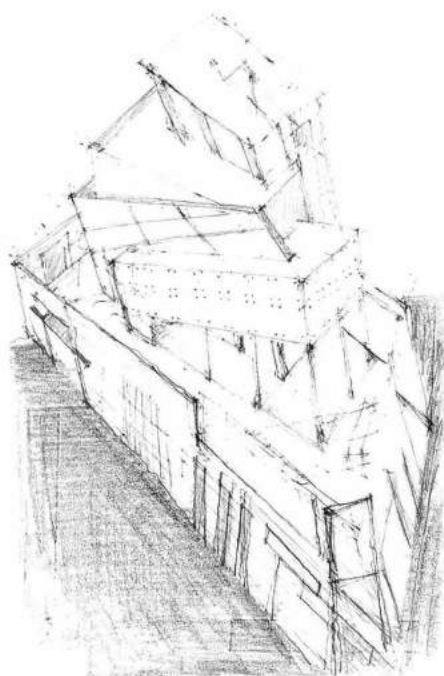
Lighting Plan(우측면도)



청담동 Tribeca 모형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9-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지면적 794.80㎡
 건축면적 351.77㎡
 연면적 3,206.98㎡
 건폐율 44.82 %
 용적율 150.10 %
 규모 지하 4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유리, 징크
 설계담당 박진만, 이충환
 구조설계 김익정
 설비설계 동아설비
 전기설계 선화기술단
 조명설계 메버릭스
 조경설계 C & K
 시공사 동은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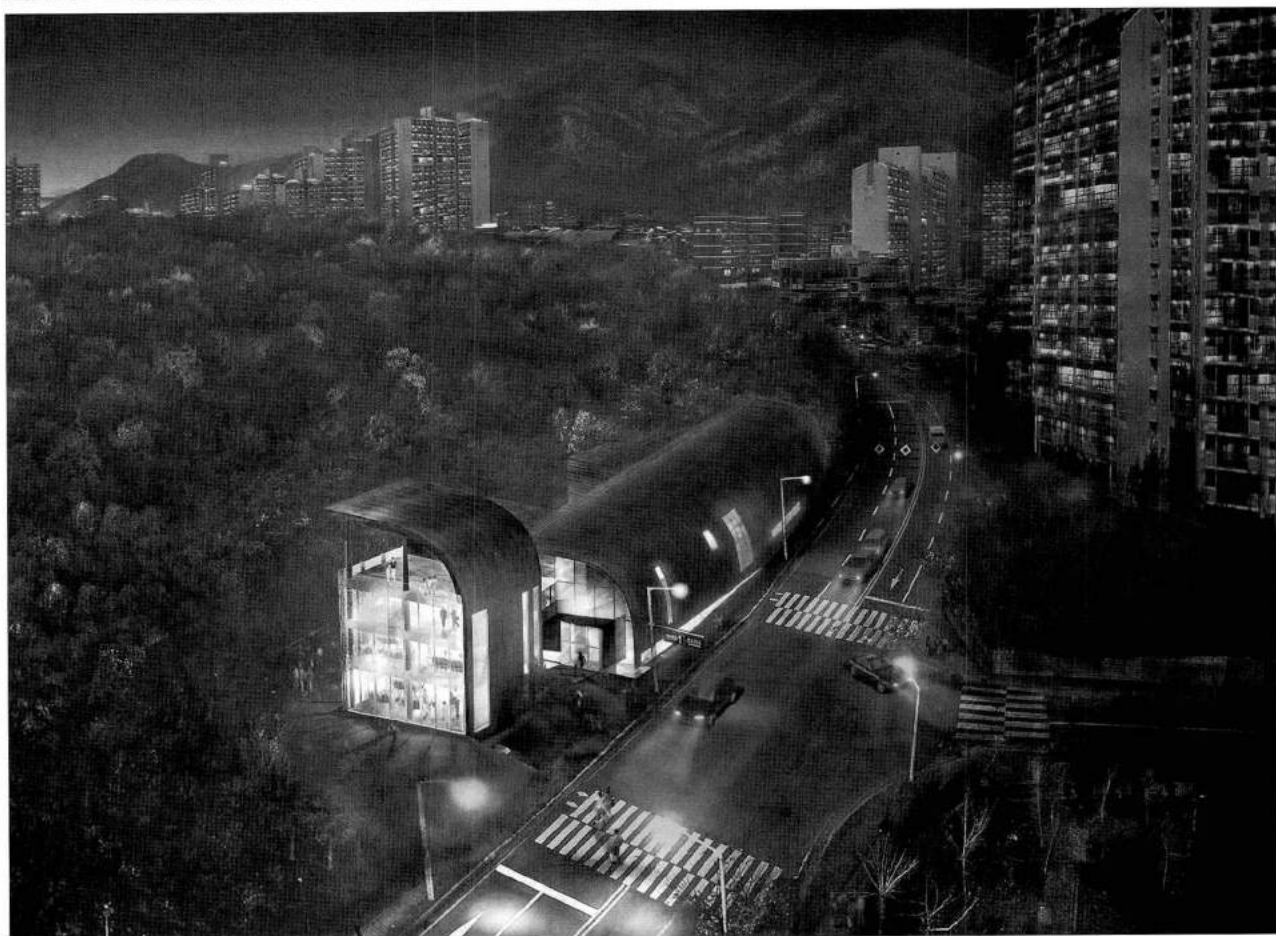
어린이도서관 Library for Childre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능안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273m ²
연면적	2,200m ²
건폐율	2.1%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외부마감	부식동판, 복층유리
주차대수	13대



최근 유행하듯 각 지자체가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이 어린이도서관 계획도 그 중 하나로, 경기도 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속 근린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대지는, 남으로 기존의 인근 산이 아파트 단지 내로 흘러 들어온 것을 공원으로 만든 근린공원의 숲과 마주하고, 북으로 대지를 따라 길게 간선도로가 접해져있으며 그리고 그 건너편은 아파트 단지가 뻗뻗이 들어서 있는 길쭉한 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기본 프로그램을 담기에 앞서 대지가 갖는 주변상황으로 도서관이 가져야할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엮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 대지의 북쪽에 길게 붙은 간선도로로부터 소음과 혼란한 속도의 차량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둘째 : 그와 반대의 남향으로는 되도록 개방시켜서, 어린이를 위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합시킨다.

셋째 : 따라서 남으로는 많은 외부표피를, 북으로는 최소면적의 껍질을 입힌다.

이러한 대지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릇 속에 들어갈 내용물을 담기 시작했다.

어린이도서관!

옆집에서 차를 사면 운전을 할 줄 몰라도 사야하는 우리의 습성!

어린이도서관이 무엇인지도, 아니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면 된다는 생각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이 보다 더 위험하다.

모든 시설 중 어린이를 위한 것은 무엇보다 그 공간의 축척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린이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 침대보다 안락(?) 할지도 모른다.

공간의 축척에 따른 심리적 상황은 어린이, 특히 유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우선 2개의 동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와 어른의 사용공간에 따른 덩어리를 분리시켰다.

물론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의 모든 주된 수직 동선은 경사로를 사용하였고 이 주된 출입 동선의 경사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사도를 그대로 내부로 끌어 들였고, 그러므로 경사로를 따라 수직으로의 이동은 바깥에 있는 친구도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각각의 실들은 사용자인 어린이, 유아의 높이와 부피에 맞게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서로의 공간은 포도송이처럼 경사로에 매달리게 했다.

이러한 모든 내부공간의 변화는 남쪽의 공원 속 숲으로 열리게 하고, 따스한 햇살 아래 자연의 품 속에 어린이를 풀어 놓게 했다.

속살 같은 남쪽의 실들은 북쪽의 간선도로의 소음과 차량의 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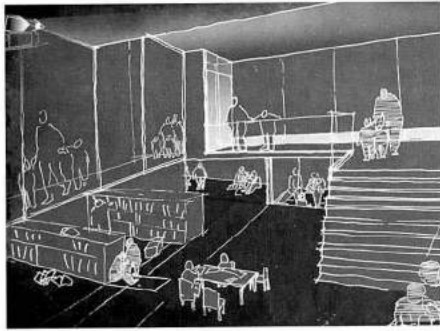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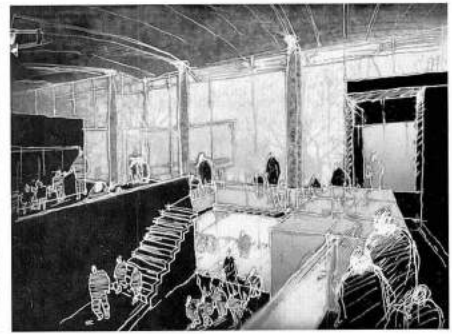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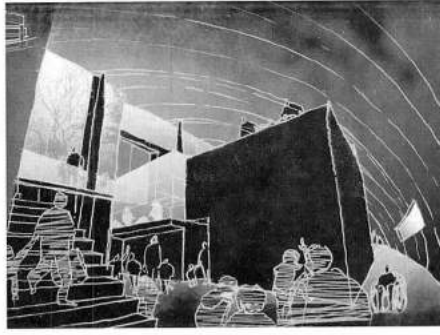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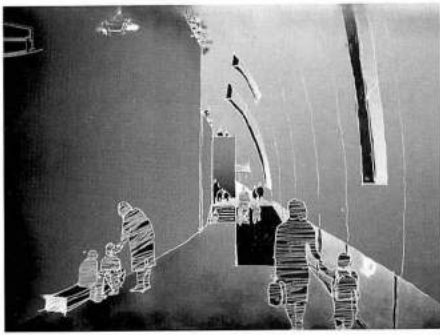


1_ 어린이동과 관리동의 연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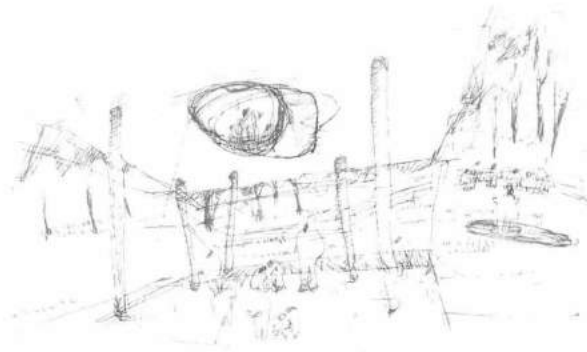
2_ 근린숲에서 본 열람실

3_ 유아-어린이열람실 연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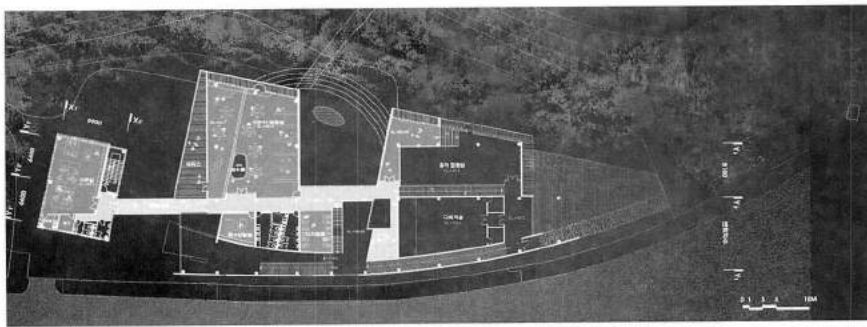
4_ 홀에서 본 유아놀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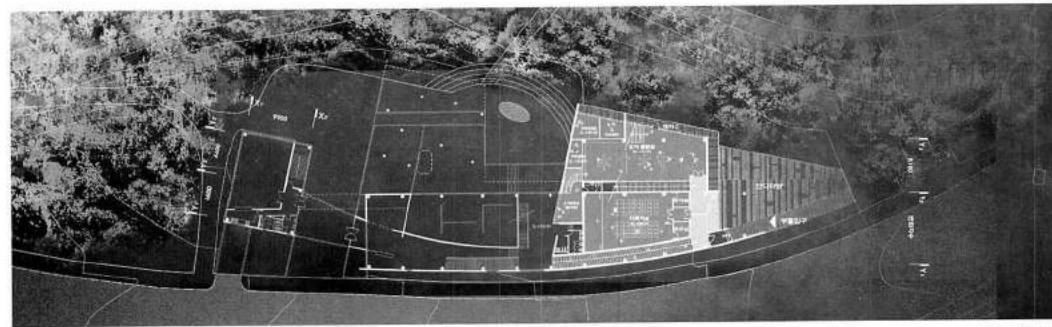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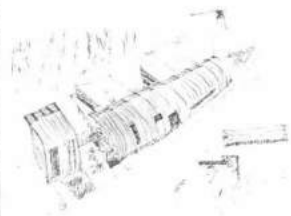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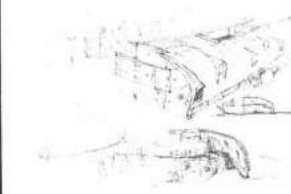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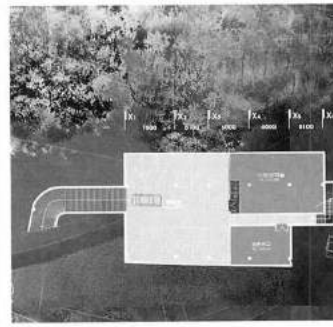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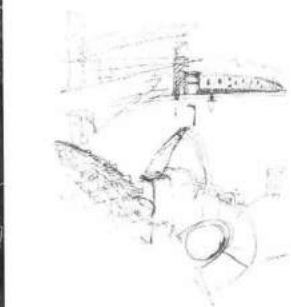
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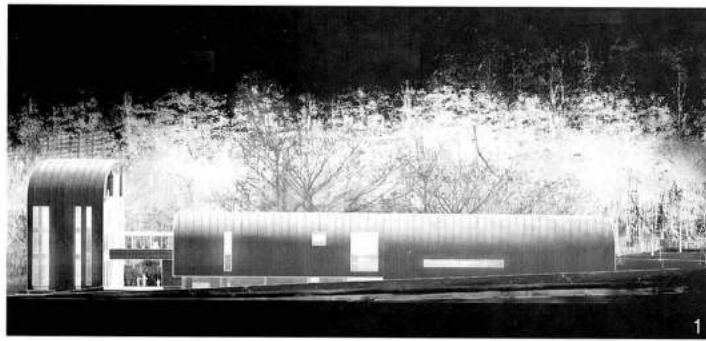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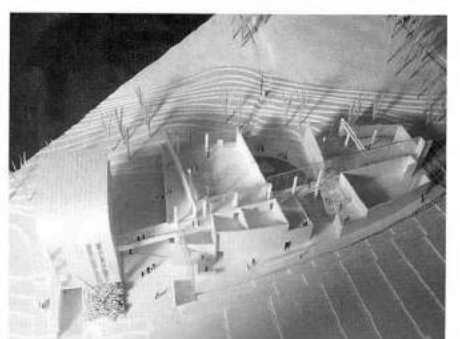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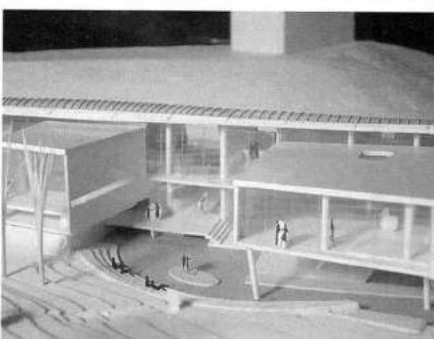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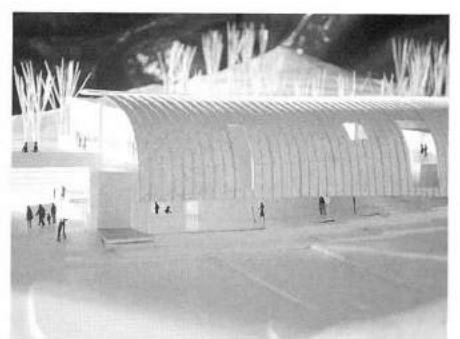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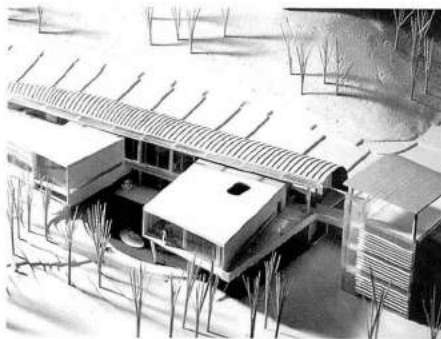
1. 정면도 2. 좌측면도 3. 우측면도 4. 횡단면도

움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두껍고 단단한 껍질로 싸여져 있으며, 이 껍질은 내부동선이 만나는 장소에서는 열리게 하여, 소리를 없앤 무성 영화를 보는 듯 질주하는 차량과 멀리 집들을 보게 하겠다.

많은 일반도서관을 계획하였지만, 특히 이 어린이도서관 계획은 축적의 초점을 어린이의 공간 속에 맞추고, 그 운영과 조정을 어른의 생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계획안이다.

만약 중층의 유아 열람실 내, 구연 동화실에서 읽어주는 동화를 듣다가 꼬마아이는 잠이 든다. 그러면 그곳은 진정 그 아이의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백설 공주는 일곱 난장이에게...” ㉔



설계경기 | Competition

동대문구 수련원

Dongdaemun-gu Training Center

당선작 / 목대상, 박영순 성화원(건축사무소 상화) + 정가정, 이만수 성화원(주. 건축사무소 유오에스)

대지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21,478.00m²

건축면적 889.13m²

연 면 적 2,996.78m²

건 폐 율 4.14%

용 적 륜 8.96%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외부 - 징크, 알미늄패널, 두께24투명복층유리, 적벽돌치장쌓기

내부 - 대리석,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협력업체 CG-DNA design group(02-529-0868)

설계담당 상화건축 - 김상철, 서영수

유오에스건축 - 한윤택, 전승기, 박상혁, 안한주, 박수영, 진희중

청풍호가 바라다 보이고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대지 그러나 그 용처가 다해 쓸모가 없어진 학교...

건축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된다. 물과 산이 어우러져 자연의 한없는 아름다움에 그저 숙연해지는 이곳에 우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비교적 쉽게 해결되어졌다.

우리는 대지를 캔버스(canvas)로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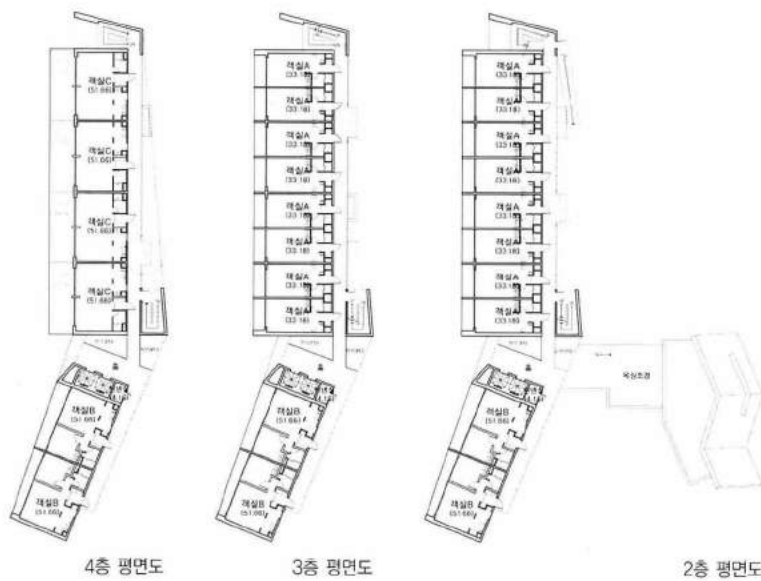
이번 현상설계에서 우리는 건축이라는 것을 대지라는 캔버스에 사람들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수련원으로서의 시설 변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지의 원형을 보전한 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지와 건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고 소통이 원활하며 자유로운 동선 계획으로 동적이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가급적 빈 공간을 많이 계획하고자 하였다. 더불어서 외부공간은 주제를 설정하여 건물과 긴밀한 공간협력을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교사동이 배치되었던 지형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지하층은 외부와 직접 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선근을 계획하여 활동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객실의 배치는 요구된 2개 타입을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층 복도에서 월악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알코브를 계획한다. 이러한 시각적 장치는 건물 내외부에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유오에스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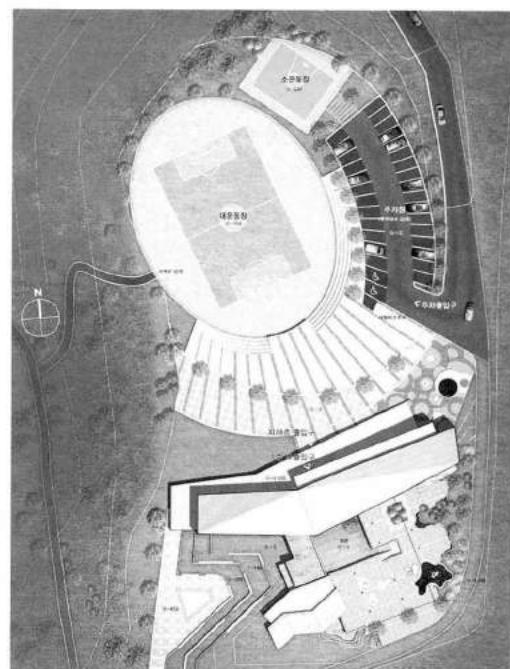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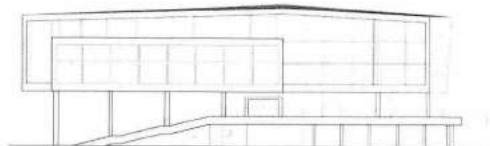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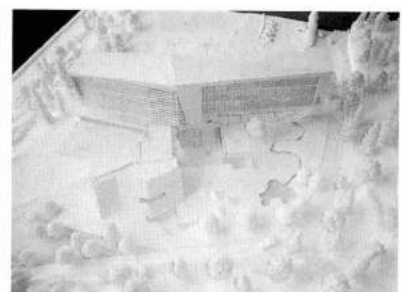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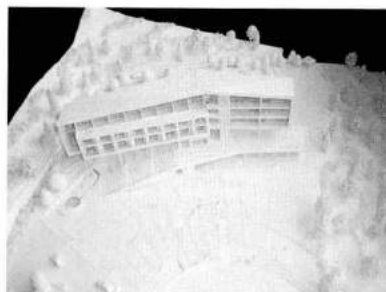
청단면도



종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동대문구 수련원

Dongdaemun-Gu Training Center

우수작 / 엄태희 정회원
(주. 아라엔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외
3 필지(131-2, 5, 11)
지역지구 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면적 21,478㎡
연 면 적 2,939㎡
건축면적 1,339㎡
건 폐 율 6.23%
용 적 륜 13.68%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4층
최고높이 18.8m
도로현황 전면도로 12m, 진입도로 5m
설계담당 김태현, 고이경, 이정현, 박창진, 이진희,
배인경, 이해원, 이재현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의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현대적 이미지의 수련원을 설계하고자 했다. 채광과 열린 조망이 풍부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변지형과 매스가 어우러지도록 자연에 순응하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다양한 휴식과 교류가 가능한 외부공간을 통해 열린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시민을 위한 휴양, 교육적 기능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개념

대지의 기존 지형레벨(단차)을 고수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하여 매스와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대지의 전면에 산책로와 운동장에 적합한 최적의 면적을 확보한 후 매스의 위치를 최대한 전면으로 배치하여 정면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매스 후면 역시 접근성이 좋은 주차공간과 후정을 확보, 배치하여 계획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자연스레 대지 전후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외부공간의 흐름이 가능토록 하였다.

평면계획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분배하여 효율적 공간활용과 기능간의 연계 및 분리를 이루기 위

해, 지상 1층에는 교육 및 후생시설을, 지상 2층에는 편의시설을, 지상 3, 4층에는 숙박시설을 분리배치하여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연계해주는 매개공간인 휴게데크와 매스간의 중정을 계획하여 각각의 기능별로 독립된 공간을 연계해주는 수직, 수평적인 유기적 동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지 남향과 북향의 장점인 풍부한 채광과 조망을 끌어내기 위해 매스를 분절하고 중심에 중정을 계획함으로써, 북향의 자연경관을 향유함과 동시에 남향의 채광을 건물 내부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숙박시설에는 데크형 발코니를 두고 상부를 뚫어 북향의 단점인 채광부족을 보완하였다.

입면계획

매스의 분절을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면서 주변산세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내어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입면을 계획하였다.

저층부 투명한 매스와 그에 대비되는 떠있는 상층부 매스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며 현대적 감각의 수련원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건물 1층은 전면유리로 계획함으로써 2층레벨의 휴게데크와 연계되어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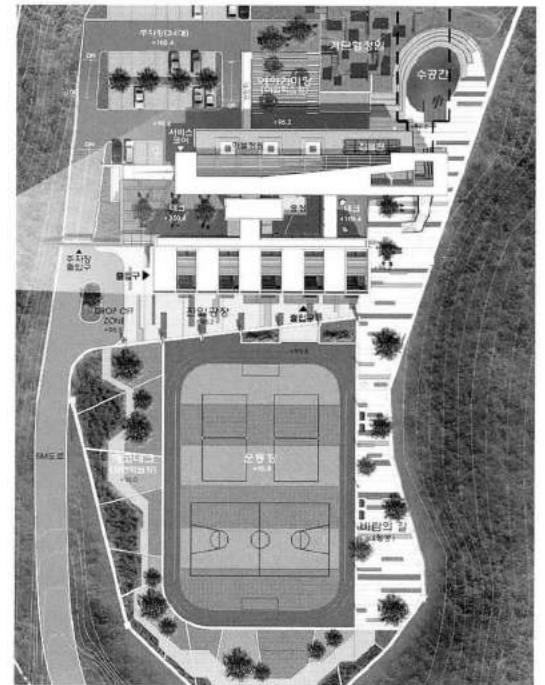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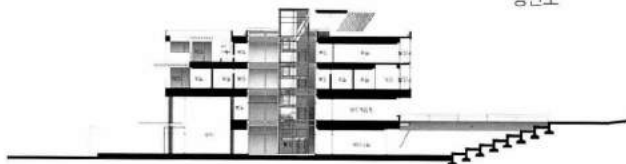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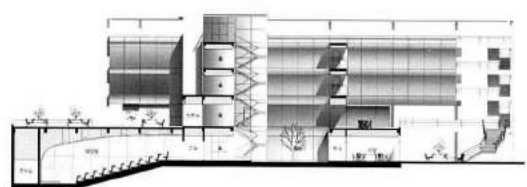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청주 서부도서관

Cheong-ju Seobu Library

당선작 / 오선교 정화원

(주.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2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6,496.50㎡
건축면적	1,098.53㎡
연면적	2,481.47㎡
건폐율	3.39%
용적률	4.94%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주처	청주시청
설계담당	정용현, 송웅룡, 강희준, 강석진, 김승재, 박성일, 김두현

Linkage : '연계-사잇공간'

사잇공간은 도서관의 공간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각각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며,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시점이다. 체육시설과 공원 산책로와의 연계를 통한 자연교류, 지역주민의 자연휴게, 다양한 정보교류, 문화체험,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들며 지역주민들에게 여유를 제공한다.

배치계획 :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드는 사잇공간...'

도시와 공원에 경계점에 위치할 열린 도서관은 지역간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사잇공간을 갖는다. 공원 내 체육시설, 동사무소와 각 휴게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도선을 유입시켜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시작점이 된다. 또한 이 사잇공간의 중심으로 두 매스를 분리 배치하여 변화하는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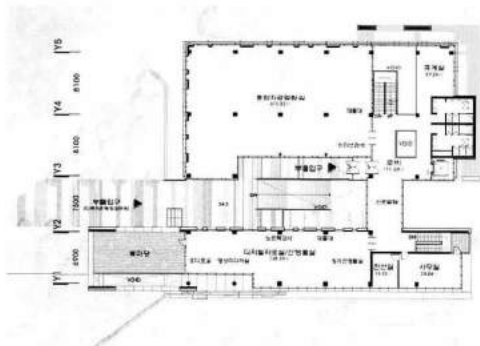
평면계획 : '활짝 열린 주민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 B1
 - 레벨차를 이용한 선크가든 조성
 - 자연채광 및 환기를 통한 쾌적한 환경제공
 - 다양한 교류의 다목적 활동 공간 마련
- 1F
 - 어린이열람실과 모자열람실은 햇살에 의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에 유리하도록 남향 배치
 - 직지마당을 통한 유아활동 범위 확대
- 2F
 - 사무공간을 2층에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디지털자료실과 종합자료열람실을 동별기능배치로 분리하고 브릿지를 통하여 유기적인 연결을 꾀함
 - 열람실은 남측 사잇공간에 의한 자연채광을 유입하고, 북측의 열린 조망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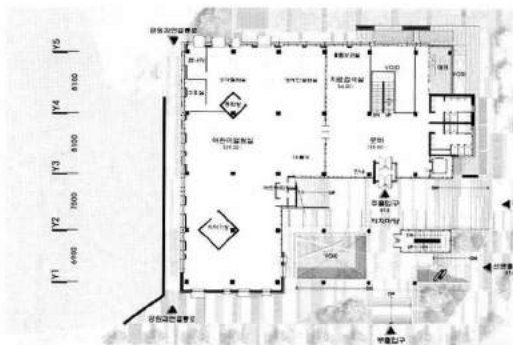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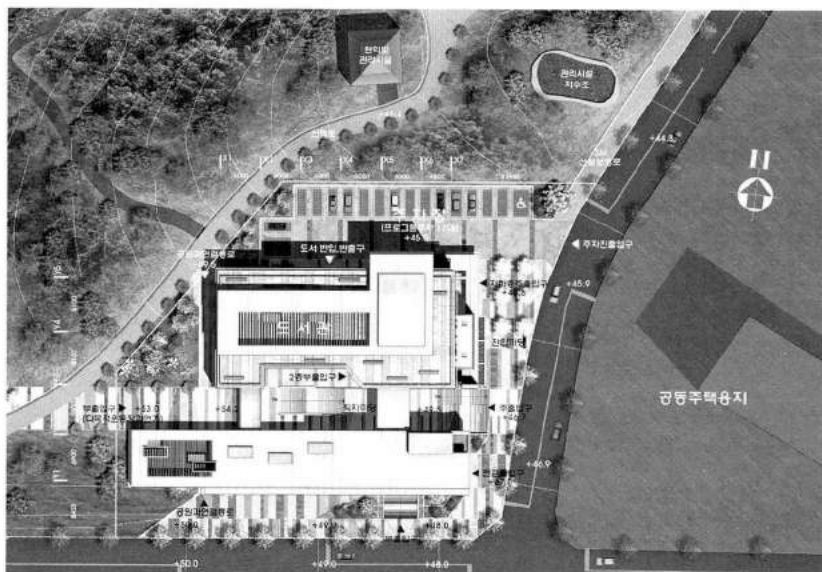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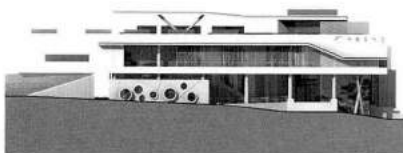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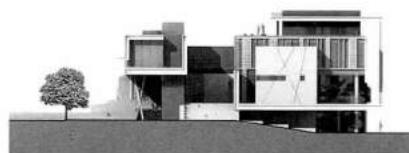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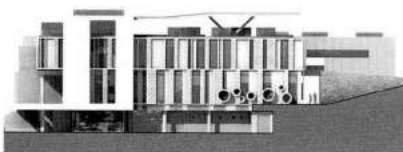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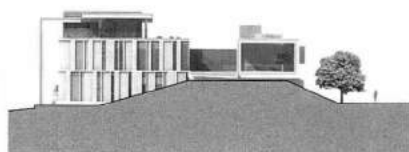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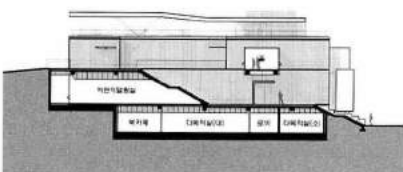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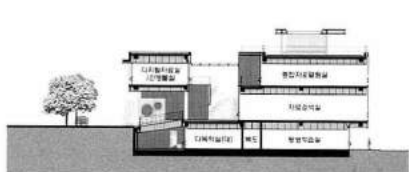
북측면도



서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투시도 1



투시도 2



Linkage(연계-사잇공간)

청주 서부도서관

Cheong-ju Seobu Library

가작 / 정철영 정회원

(주. 청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25(진재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시설(근린공원시설)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950㎡

건축면적 1,066.80㎡

연 면 적 2,472.06㎡

건 폐 율 2.92%

용 적 륜 5.1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김진기, 조명희, 신종호, 조성식

새로운 장소에서의 건축공간은 '집단적 삶'이 가지는 모든 형태의 근본'이기 때문에 공공성, 효용성, 조형성, 지역성이 표현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는 공간의 구축이 요구된다.

계획의 주안점

-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공
 -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행사 유치를 위한 열린공간 제공
 - 기능적이고 명확한 동선체계로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 도모
 - 경사지형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풍부한 내외부 공간의 체험유도
-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구현을 위한 형태의 모색
 - 현대적 감각의 조형성, 인지성에 의한 새로운 지역명소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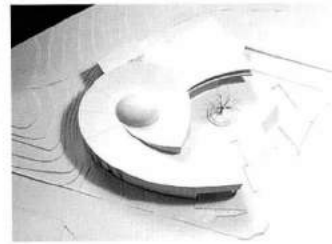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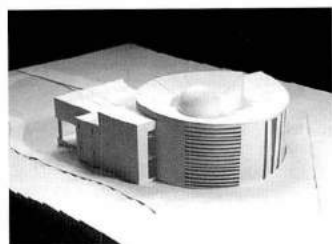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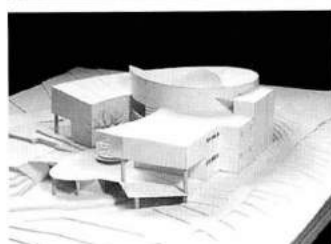
- 열린 도서관의 접근성과 곡선에 의한 친근한 이미지의 형태모색
- 주변환경과 조화된 기능의 부여
 - 주변공원과의 합리적인 이용동선 체계 확보
 - 저층부 자연채광 확보를 위한 천창의 계획

형태계획

- 근린공원 내 위치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형화된 형태를 탈피
- 전통적(버선코/처마)요소 중의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고,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모습의 흐름 형태를 형태화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 기능별 Zoning
 - 이용특성에 따른 층별 공간계획
 - 다양한 옥외데크 등을 통한 친환경공간 제공



• 세부계획

- 지하층(서비스영역) : 주차장을 통해 장애인 및 복도빌의 원활한 접근 유도
- 1층(정보처리/사무관리영역) : 자료실, 전산실, 사무실의 그룹화된 배치로 업무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
- 2층(학습/문화교육영역) : 열람위주의 공간으로 학습분위 조성을 위한 상층부의 독립배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여 시설물 이용의 융통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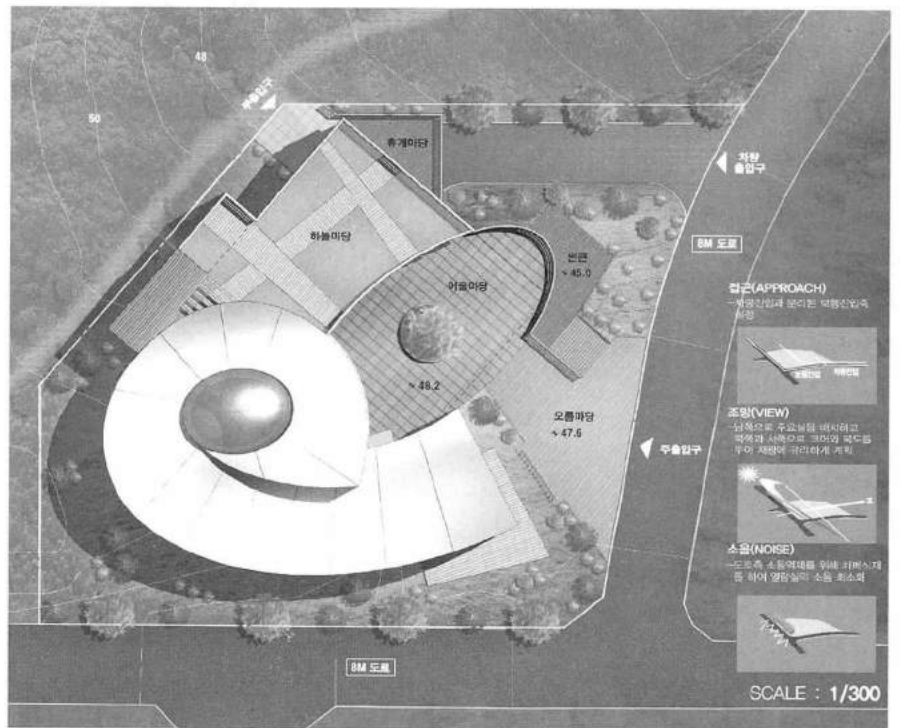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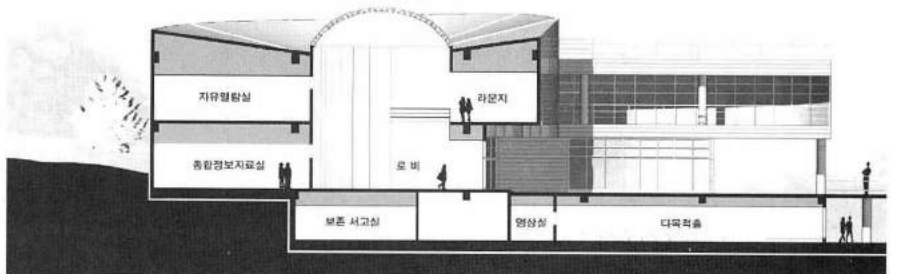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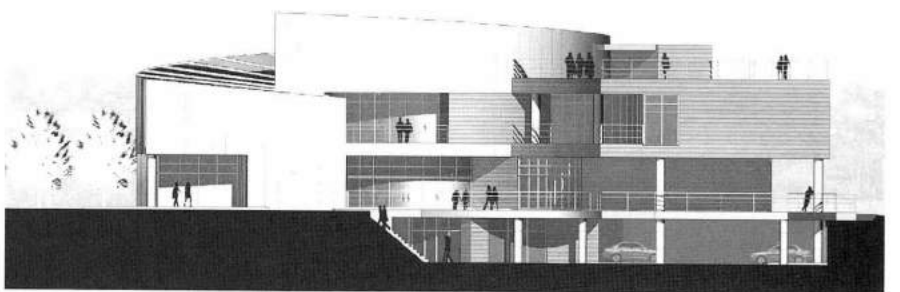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배치도



주단면도



입면도



이 병 길
정회원, 예림 건축사사무소(강원)
by Lee, Byeong-kil, KIRA

삶의 공간 세우기 20년

— 제13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20 Years for Establishing Lifescape ;
reflection of the 13th Korea Female Registered
Architect Convention**

‘2007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의 개최지가 강원도로 정해지면서 강원도 소재 4명의 여성 건축사들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최적지로 어디가 좋을지 많은 논의 끝에 자연과 역사가 함께 하는 동해안 강릉, 속초로 결론이 났다. 그 때부터 필자의 행보는 바빠졌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절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삶을 읽어내고 선택, 분석하여 공간으로 형상화하면서 겪었던 고민이 여성 건축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덜어질 수 있었다. 선배님들의 사랑, 동기들의 우정과 연민, 후배들의 귀여움 속에서 외로움도 절망도 이겨 내길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실무자로서 회장의 철두철미한 진두지휘 아래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차근차근 준비는 진행되었고, 드디어 결전의 날은 다가왔다.

서울과 대전에서 출발한 버스에서 80여 명의 회원들이 출발해 12시 즈음 강릉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대회가 대도시 중심의 대형 건축물을 답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모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이어지는 여유 있는 공간의 멋을 느끼게 해 줄 곳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른 곳이 강릉의 선교장과 오죽헌이었다.

관동대 정재국 교수님의 친절한 안내로, 요즘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모내기 상차림을 재현한 고옥 ‘서지팔’에서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선교장을 찾았다. 일명 배다리 집으로 불렸던 강릉 선교장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서 인공 연못 위에 세운 정자로 ㄱ자형인 마루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 돌기둥을 받친 누각형식으로, 연못 지중에 당주가 있고 소나무 숲의 정자가 있는 활래정이 보인다. 위쪽의 선교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맑은 물은 이 연못에 모인다. 선인들의 지혜가 섬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자유스럽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날따라 활래정 마루 밑의 아궁이에는 군불이 지펴지고 있었다. 축축한 날씨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니 따뜻함이 느껴진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좌측으로 농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초췌와 소옥들이 있으며, 바로 보이는 행랑채에는 대문이 두 개가 나있다. 왼편엔 남자들의 출입문인 솟을대문이, 오른편에 여자들이 드나드는 평대문이 있다.

솟을대문 입구에서 정교수님의 권유로, 박영순 회장님이 “나를 따르라” 며 외치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우루루 안으로 들어섰다.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남성의 사랑채인 열화당과 하인들이나 손님의 행랑채, 여성의 안채로 여성들의 생활상이 공간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으며, 현대 건축물에만 존재할 것 같던 수납공간인 반침이 각방에 설치되어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서지들

정교수님의 섬세하고 낭랑한 설명이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

비 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우리는 오죽헌으로 향했다.

오죽헌은 조선 초기의 별당 건축으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다. 주심포에서 익공집으로 변천과정을 보여주며 공포양식이 2익공 양식으로 새의 부리형태가 그대로 느껴졌으며, 이이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문성사는 콘크리트로 목조건물인양 지어져 있어서, 마치 생화 같은 조화의 느낌이어서 위화감을 주었다. 이제 우리도 건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예술성과 환경 조화성을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고액 신권 화폐모델로 신사임당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



선교장



오죽헌

들 올곡은 이미 화폐에 등장했고, 그를 키워낸 최고의 어머니상인 신사임당이 고액 신권 화폐 모델로 선정되는데 우리 여성도 한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신사임당의 성품 및 여류예술가적 기질을 생각해 볼 때 현대 우리 여성 건축사들이 닮은꼴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일정인 낙산사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관계로 일정이 늦어져서 낙산사에는 들르지 못하고 바로 호텔로 가기로 했다.

2005년 4월 5일 발생한 큰 산불로 낙산사원장, 원통보전, 일주문, 홍예문 등 주요전각과 동종이 소실되고, 7층 석탑이 일부 손상되었다. 낙산사의 불은 거의 다 잡은 불길이라 생각하고 방심하다 작은 불씨가 다시 커져 대화재가 되었으니, 후손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야 말았다.

현재 낙산사는 불타던 홍예문, 동종이 복원되었으나 옛 모습과는

재료 및 기법에서 차이가 느껴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원통보전은 얼마 전 상량식을 끝냈으며 지속적으로 복원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만찬 준비를 했다.

만찬에는 속초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모시고 환영과 격려를 받으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속초시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도 지급하였다.

뒤이어 여성건축사회 총회가 열렸다.

아쉬움 속에 임기가 끝나는 박영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이재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진들도 재구성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여성건축사의 참여 확대와 제도적 지원'의 제목 아래 발표가 시작되었다.

최근 건축 규제 완화 및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개회식 및 만찬



제진역사

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도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제 및 건축사가 디자인 빌더(Design-Bulider)의 역할을 담당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 및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중심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거듭나고자 다짐하자, 아자! 아자! 아자!

우리들의 발표가 끝이 보이지 않자 시간 관계상 줄여서 끝내기로 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자유의 시간을 가졌다. 밖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신선한 바람과 바다 내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대포항의 불빛도 많이 들어든 심야에 삼삼오오 우리는 횃집을 찾아 나섰다. 적당한 회 값을 치르려고 kg당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서, 나름 횃감도 흥정하고 적당한 가격에 우리는 테이블 몇 개를 붙이고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반가움, 새로움, 신선함, 친근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서로 얹히고 얹히면서 밤은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 날씨는 개었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될 제진역으로 향했다.

통일에 대비하여 새롭게 건설된 '제진역'. 이제 통일만 된다면 아래로 위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그 날을 기다리는 텅 빈 역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그곳엔 남의 나라를 드나들 때 이용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다. 북쪽은 내 나라이면서도 아직은 온전한 내 나라가 아니므로...

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철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둘러보면서 정상적인 철도 개통이 이뤄지게 되면 현재 육로만을 이용해서 이뤄지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의 물류수단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대회 주제인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처럼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텅 비어 있는 이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리하여 그 공간에 의미가 부여될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속초 영랑호로 향했다.

오래 전 신라의 화랑 영랑이 동료들과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고 귀향하던 중 호수를 지나가다가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고, 설악의 울산바위가 비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다. 영랑은 호수에 반해서 귀향길을 늦추고 풍류를 즐겼다고 해서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으며, 둘레가 8km, 수면적이 35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호수로 윈드서핑, 카누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콘도미니엄이 등이 들어서 있어 휴양공간으로 전경이 무척 아름답다. 또한 속초 시민의 운동 코스로 영랑호를 한 바퀴 돌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호수의 아름다움에 운동이 즐겁게 느껴진다.

그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호수에 미풍이 불어 한층 더 아름다운 전경들과 여성건축사들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을 기억하면서... 



영랑호

박진호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Jin-ho

곡면 격자 형태의 교차식 지붕구조 : 이론적 고찰과 디자인 실험(下)

Reciprocal Framing Roof Structures: Theory and Design Applications

PART 2 : 디자인 적용(Application):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한 교차식 구조의 다양한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 실험

곡면 격자 형태의 교차식 구조에서 바람개비 형태 지붕구조에 관한 일련의 이론이나 형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중간 기둥이 없는 대공간 구조나 파빌리언(pavilion)과 같은 소규모 가설 건축물, 목재지붕구조를 가진 파고라(pergola) 등의 여러 부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파고라(pergola)는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그것의 원리나 기술, 재료 그리고 건설 과정 등이 이슈화 되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교차식 구조 디자인이 단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써가 아닌 하나의 주요 디자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글에서 다루어 질 곡면 격자 형태의 교차식 구조의 디자인 실험에는 하와이 대학교의 건축과 학생들과 인하대학교의 건축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4주간의 설계 수업 시간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작업과정과 모델 실험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격적인 디자인에 앞서서 우선 학생들에게 곡면 격자 형태의 교차식 구조의 형태인 바람개비 형태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두었다. 여기서는 가급적 기존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삼가했다. 이는 학생들이 사례로 본 기존 작품이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 그러한 디자인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또한 결과물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여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제공할 수 있는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물론

기존 작품들을 보면서 미적 질서를 발견하고 조형 의장을 배우는 것도 교육적일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본 디자인원리에 근거해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의 순수 창작적인 면을 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배제시켰다.

두 대학의 스튜디오에서는 전통적인 맞춤에 관한 방식이나 곧은 서까래 그리고 도리의 배열과 같은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는 간단한 형태의 부재와 홈 디자인,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에 관한 새로운 실험들이 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실험을 위해 학생들은 토론과 연구를 하면서 구조적인 원리를 습득했으며 토론에서 거론되었던 기본 디자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 결과물들을 이끌어 내었다.

프로젝트의 참가자 대부분이 건축학과 2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디자인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습득시켜야 있어야 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었다. 구조물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 중 구조재료에 대한 특성파악, 구조물의 자중 및 힘의 전달 방향,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능력과 처짐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구조전문가를 초청해 이에 대한 특강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구조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경험의 부족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조물의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계획 및 개념적 설계단계에서 학생들은 구조재료의 특성과 구조프레임에 관한 자신들의 선형적인 직관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해 나갔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곡면 격자 형태의 교차식 구조를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붕형태에 대한 조형미 및 적합성을 스튜디오 토론과정을 거치며 완성해 나갔다.

이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선형 목재부재의 기하학적인 결구 방식을 이용한 2차원적인 면과 3차원적 구조 형태를 이끌어내는 공간 구성방식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습득하고, 여러 구조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적 가능성들까지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형태의 추출과 그 형태를 이루는 체계 그리고 개념적인 공간의 생성과 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홈을 가진 부재의 사용과 그 결구 방식들을 통해 역동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되고, 여러 재료 및 조인트 디테일이 합쳐져서 얼마나 다양한 구조가 형성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림 1) 목공소에서 기본 부재를 만드는 학생들의 작업모습

학생들은 구조의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시키기 전에 단위부재들을 끼워 맞춰보고, 홈의 디자인을 생각하며 만들어 부재들을 다양하게 조합해 보면서 떠오르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심미안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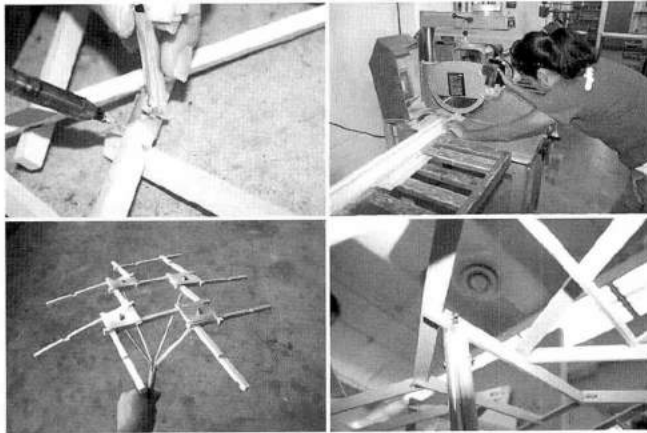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기본적인 부재의 두께와 길이, 그리고 굽기를 정하거나, 작업과정 중에 최적의 기본부재 및 단위구조를 찾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기본 단위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단위부재가 필요한데 여기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막대나 원형 장대와 같은 부재의 형태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튜디오의 과정 동안에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결구의 형태를 만들고, 조인트에 적합한 홈의 형태를 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접 목재를 조직해 보면서 그 시스템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재와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발전시키고 난 후, 그 다음 단계로 파여질 위치나,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홈을 정확히 만들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홈이 파여진 부재들을 맞춰 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3차원적 구조를 만들기 전, 삼차원적인 곡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2차원적인 평면 패턴과 단위 부재의 바람개비 형태 결구에 따른 다양한 뒤틀림이 만들어지는 방법들도 경험하게 된다.

디자인 실험을 위한 지붕구조 재료로는 베스우드(basswood) 막대 그리고 기둥은 베스우드 장대와 알루미늄 장대가 사용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면서 지붕과 기둥에 쓰일 여러 형태의 홈과 조인트들에 대한 테스트가 병행되었다.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전까지,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조합과 곡면을 발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하학적인 조합들을 실험해 보게 된다. 지붕의 패턴과 디자인에 따라 부재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부재의 홈을 파고 자르고 꺾는 일과 지붕과 기둥을 이루는 단위 부재들을 결합, 분해하는 과정이 수 차례 반복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디자인을 실험 중, 금속판을 이용하거나 볼트나 너트를 이용하여 지붕구조를 서로 연결시켜



(그림 2) 여러 실험과정 후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모델 작업과정

보기도 했다. 비록 구조 자체가 못이나 볼트와 같이 고정 시켜주는 도구들 없이도 가능한 것이었지만,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볼트(bolt)와 너트(nut)등의 보조재가 사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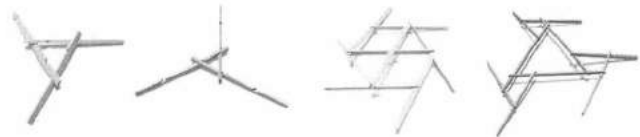
(그림 3) 두께가 얇은 목재와 용접한 알루미늄 기둥을 이용하여 실험한 지붕 구조물. 실험 과정에서 강철 판과 볼트(bolt) 그리고 너트(nut)를 테스트하여 보았다.

최종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재, 특히 베스우드(basswood)를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하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얇은 합판이나 판상형 목재를 직접 선반에서 켜 사용하기도 했다. 직선 부재를 사용하라는 조건을 깨는 경우도 있었는데 CNC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기본 단위부재를 만들거나 곡선형 틀을 만들어 여러 겹의 얇은 판 부재를 결 방향이 평행하게 접착시켜 부재를 만드는 학생도 있었다(그림 4). 직선형부재보다는 곡선형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단 그들의 선호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림 4) CNC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기본 단위부재를 만드는 모습과 여러 겹의 얇은 판 부재를 결 방향이 평행하게 접착시켜 부재를 만드는 모습

매 실험 때 마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하학적 패턴에 맞춰 기본적인 조인트들을 합치고 분해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 나갔다. 이를 통해 단위 구조의 특성에 따라 연속체로 치환된 전체구조물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한정된 시간을 통한 디자인 스튜디오 임을 고려해 작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90cm(약 3피트) 이내가 되도록 약간의 제약을 두었는데, 그 이상의 규모는 자제의 가공과 조립 시 과다한 경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시간 상에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수업이 시작된 지 4주 만에 학생들은 최종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결과물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주목 해 볼 만한 작품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4는 학생들의 지붕구조 최종작품 중, 기본 단위구조의 몇 예를 보여 준다. 자세히 보면 기본 부재, 홈 디자인이나 그들의 역할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반복된 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단위 구조의 결과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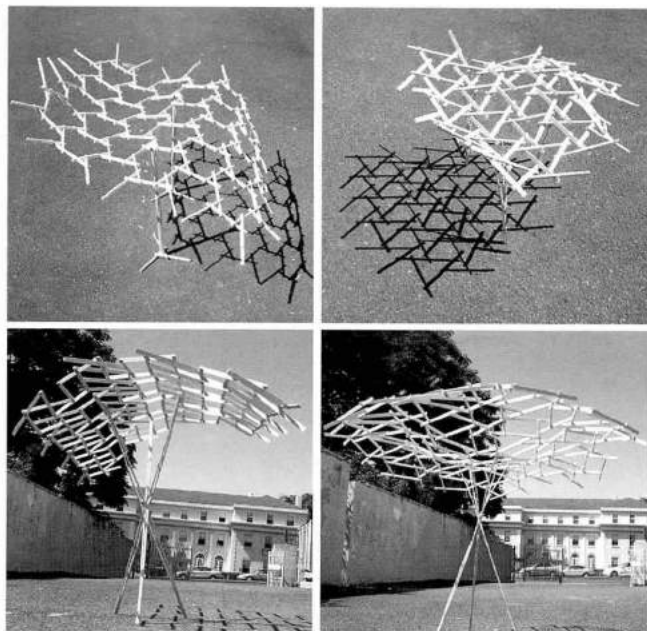
비록 학생들은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최종 구조물이 받게 될 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점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실험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은 구조 형태에 따른 힘이 작용하는 방향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조립된 지붕 구조물과 잘 어울리는 지지대, 즉 기둥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지지대는 지붕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인 강성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도 지붕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둥을 이루는 구조물들에는 나무 형태로 엮여져 있는 강철 파이프 구조나 나뭇가지구조 또는 여러 장대를 서로 뒤틀어 만들거나 휘어 만든 지지대 등이 디자인 되었다. 지붕과 기둥 사이에 있는 조인트들 간의 디테일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었다. 상부의 목 구조와 하부 지지대사이의 연결부위는 강철 소켓(socket)과 강철 판 등을 이용하여 지붕과 지지대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도록 디자인되기도 하였고 접합부가 용접되거나 볼트와 너트를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지붕 구조 하부기둥과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지점에서 결합되어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림 6) 좌 : 나뭇가지형태의 기둥 디자인의 예, 중 : 나뭇가지형태의 지지대를 케이블로 보강한 형태 우 : 상부 목 구조와 하부 지지대사이의 연결부위는 소켓(socket) 디테일

구조물이 세워진 후에, 지붕 즉 목 구조의 윗부분은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덮는 것이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는, 공간에 건축적인 역동성이나 고유성을 표현하기 위한 인테리어의 일환으로 목재를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붕을 덮는 데에는 이미 다른 구조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평한 패널이나 캔버스와 같은 일반적인 피복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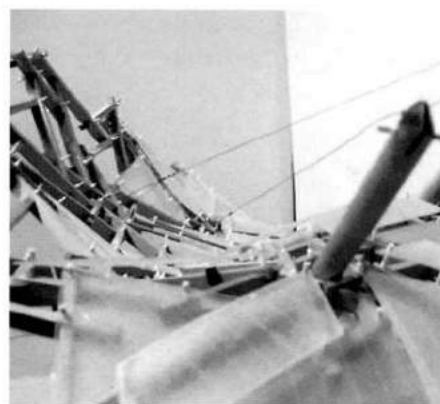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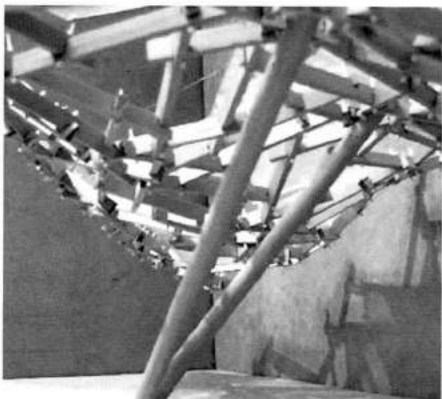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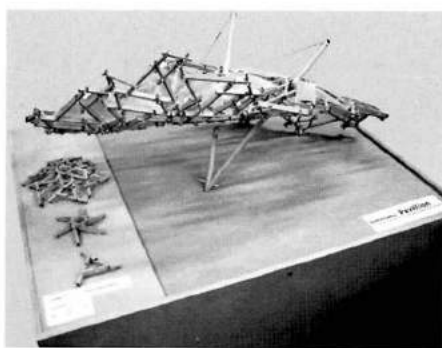
최근 목 구조 공모전(2006)에서 대상을 받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Sustainable Pavilion"이란 작품도 같은 원리를 응용한 작품이다. 규격 목재를 부재로 이용하여 목조 간이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으로, 목재의 재료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형적인 특성을 가진 규격 목재를 기하학적인 결구 방식을 통해 2차원적인 면과, 3차원적 형태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방식의 목조공간 구성방식"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건축구조의 결구 방식을 응용한 새로운 건축 공간형태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의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구조체의 주요부재 뿐 아



(그림 7) 여러 실험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최종 디자인 사례들

니라 2차적 부재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패턴을 형성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삼각형 형태의 선형 목재 결구 방식과 그것을 보조하는 육각형 형태의 결구 방식, 이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조합하여 몇 미터 혹은 수십 미터에 이르는 스패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결구 방식 또한 복잡한 디테일을 피하며 흠파기나 볼트-너트 조임 수준의 단순함을 추구하여 목재의 가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림 8)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Design Research and Innovation Lab(D-Lab)의
안형욱, 김영수, 김록영 학생의 2006년 목구조 공모전 대상 수상작

결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기본적인 부재들과 여러 형태의 흠, 그리고 이 부재들의 기하학적인 결구 방식을 통해 2차원적인 면과, 3차원적 형태를 이끌어내어 형성된 단위 구조들의 조합 방법, 디테일의 해결 등 전체 디자인에서 세세한 부분까지의 모든 조합을 위한 여러 문제에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종 모델을 만드는 동안에도, 학생들은 전에 실험하였던 모델들을 다시 살펴 보게 되었고, 이때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더욱더 정제된 디자인을 얻을 수 있었고, 최종 결과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이 담긴 구조형태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개념에 맞는 구조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건축디자인에 있어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재의 맞춤과 조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형태의 가능성들과 다양한 지붕 구조 형태의 효과적인 창조의 가능성을 충분히 일깨워 주었다. 일련의 학습 과정과 디자인의 실험적인 시도의 결과,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로 하여금 구조 디자인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들을 표출해 내고 개성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해결책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모델을 만들면서 특히 학생들이 주목했던 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나 프로세스가 실제 규모의 구조물을 건설할 때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여 학생들 사이에 실제 이러한 구조물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토론 중에, “각 부재의 충분한 강성에 대한 고려, 시공의 정확성도 확보, 또한 공업화를 통해 공장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목재 대신 현장에서 쉽게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강재프레임 부재 또한 좋은 재료가 될 것”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파빌리온(pavilion) 디자인이 완료된 후에, 학생들은 이번 디자인 과정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음 디자인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어떤 학생은 “새로운 지붕의 형태를 창조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지붕을 디자인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보여주기도 했다. 圖

전 한 중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by Jun, Han-jong

브랜드 아파트의 주동 입면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Consumers
on Facade Design of Brand Apartments**

서론

아파트도 브랜드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최근 아파트 건설업계에 브랜드 도입 경쟁이 치열하다. 최첨단, 현대화, 편리성이 내포된 디지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쾌적하고 편리한 고급 아파트가 선호되면서 건설사들도 차별화된 품격 브랜드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브랜드들과 자신을 효과적으로 차별화시키고 고객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브랜드아파트를 구성하는 차별화 건축 계획요소에 대한 체계적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아파트 외관 유형에 따른 거주자 선호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 브랜드 아파트의 마케팅전략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화 계획요소 중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면의 차별화에 대한 거주자들의 시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아파트의 초기설계단계에서 차별화된 아파트 입면 디자인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들을 파악한 후, 브랜드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아파트 입면의 계획 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하여 선정된 아파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4개의 브랜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아파트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 아파트 입면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로 한정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2004년 이후를 기준으로 최근 서울에 건설된 민간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브랜드 아파트 이미지에 따른 아파트 입면분석을 통해 거주자들이 외관 디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으로 자료 조사와 거주자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선정된 아파트의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질문 당 4개 아파트의 입면사진을 보여준 후, 4개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론적 배경

아파트 입면디자인의 요소

인지특성 분석에 따른 디자인 요소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단지의 시각 환경은 거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험해야 하는 물리적 실체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형태, 단순성 그리고 거주자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계획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써 인간의 인지 과정에 근거한 실증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인지특성 분석은 전문가와 거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시각 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각 인자로 분류된 변인들의 특성과 각 인자간의 관계를 참고로 하여 아파트 입면디자인에 관한 인지특성을 단지군집형상, 주거동형상, 단위주호형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및 거주자의 인지 분석 결과를 각 사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단지군집형상'은 단지의 배치형태, 녹지 및 외부공간, 주위 경치와의 조화, 건물간 인동간격, 건물의 높이와 길이, '주거동형상'은 건물 전체의 모양, 건물 출입 방식, 건물 출입구 모양, 지붕 모양, 건물 색채, 외장 재료, '단위주호형상'은 창문 크기, 개폐방식, 창문 모양, 발코니 형태 등의 건축계획요소로 분류되었다.¹⁾

시지각적 차원의 분석에 따른 디자인 요소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주거단위를 모듈로 하는 건물은 어느 한 주거단위의 발코니나 창형상이 개별적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발코니나 창형의 패턴과 같은 원형 요소들의 집합적인 패턴으로 지각된다. 따라서 발코니나 창형의 어느 한 형상만을 시지각 대상으로 할 수 없고 2차원적인 면에서 발코니나 창형의 형상들이 이루는 관계에 의해서 발

생하는 여러 성질들을 시지각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많은 형태 및 지각 연구자들, 건축 이론가들에 의해서 고층 아파트의 주 입면 디자인 요소와 그 차원이 설정되었는데, 크럼펜, 브로린, 크리어, 베이튼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고층 아파트의 주동 입면에서 지각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 및 그 지각차원을 그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매스 윤곽형상, 마감재료 및 세부적 요소, 입면의 패턴 및 형태, 색채로 구분할 수 있다.²⁾

AHP를 이용한 아파트 주동 입면 디자인 요소

AHP기법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동 입면 디자인에 있어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의 선호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고찰을 통해 아파트 주동 입면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계층구조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계층화단계에서 델파이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다음 <표1>과 같은 객관적인 최종 계층구조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³⁾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입면디자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1> 아파트 주동 입면디자인 요소

APT 주동 입면 디자인		
건물형태	색채 및 재료	세부요소
건물 전체의 모양	주도적 색채	발코니 형태
지붕모양	외관재료	창문 크기
벽면의 형상	지붕색채	건물 출입구 모양
옥탑 디자인	발코니 색채 및 재료	코어의 창문 형태

브랜드 아파트

국내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의 변화

58년 국내최초로 건설된 '종암아파트', 62년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던 '와우아파트'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명칭의 초기 스타일은 지역명을 붙였다. 몇 안 되는 아파트가 생소했던 그 시기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증가로 아파트 공급도 증가되고, 아파트가 단지화되면서 '현대', '삼성', '대우', 'LG' 등 기업명을 붙인 아파트가 등장했다. LG 수지아파트나 '삼성 보라매아파트' 등 회사명+지역명 형태의 이름들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명'과 '기업명'은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자리잡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 이정수, 심우갑, "고층 아파트 외관 디자인 인지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9 No. 3, 1993. 3, pp 13-24

2) 이광영, 김정재, "형태적 접근에 의한 고층아파트 외관의 선호 특색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 12 No. 6, 1996. pp 3-16

3) 전한중, 조현준, "AHP를 이용한 아파트 주동입면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 21 No. 7, 2005. 7, pp 49-56

즉, 아파트의 초기형태는 시장 환경변화 및 규제완화와 맞물려 “아파트의 브랜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봉착하게 되었다. 주택경기침체 및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회사이름에 의존한 기존아파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없었던 건설사들은 보다 새롭고 차별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컨셉아파트’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98년에 수도권에 확대 적용된 분양가 자율화 정책으로 각 회사는 고객욕구에 맞춘 다양한 컨셉아파트를 선보이게 되었고, 일반아파트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브랜드네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일브랜드의 전국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브랜드화’는 자연스럽게 급류를 타게 되었다.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과 같이 영문 합성표현을 활용하여 고급감이라는 속성을 부각시키거나 포스코 건설의 ‘the #’은 기호를 포함한 독특한 형태의 표현을 통해 주거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기도 한다. 주거기능으로서의 고객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지만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의 발달, 재택근무, 주5일 근무제 등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이 아파트 브랜드의 새로운 트렌드화를 불러 일으켰다.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GS건설의 ‘Xi’ 등의 사이버 아파트 브랜드들은 사이버나 e, 테크노와 같은 직접적인 키워드를 활용한바 있다. 한편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문명발전에 대한 역방향으로 인간 친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환경과 생태형 아파트는 다른 축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단지 내 높은 녹지율과 단지 내 야생 생태공원 개념을 도입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내장재의 천연 재료화 및 첨단 공기청정 시스템을 통해 인간 중심의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대한주택공사의 ‘그린빌’ 등이 그 사례로 환경에의 관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그린아파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인증과 같은 그린인증제,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환경, 생태적인 브랜드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 2>는 국내 아파트의 브랜드 현황을 나타낸다.

브랜드 아파트 이미지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은 기업이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 브랜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 브랜드가 의도하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계획, 실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잉 현상이 빚어지는 사회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상을 세분화하여 목표를 선별한 후 거기에 집중하는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브랜드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믹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 사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기억하게 하는 브랜드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브랜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품에 브랜드화 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이미지와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브랜드 속에는 제품속성 이외에도 고객에 대한 편익,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퍼스널

리티가 있다. 이러한 4가지 차원에서 경쟁적 차별요소를 찾은 다음 자사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포지셔닝 하는 것이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건설 분야의 아파트까지 확산되어 각 업체별로 기업브랜드와는 별도로 개별 브랜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화, 개성화 및 고급화를 지향하는 시대환경에 따라 창출한 새로운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내 아파트의 브랜드 현황

브랜드명	기업명	의 미
e-편한세상	대림산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생활과 문화와 교육이 편해지고 아파트단지와 단지를 연결하여 진정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뜻.
푸르지오 (PRUGIO)	대우건설	깨끗함, 심플함의 이미지인 ‘푸르다’와 공간을 상징하는 ‘GEO’가 결합된 브랜드로 사랑, 자연 그리고 환경이 하나 된 차원 높은 생활문화공간을 의미.
위브 (We've)	두산 산업개발	We Have 갖고 싶은 꿈 We Love 사랑과 행복 We Live 사는 기쁨 We Save 알뜰한 생활 We Solve 편리한 공간을 의미
래미안 (來美安)	삼성물산	來 - 미래의 최첨단 주거기술 美 - 과학적인 설계와 아름다움 安 -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
캐슬 (Castle)	롯데건설	중세 시대의 성주가 사는 성이란 의미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는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주거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에만 붙여지는 브랜드.
꿈에그린	한화건설	‘꿈에그리던’의 줄임말이면서 21세기 주거공간의 테마인 꿈과 자연의 합성으로서 인간중심의 아파트 철학과 환경친화적 자연주의 미학을 결합해 21세기 신주거 문화를 실현.
홈타운	현대건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기본 테마로 각종 편의 시스템을 갖추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담도록 계획한다는 의미.
아이파크 (I PARK)	현대 산업개발	I는 현대산업개발의 CI 연계 개념으로서 Innovation의 이니셜인 I를 상징화하여 기존의 아파트 개념을 혁신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의지를 표현. I와 PARK사이의 소비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나만의 생활공간임을 상징하여 표현. I-PARK의 PARK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임을 상징.
자이 (Xi)	GS건설	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능력과 세련된 이미지로 한발 앞선 사람들이 선택하는 첨단, 고급 아파트.
센트레빌 (Centreville)	동부건설	불어의 Centre(중심), Ville(도시), Century (백년)을 합성한 조합어. 고품격 아파트, 자연과 함께하는 아파트, 초고속 디지털 아파트를 건설하여 신개념 주거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최근 아파트 브랜드는 다음 <그림 1>처럼 각각의 컨셉에 맞추어 크게 4가지형으로 고급감, 첨단성, 자연친화, 편안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

4) 장미경, 정유경, “국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



(그림 1) 브랜드 아파트 이미지 포지셔닝

사례조사

조사개요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4개 브랜드 아파트를 선정한 후 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브랜드 컨셉을 분석하였다. 준공 및 입주현황을 파악하여 2004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이는 대치-센트레빌, 개포-자이, 당산-푸르지오, 방배-래미안이다. 아파트 입면 분석을 위하여 2005년 5월 4일간 각 아파트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입면 디자인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어 입면을 분석한 후,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2005년 8월 한 달간 각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은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가능한 크게 현상을 하였으며 파일로 정리하여 설문지와 함께 보여주고 설문내용과 어울리는 사진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총 80명의 성인남녀이며, 주간 시간대에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30대 주부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조사내용 및 방법

아파트 브랜드 선정

연구대상 중 분석을 위한 아파트 브랜드의 선정은 닥터 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2004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8,781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신뢰도, 시공능력, 차별화 등 5개 부문의 아파트 브랜드 파워를 조사한 결과 상위에 선정되었던 브랜드들을 참고하기로 한다. 조사 결과 선정된 브랜드

파워 아파트는 래미안, e-편한세상, 자이, I'PARK, 푸르지오, 휴타운, 롯데캐슬, 더샵, 하늘채 등이다.

또한 2004년 머니 투데이 선정 아파트 브랜드 수상업체인 푸르지오, 래미안, e-편한세상, 자이, I'PARK, 센트레빌 중 브랜드 분석을 통하여 브랜드 컨셉을 대표하는 4개의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브랜드 의미 및 이미지는 각 인터넷 사이트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고급스러움-동부 센트레빌, 첨단성-GS 자이, 자연친화-대우 푸르지오, 편안함-삼성 래미안등의 4개 브랜드 아파트를 조사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브랜드 이미지 평가를 위한 형용사

아파트 외관형태에서 보이는 감각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작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건축 형태 평가에 관련된 어휘들을 수집하였다.⁵⁾ 또한 최근의 신문광고, 전단지, TV광고,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아파트와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추출하였고, 각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형용사와 건축형태평가를 위한 어휘들 중 공통되는 어휘,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서 <표 3>으로 압축, 정리하였다.

<표 3> 입면 평가를 위한 디자인 구성개념 형용사

고급스러움	첨단성	자연친화	편안함
세련된 품위있는 멋있는 중후한	현대적인 독창적인 실용적인 참신한	깨끗한 건강한 쾌적한 산뜻한	편안한 아늑한 안전한 여유있는

설문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는 제시된 사진을 어떠한 이미지로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 당 4가지의 어휘를 구성하였다. 전문가와 전공교수의 상의를 통하여 각각의 어휘들 중 8가지의 평가항목에 적합한 형용사를 추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는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이미지와 유사한 형용사에 사진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구성요인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문항의 내용 구성표

평가항목	구 성 요 인			
건물전체모양	1. 품위있는	2. 현대적인	3. 깨끗한	4. 편안한
발코니 형태	1. 세련된	2. 실용적인	3. 쾌적한	4. 안전한
주도적 색채	1. 중후한	2. 독창적인	3. 산뜻한	4. 편안한
벽면의 형상	1. 멋있는	2. 참신한	3. 깨끗한	4. 편안한
외관재료	1. 품위있는	2. 현대적인	3. 산뜻한	4. 아늑한
출입구모양	1. 멋있는	2. 독창적인	3. 깨끗한	4. 여유있는
옥탑 디자인	1. 멋있는	2. 현대적인	3. 쾌적한	4. 아늑한
창크기및모양	1. 세련된	2. 실용적인	3. 쾌적한	4. 여유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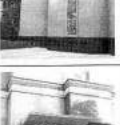
5) 이현수, 윤형건, 김승현, "신문광고 사례를 통해서 본 아파트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5 No. 2, 2004, Summer, pp 67-93

조사대상 아파트의 입면 디자인 특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개의 아파트 사진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전체적 입면이 타워형으로 뒀을 알 수 있었다. 난간이 없는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를 안으로 구성하였으며, 고층화를 바탕으로 커튼월 방식에 두꺼운 창틀, 그리고 작은 크기의 여닫이 및 창호를 계획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재료의 고급화로 콘크리트 벽체위에 페인트 칠 마감을 하고 저층부를 중심으로 대리석과 치장돌 등이 입면에 사용되었다. 또한 출입구의 문을 아트월로 디자인 하거나 문을 제거하기도 하고 필로티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입구를 디자인하였다. 상층부에서도 역시 다양한 입면이 디자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박공형 옥탑디자인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옥상부분을 디자인하거나 옥탑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벽면의 중간에 부분적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창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5> 조사대상 아파트의 입면 디자인

	대치센트레빌	개포 자이	당산푸르지오	방배 래미안
건물 전체모양				
발코니 형태				
주도적 색채				
주조색	White	Light Brown	각동마다	Brown 명도 변화
강조색	Green	Dark Brown	다양한 색채	
벽면의 형상				
외관재료				
출입구 모양				
옥탑 디자인				
창크기 및 모양				

사례분석

설문조사 결과

아래 <표 6>은 설문지 결과의 통계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부 센트레빌은 발코니 형태와 창크기 및 모양의 2개 항목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건물 전체 모양과 외관재료, 옥탑 디자인의 3개 항목에서 첨단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며, 주도적 색채, 벽면의 형상, 출입구 모양의 3개 항목에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편안한 디자인으로 선호되는 입면 디자인 요소는 없었다. GS 자이는 주도적 색채 항목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며 발코니 형태와 창크기 및 모양의 2개 항목에서 첨단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건물 전체 모양과 외관재료의 2개 항목에서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며, 벽면의 형상, 출입구 모양, 옥탑 디자인의 3개 항목에서 편안한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대우 푸르지오는 벽면의 형상과 출입구 모양의 2개 항목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호되었고 주도적 색채 항목에서 첨단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또한 발코니 형태와 옥탑 디자인의 2개 항목에서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며, 건물 전체 모양과 외관재료, 창크기 및 모양의 3개 항목에서 편안한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삼성 래미안은 건물 전체 모양과 외관재료, 옥탑 디자인의 3개 항목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또한 벽면의 형상과 출입구 모양의 2개 항목에서 첨단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며 창크기 및 모양에서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발코니 형태와 주도적 색채의 2개 항목에서 편안한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발코니 형태의 평가항목에서 4개의 아파트 모두 각 건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옥탑디자인 항목에서는 센트레빌과 래미안은 자연친화와 편안함에 대하여 또 자이와 푸르지오는 고급스러움과 첨단성에 대하여 0%의 결과가 나왔다.

<표 6>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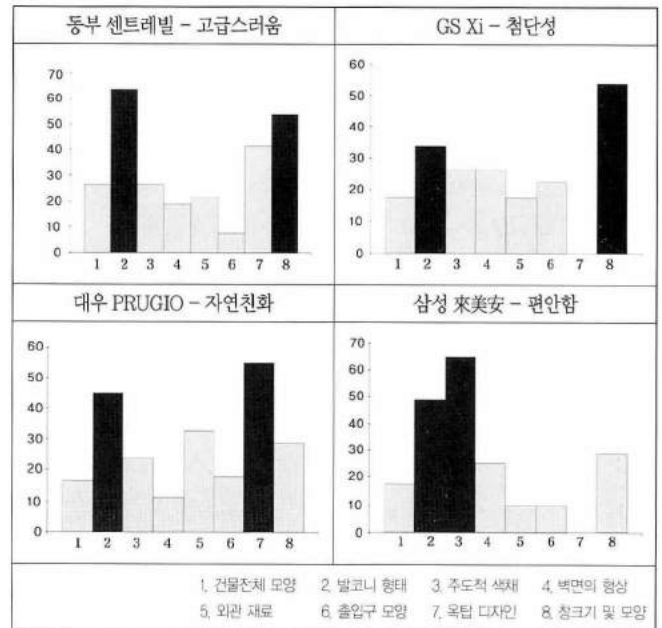
건물 전체 모양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21 / 26.3	22 / 27.5	10 / 12.5	27 / 33.8
첨단성	39 / 48.8	14 / 17.5	2 / 2.5	25 / 31.3
자연친화	18 / 22.5	35 / 43.8	13 / 16.3	14 / 17.5
편안함	2 / 2.5	9 / 11.3	55 / 68.8	14 / 17.5
발코니 형태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51 / 63.8	22 / 27.5	2 / 2.5	5 / 6.3
첨단성	22 / 27.5	27 / 33.8	13 / 16.3	18 / 22.5
자연친화	2 / 2.5	24 / 30.0	36 / 45.0	18 / 22.5
편안함	5 / 6.3	7 / 8.8	29 / 36.3	39 / 48.8
주도적 색채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21 / 26.3	37 / 46.3	15 / 18.8	7 / 8.8
첨단성	7 / 8.8	23 / 28.8	38 / 47.5	12 / 15.0
자연친화	44 / 55.0	8 / 10.0	19 / 23.8	9 / 11.3
편안함	10 / 12.5	12 / 15.0	8 / 10.0	52 / 65.0

벽면의 형상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15 / 18.8	12 / 15.0	37 / 46.3	16 / 20.0
첨단성	4 / 5.0	21 / 26.3	23 / 28.8	32 / 40.0
자연친화	44 / 55.0	15 / 18.8	9 / 11.3	12 / 15.0
편안함	17 / 21.3	32 / 40.0	11 / 13.8	20 / 25.0
외관재료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17 / 21.3	15 / 18.8	10 / 12.5	38 / 47.5
첨단성	31 / 38.8	14 / 17.5	9 / 11.3	26 / 32.5
자연친화	18 / 22.5	30 / 37.5	26 / 32.5	6 / 7.5
편안함	14 / 17.5	21 / 26.3	35 / 43.8	8 / 10.0
출입구 모양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6 / 7.5	18 / 22.5	30 / 37.5	26 / 32.5
첨단성	9 / 11.3	18 / 22.5	23 / 28.8	30 / 37.5
자연친화	38 / 47.5	13 / 16.3	14 / 17.5	15 / 18.8
편안함	27 / 33.8	31 / 38.8	13 / 16.3	8 / 10.0
옥탑 디자인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33 / 41.3	0 / 0.0	0 / 0.0	47 / 58.8
첨단성	47 / 58.8	0 / 0.0	0 / 0.0	33 / 41.3
자연친화	0 / 0.0	36 / 45.0	44 / 55.0	0 / 0.0
편안함	0 / 0.0	44 / 55.0	36 / 45.0	0 / 0.0
창크기 및 모양				
구분	센트레빌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고급스러움	43 / 53.8	10 / 12.5	0 / 0.0	25 / 31.3
첨단성	14 / 17.5	43 / 53.8	19 / 23.8	4 / 5.0
자연친화	16 / 20.0	13 / 16.3	23 / 28.8	28 / 35.0
편안함	5 / 6.3	14 / 17.5	38 / 47.5	23 / 28.8

브랜드아파트 컨셉과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입면디자인 이미지간의 비교 분석

건설회사의 브랜드 컨셉과 소비자가 판단하는 아파트 외관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 발코니 형태와 창 크기 및 모양의 항목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나 나머지 6개의 항목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GS 자이 역시 발코니 형태와 창크기 및 모양에서는 첨단적,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발코니 형태와 옥탑디자인에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고, 삼성 래미안은 발코니 형태와 주도적 색채항목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이처럼 각 건설회사의 브랜드 기획의도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외관 이미지와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각 4개의 아파트의 브랜드 컨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정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브랜드 컨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결과



각 컨셉별 소비자 선호 입면 디자인

고급스러운 입면의 경우 전면 유리의 커튼월형 발코니와 저층부를 대리석으로 마감한 디자인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탑대신 철제 구조물등으로 상층부를 디자인한 지붕이 선호되었다. 현대적인 입면으로는 타워형 건물과 출입구 대신 아트월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저층부, 각동마다 다양한 색채구성을 한 입면이 선호되었다. 옥탑을 제거하고 브랜드 마크 등을 이용하여 장식한 지붕 디자인 역시 현대적인 입면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또한 출입구 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필로티를 이용해 큰 입구를 형성한 입면과 전체적으로 하얀 색채를 사용한 입면이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편안한 입면으로는 동일한 색채에 명도의 변화만으로 외관 색채를 구성한 디자인과 출입구에 경사로를 두고 화단을 구성한 디자인이 선호되었다. 박공형 옥탑 디자인, 일자형 발코니등도 편안한 입면으로 선호되었다. 4가지 브랜드 컨셉에 대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입면 디자인은 다음 <표 8>과 같다.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내 브랜드 아파트를 크게 4가지 이미지 포지셔닝으로 정리하여 브랜드 차별화 계획요소 중 입면 디자인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디자인 컨셉별 8가지 입면형태를 알아보았다. 연구수행결과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4개의 브랜드 아파트 이미지 컨셉을 살펴보면 동부 센트레빌은 고급스러움, GS 자이는 첨단성, 대우 푸르지오는 자연친화, 삼성 래미안은 편안함이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입면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4개의 브랜드 아파트는 총 8가지 입면

디자인 요소 중 각각 2개의 항목에서만 브랜드 컨셉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각기 상이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확립을 위하여 기업에서의 브랜드 전략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정확한 브랜드 포지셔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둘째, 4가지 브랜드 포지셔닝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입면 디자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고급스러운 입면의 경우 전면 유리의 커튼월형 발코니와 저층부를 대리석으로 마감한 디자인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적인 입면으로는 타워형 건물과 옥탑을 제거하고 브랜드 마크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지붕 디자인이 선호되었으며, 출입구 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필로티를 이용해 큰 입

구를 형성한 입면이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선호되었다. 편안한 입면으로는 동일한 색채에 명도의 변화만으로 외관 색채를 구성한 디자인과 출입구에 경사로를 두고 화단을 구성한 디자인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는 아파트 브랜드 입면 계획 시 기초 연구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 차별화 건축계획요소의 수렴을 위해서 보다 전문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저자가 한축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에 2006년 6월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아파트 설계에 관여하는 많은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표 8〉 각 컨셉에 대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입면디자인

	고급스러움	첨단성	자연친화	편안함
건물 전체 모양	 레미안	 센트레빌	 자 이	 푸르지오
	타워형	주위경관과 조화(타워형)	층마다 장식적인 요소 추가	각 동마다 다양한 색 구성
	향의변화를 통한 입면 구성	매스 3면이 유리	색채 변화	
발코니 형태	 센트레빌	 자 이	 푸르지오	 레미안
	난간 제거	난간 제거	일자형 발코니	일자형 발코니
	둥근형 발코니 / 여닫이 창문	창문디자인 변화	금속류 봉 난간	난간 / 장식적 요소 추가
주도적 색채	 자 이	 푸르지오	 센트레빌	 레미안
	주조색 : Light Brown	각 동마다 다양한 색채 구성	주조색 : White	동일한 색상 / 명도 변화
	강조색 : Dark Brown		강조색 : Green	
벽면의 형상	 푸르지오	 레미안	 센트레빌	 자 이
	조적 사용	요철이 있는 벽면	창문의 증가로 깨끗한 입면 구성	다양한 요철 디자인
	아치형 필로티	벽면 중간에 장식적 요소 추가		브랜드마크를 이용하여 디자인

	고급스러움	첨단성	자연친화	편안함
외관재료	 레미안	 센트레빌	 자 이	 푸르지오
	페인트칠 마감 / 대리석사용	페인트칠 마감 / 대리석사용	페인트칠 마감	저층부 조적마감
	저층부와 상층부의 재료변화	저층부와 상층부의 재료변화	저층부 대리석	
출입구 모양	 푸르지오	 레미안	 센트레빌	 자 이
	돌출된 입구	대리석사용 / 문대신 아트월사용	필로티 사용	문제거 / 큰 입구 형성
	박공지붕 형태 디자인	지붕모양의 돌출된 구조물	문제거 / 큰 입구 형성	경사로 / 화단구성
옥탑 디자인	 레미안	 센트레빌	 푸르지오	 자 이
	옥탑 위 긴 철재 구조물	옥탑 제거	평단형 지붕	평단형 지붕
		브랜드마크를 이용한 구조물	박공형 옥탑	박공형 옥탑
창크기 및 모양	 센트레빌	 자 이	 레미안	 푸르지오
	창문의 비율 증가 / 커튼월	창문의 비율 증가	창문의 비율 증가	창문의 비율 증가
	작은 여닫이 창문	작은 여닫이 창문	수직연창	수직연창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5회 이사회

2007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건축사회 회칙(안) 승인의 건이,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회 회칙(안) 승인의 건
 - 해당건축사회와 충분히 협의·보완하여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회의 의견을 보완토록 하고, 법 개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건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되, 관련 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더 검토·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용역 시행방안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위원회 회의

■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 각 위원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건
 - 각 위원이 자료검토를 한 후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회의는 한달에 한번으로 정례화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기로 함.

■ 제1회 정보위원회

제1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정보위원회” 추진방향에 관한 건,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정보위원회” 추진방향에 관한 건
 - 2007년도 정보위원회 주요사업을 “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Homepage 개선 및 양질의 Contents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2호 :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건

- 방향

▷회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회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일반인에게 Ope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뿐만 아니라 건축사보, 건설기술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협회의 공공성을 높인다.

- 내용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를 회원에게 신속하고 균등하게 제공

· 정보의 DataBase화

· 현안 문제 등의 정보(추진 상황 및 내용) 제공

· 회원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통합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4개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대한 장·단점 검토

· 16개 시·건축사회 전산담당 직원과의 연석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

• 제3호 : 기타사항

- 건축사 설계시험 CAD시험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진척사항을 정보전산팀에서 파악

- "AUTO CAD USER GROUP" 결성과 관련해 S/W 단속 및 Upgrade에 대한 회원 권익 보호 검토

- S/W공동구매 검토

- 2007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위원 2~3명을 추가 위촉

- S/W공동구매 검토

■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

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연구용역을 내부 또는 외부의 문제는 차후 연구내용 및 범위를 토대로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함.

- 외부용역의 경우에는 정부산하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과업지시서의 용역내용 및 범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축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도개선방안의 효율성 및 협조, 협력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가 추천한 조사검사업무에 관여하였거나 많이 알고 있는 담당자(건축사)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건의하기로 함.

▷간담회 : 2007년 6월 13일(수) 14시 [장소 : 협회 회의실]

• 제2호 : 기타 사항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건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에 관한 건, 한국건축문화대상 개최에 관한 건, 국토개발홍보관 유치(안)에 관한 건, 마케팅 전략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에 관한 건

- 전시참가 확정. 참가비용 및 진행은 서울시건축사회와 협의

- 세부 전시일정은 "건축문화대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문화대상 개최에 관한 건

- 제7회 집행위원회회의록 보고사항과

변동이 없으므로 "건축문화대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 국토개발홍보관 유치(안)에 관한 건

- 교류협력위원회(07. 6. 7 개최)와 협의하여 지자체 홍보예정

- 권역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나누어서 지역건축사회를 직접 방문(3인 1조 활동)하여 홍보하고, 본협회에서 일정관리 및 비용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 제4호 : 마케팅 전략에 관한 건

- 동문화 등의 사적인 루트를 통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필요함.

- 홍보물 및 뉴스레터 제공 등 지속적으로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 본협회 전시사업팀 및 코엑스 전시장에서 진행 중.

-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홍보

- 대외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업체를 확인 요청

- 위원별 활동사항을 본협회 전시사업팀과 공유하여 협조 받도록 함.

- "협회 후원명칭 사용"은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필히 진행되도록 본협회 총무팀에 공지 요청

■ 제5회 기획위원회

제5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정책기획 추진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협회 재정자립에 관한 건, 협회 제규정 정비에 관한 건, 대외협의회 설치에 관한 건, "(가칭)남북건축문화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협회 재정자립에 관한 건

- 협회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사업에 대하여 수익적관점에서의 연구 검토

토와 추진방안 마련을 재경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함. 아울러, '협회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은 계속 협의사항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제2호: 협회 제규정 정비에 관한 건
 - 검토를 유보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대외협의회 설치에 관한 건
 - 관계기관 및 대학, 민간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외협의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설치·운영할 협의회와 그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협의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함.
- 제4호: "(가칭)남북건축문화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건
 - 회장이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우선 협의하고, 당해사업이 실현가능할 경우 실무협의를 위한 '(가칭)남북건축문화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기로 함.
 - '남북건축사 상호교류'와 '문화유적 답사 및 공동발굴', '세미나', 미래를 대비한 '건축기준의 통일' 등을 위해 시급히 남북건축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함.

▲기타사항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개선 제안서'에 관한 사항
- 2007년도 위원회별 회의 및 업무추진 현황 관련

■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공제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2007년도 공제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 공제사업 시행 준비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 승인을 받는 것을 금년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실무작업을 추진기로 하되, 빠른 시일안에 공제사업 전담직원의 채용을 건의함.

■ 제2회 홍보편찬위원회

제2회 홍보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본 협회 홍보정책(전략) 및 방향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2007년도 본 협회 홍보정책(전략) 및 방향에 관한 건
 - 김규성(홍보편찬위원장), 김지호·백승기·왕한성·최광수(이상 홍보편찬위원) 건축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협회 홍보정책(전략) 계획을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 제1회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제전 조직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제전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건축사회 요청사항에 관한 건, 실무작업반 구성 및 예산집행 방안에 관한 건, 행사 기본계획 확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서울건축사회 요청사항에 관한 건
 - 서울건축사회에서 요청한 서울사랑시민상의 전시장소는 가능한 수용하기로 하되, 예산부분은 다른 건축사회와의 형평성 등으로 지원이 불가하므로 자체

적으로 조달하도록 함.

- 시상식 일정 등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함.
- 제2호: 실무작업반 구성 및 예산집행 방안에 관한 건
 - 행사의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 중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위원선임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결정하도록 위임함.
 - 예산집행 방안 등은 소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하도록 함.
- 제3호: 행사 기본계획 확정에 관한 건
 - 행사의 명칭은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으로 하고,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건축사회 회칙(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시·도건축사회 회칙(안)에 관한 건
 - 제5회 이사회(07.5.15) 회의결과에 따라 인천, 제주건축사회의 회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바,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회장의 의견을 수용하되, 정부위탁업무(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를 회칙화 하는 것에는 위원회와 이견이 있어 추후 이사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함.
 - 오늘 다루지 못한 부산, 대구건축사회 회칙(안)은 6월 7일에 제3회 법제소위원회(규정)를 개최하여 표준회칙(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시·도회칙 논의시 해당 시·도회장이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본협회 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 제2호: 기타사항
 - 오늘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표준회칙(안) 제정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건축사회에 재차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제1회 교육·시험위원회

제1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안)에 관한 건, 『건축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안)에 관한 건
 - 연수교육에 대한 요약 설명, 연수교육 시기, 연수교육 방법, 연수교육 내용
- 제2호 : 『건축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건
 -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요약 설명, 『건축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의견

▲기타사항

- 위원들은 연수교육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작성하고, 각 건축사회에서 연수교육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5회 여성위원회

제5회 여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결과 정리 및 평가가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결과정리 및 평가
 - 토론회에서 발제내용 취합 및 책자제작 : 신경선 위원
 - 2008년도 여성건축사대회 장소에 관하여 인천으로 결정하였으나 2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개최기로 2005년 총회에서 결정된바 있기에 후후에 다시 논의하기로함.

- 임원 선임건 : 부회장(황정복)

■ 제1회 구조안전확인 관련 특별위원회

제1회 구조안전확인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조안전확인 지침 시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구조안전확인 지침 시행에 관한 건
 - 경력인정 범위 등에 관한 추천기준(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에게 검토받아서 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기준에 맞춰 심사하는 것이 필요함.
 - 7월1일 추천이후에도 분기(월별)마다 추천하는 방안 검토

■ 제9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9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5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개발홍보관 유치(안)에 관한 건, 마케팅 전략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국토개발홍보관 유치(안)에 관한 건
 - 지자체 방문 리스트-업, 지자체 정보수집 및 스케줄 조정, 이철호 조직위원장 수행, 지자체 브리핑 자료, 지자체 방문
- 제2호 : 마케팅 전략에 관한 건
 - 진행중인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위원별 활동사항 및 진행계획을 공개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를 요청.

■ 제6회 기획위원회

제6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7일 오전 7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

의에서는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요구' 대처에 관한 건,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대처에 관한 건,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개선방안에 관한 건, 국제건축통신헌원 제도 운영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요구' 대처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가 발주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 관련 연구(중간)보고서를 각 위원들이 검토하고, 그 대처방안 등 의견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07. 6. 13. (수) 07:00]시 집중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대처에 관한 건
 - 건축계 단합을 위해 본부(협회회장) 차원에서는 건축단체 통합노력에 주력하고,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대처에 관하여는 시도건축사회장 회의를 통해 시도회장이 적극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기로 함.
 - ▷아울러, 이러한 취지문을 회장 서신('회원에게 드리는 글')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안을 이재립 위원이 마련하여 차기 회의시 제출토록 함. 아울러, 기본방안 마련시 설치할 전문위원회의 용어(명칭)와 소요예산, 위원 구성방안 및 운영시스템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제4호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개선방안에 관한 건
 - '건축문화신문' 과 '건축사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기로 함.
- 제5호 : 국제건축통신헌원 제도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정보를 회원에게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국제건축통신헌원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제도 운영방안을 민규암위원이 차기 회의시까지 마련하여 제출토록 함.

▲기타사항

- 200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협회가 추진할 정책과제나 사업 등을 발굴 제안하도록 협조요청 함.

■ 제2회 교류협력위원회

제2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7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4대목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소위원회 결성 및 추가 위원 확보에 관한 건, 건축문화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건, 차기 회의 장소에 관한 건, 전국건축사등산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4대목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젊은 건축사 인큐베이팅, Cyber 정보 활동 강화, 회원교류증진(대내), 봉사활동 활성화(대외)
- 제2호 : 소위원회 결성 및 추가 위원 확보에 관한 건
 - 교류협력위원회의 4대 주요업무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함.

소위원회	소위원장
젊은 건축사인 큐베이팅	김지한 부위원장
Cyber 정보화활동강화	윤종환 위원
회원교류증진(대내)	장일환위원
봉사활동 활성화(대외)	최원석 위원

- 제3호 : 건축문화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건
 - 건축문화 활동은 협회에서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해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지원에 대한 명분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집행하기로 함.
- 제4호 : 차기 회의 장소에 관한 건
 - 차기 회의 장소 및 일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워크샵형식으로 진행기로 함.

▷장소 : 대구건축사회(최용운 위원)

▷일자 : 2007. 7. 6(金) ~ 7. 7(土)

1박2일

▷시간 : 14:00(예정)

- 제5호 : 전국건축사등산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
 - 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행사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지역행사 또는 개별 동호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함.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A와의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건,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한중일 건축사협회의 개최에 관한 건, UIA PPC 회의 개최에 관한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각국 건축사 등록기준 및 법령 수집·번역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AIA와의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건
 - 한국건축가협회(KIA) - 미국건축사협회(AIA)간 체결된 최초 교류협정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설립되면 교류협정 당사자를 한국건축단체연합(FIKA)과 미국건축사협회(AIA)로 전환기로 되어 있는 바,
 - 한국건축가협회(KIA)에 공문을 발송하여 최근에 재협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 공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협회와 미국건축사협회(AIA)간의 교류협정 방향과 목적에 관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 우리 대표단이 방문가능한 적절한 시기를 몽골건축사협회에 문의하고 추후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오근석 위원이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한중일 건축사협회의 개최에 관한 건

- 제11회 한중일건축사협회의 개최기간은 중국, 일본 측과 사전 협의하여 합의된 대로 '07. 11. 12(월) ~ 15(목)로 하고, 중국과 일본 측에 통보하기로 함. 다만, 회의주제 등에 관해서는 이성란 위원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UIA PPC 회의 개최에 관한 건
 - 2007년도 UIA PPC 회의 개최계획(안)에 따라 진행하되 심재호 이사와 이영수 전문위원이 준비사항을 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2008년 아시아건축사대회의 기본방향 및 조직 구성(안)에 대한 국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부산건축사회의 의견을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각국 건축사 등록기준 및 법령 수집·번역에 관한 건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4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제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함.

▲기타사항

- 각 위원은 한·미 FTA 협정문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취합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국제위원회 활동내용과 회의결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부에「국제위원회 회의실」마련을 요청함.(모든 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

■ 제1회 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

제1회 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 회의가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위원회별 추진사업에 관한 건
 - 위원회별 추진사업 및 계획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 위원장 합동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함.

■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질의회신집)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질의회신집) 회의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작성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작성에 관한 건
 - 「2006년도 건축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이 있는 서초건축사회를 통해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 사항
 - 1차로 번역한 일본건축법(일본어→한글)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4회 법제위원회 협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간담회

시·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간담회가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실태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실태에 관한 건
 -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제도에 대하여 시도건축사회의 실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문서로 6월30일까지 제출받아 정리하기로 함.

■ 제4회 법제위원회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유지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건, 현장조사검사업무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건,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사업에 관한 건, 일본건축법 번역에 관한 건,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정리 및 주택감리대가에 관한 건, 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건의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유지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건
 - 연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 및 담당이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현장조사검사업무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건
 - 연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검토받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다만,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외기관에 발주하고 공동연구원으로 법제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사업에 관한 건
 -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발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정리하기로 함.
- 제4호 : 일본건축법 번역에 관한 건
 - 자동번역프로그램으로 1차로 번역된 일본건축법을 윤상조위원에게 감수 의뢰하고, 그 비용(실비정산)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5호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정리 및 주택감리대가에 관한 건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소위원 : 조충기, 윤상조, 오동욱, 유종희

▷소위원회 회의 : 6월16일(토) 11시

- 제6호 : 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
 -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검토받은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에 의견을 공문으로 수렴하여 회신을 반드시 받기로 함.
 - 회원전용게시판을 통해서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기로 함.
- 제7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건의에 관한 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건축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건의안에 대한 기안문을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검토받은 후 제출하기로 함.
- 제8호 : 기타 사항
 - 감정업무에 대하여
 - ▷감정업무를 우리협회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교육)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조충기, 오동욱, 유종희, 김상호)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상사중재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정리하기로 함.

■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가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처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처방안에 관한 건
 -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수임하여 성공률이 높은 법무법인)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비대위 조직은 NGO단체, 경실련, 회담제작소, 주부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
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 (주택건설공사감리)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주택건설공
사감리) 회의가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는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개정(안)
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
준 개정(안)에 관한 건
- 기존의 건축법 감리업무(300세대이
하, 20세대 이상)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은 추후 감리비용의 상승(업무수행
에 따른)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에
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겨 주게 될 것
이며, 사실상 건축사무소는 차단하
게 되어 이는 규모에 비하여 너무 과
다한 감리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
에 역행하는 사안임으로 재조정 되어
야 하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 사항
- '07. 6. 19일 건교부에서 주최하는 주
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관련
회의에 조충기 위원장 및 오동욱 위원
이 참여하기로 함.

우리협회 한명수 회장, FIKA 대표회장 취임



FIKA 취임식 전경



한명수 FIKA 대표회장

우리협회 한명수 회장이 지난 5월 22일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 이·취임식
을 갖고 대표회장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우리협회와 대한건
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 3단체 대표
와 임원 등 1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명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미FTA 협상과 건
축사법 개정 등 내외적인 위기와 변화속에서
도 건축계 내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건축계 전반의 재
도개선과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통한 건축
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후진들이 창작활동
을 펼칠 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3단체가 국
제 흐름에 대응하고 건축사제도 등 국내문제
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설립됐으며, 대표회장의 임기는 1
년이다.

한·중·일 건축사협회 친선 축구대회 성료

‘한·중·일 건축사협회 친선 축구대회
(AA-cup)’가 지난 5월 27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어 한국과 중국이 공동 우승하는 의미
있는 결과 남기며 성료 되었다.

이번 대회에 우리협회에서는 이철호 전
회장을 비롯한 45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최
국인 중국은 80여명, 일본에서는 62명이 참



한·중·일 축구대회

석하여 나라별로 3개팀씩 조를 나눠 진행되
었다.

특히 우리협회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구성된 A팀과 B팀이
4강에 올라 월드컵 개최국 건축사의 축구 실
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AA-cup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며
건축사들이 축구를 통해 건강한 모임과 친목
을 도모하고, 아울러 삼국 건축의 이해를 위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ECADI건축회사
에서 설계한 철도역사(터미널) Shanghai
South Railway Station과 푸둥공항 증축,
Second Phase, Pudong Airport
Extention Plan의 작품을 설명하였고, 이
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우리 협회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제1회 대
회는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3회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7여성건축사대회 '이재림 회원, 신임 회장으로 선출'

제13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5월 18,
19일 1박2일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개



제13차 전국 여성건축사 대회



전국 건축사 한마음 체육대회

최됐다.

이번 대회는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우리협회 소속의 전국 여성건축사들은 물론 한명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강원도, 강원도의회, 속초시, 속초시의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 첫날 열린 여성건축사총회에서는 이재림 현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매년 시행하는 사회시설지원금을 금강생활공동체(시설장 조미자)에게 전달됐다.

또한 '여성건축사의 참여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강미현(전북), 강순희(경북), 장현숙(서울), 유병숙(충남) 건축사의 주제 발표와 함께 여성건축사들의 참여확대와 제도적 지원에 관한 각 시도회원들의 염면 토론의 장도 마련됐으며, 정재국 관동대 교수의 안내로 오죽헌, 선교장을 비롯해 민통선 내 제진역사 등 고건축 및 현대건축물도 답사도 진행됐다. <관련내용 72쪽 참조>

전라북도건축사회 '2007전북건축사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9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07전북건축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 240명 중 164명이 참석

하는 큰 호응 속에 개최되어 '건축사 회원 간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 전북 건축사!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땀과 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건축사'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되새기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단결하여 전북건축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경기 종목은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 400m계주, 레크리에이션 경기인 제기차기, 줄씨름, 퀴즈풀이 등이 개최되었으며, 전주에서 I 팀 · II 팀, 익산연합팀(남원 · 김제 · 부안 포함), 군산연합팀(정읍 · 고창 · 진안 포함)이 경합한 결과 종합우승은 전주 II 팀이, 준우승은 전주 I 팀이 차지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6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6-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광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666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광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3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6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6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3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6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6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8-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6-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6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위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6587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류춘수 회원 'IOC / IAKS Award' 동상 수상



서울월드컵경기장

훌륭한 스포츠 레저 건축물에게 수여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건축상인 'IOC/IAKS Award'에서 본 협회 부회장인 류춘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회원이 설계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훌륭한 스포츠·레저 건축물(Exemplary sports and leisure facilities)'로 선정되어 동상을 수상한다.

'IOC/IAKS Award'는 인간의 행복,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한 스포츠·레저 건축물을 주제로 1987년 이래 2년마다 한 번씩 완공된 지 일 년 이상 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훌륭한 스포츠·레저 건축물을 선정하여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은 IOC(국제올림픽 위원회)와 IPC(국제 장애인 올림픽) 그리고 IAKS(국제 스포츠·레저 건축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s and Leisure Facilities)로 구성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31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스포츠·레저 국제 트레이드 페어와 함께 열리는 IAKS 총회 때 전시된다.

중국 탕산 지진 추모공원 건축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국건축학회가 탕산 지진 추모공원을 주제로 건축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건축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접수를 받는다.

- 공모일정
 - 참가신청 문의 마감: 2007. 7. 10
 - 참가접수 마감: 2007. 7. 23
 - 심사위원단 회의: 2007. 8월 중
 - 결과발표: 2007. 8월말
- 총 상금: 5만 6천달러
- 문의: + 86-315-2605166,
www.tsghj.gov.cn

2007 서울대 건축학과 Summer Masterclass

서울대 건축학과가 매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명한 외국건축사를 초청해 개최하는 Masterclass Workshop이 6월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 건축학과 39동 B1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quilibrium-Enclosed City, Seoul'을 주제로 환경과 기술이 건축 속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세계적인 설계그룹 포스터 앤 파트너즈(Foster+Partners)의 디자인 파트너인 켄 호그(Ken Hogg)와 Associate인 김종민씨, 세계적인 건축엔지니어링 회사인 ARUP의 앤디 피예(Andy Pye) 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 문의: 임연수 016-264-1067,
ppuni77@paran.com

2007년 민건축 여름건축캠프

2007년 민건축(민족건축인협의회) 여름건축캠프가 '우리시대의 마을 만들기: 효동마을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이번 여름건축캠프는 민건축이 그동안 '우리시대의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통해 진행한 그간의 경험을 캠프가 벌어지는 마을 현장의 환경과 건축, 생태와 공간에 주목해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치유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진지한 작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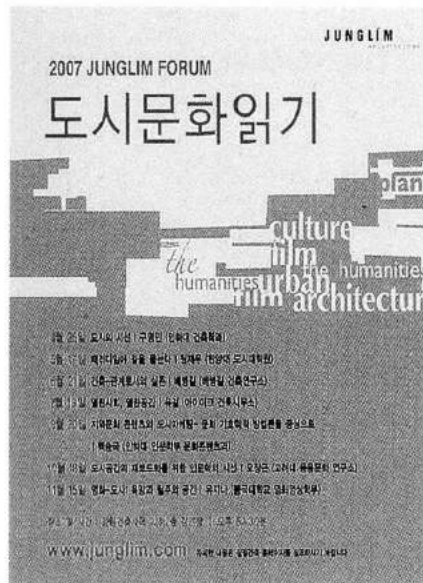
윤의식 건축사(수림건축)가 학교장으로, 박훈연 건축사(아름건축)가 고문, 김의용(동명정보대), 양상현(순천향대), 윤희진(비드건축), 이동흡(C&L), 이현영(공주대, 상명대), 조준배(앤드건축), 진성일(경영위치건축) 등이 튜터로 선정되었다.

- 일시: 2007. 8. 15 ~ 8. 18
- 장소: 전남 영광군 모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 문의: 채희준 010-6319-0478
www.mingunhyup.or.kr

2007년 정림포럼 '도시문화읽기'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정림포럼은 지난 2000년 정림 토요 세미나로부터 출발하여 건축을 포함한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학교에서 실무에 이르는 건축인 모두의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정림포럼은 제3회 '정림학생 건축상'과 맥을 같이하여 '도시문화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은 물론



그 경계를 넘어 타 장르에서 우리 도시의 물리적, 형태적인 것 또 그 속에 담긴 역사 환경, 일상의 삶과 그 리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 일정

- 6월 21일 : 배병길(배병길건축연구소) / 건축 - 관계로서의 실존
- 7월 19일 : 유결(아이아크) / 열린사회, 열린공간
- 9월 20일 : 백승국(인하대 인문학부 문화콘텐츠과) / 지역문화 콘텐츠와 도시마케팅
- 10월 18일 : 오장근(고려대 응용문화연구소) / 도시공간의 재코드화를 위한 인문학의 시선
- 11월 15일 : 유지나(동국대 영화영상학과) / 영화 도시 : 욕망과 탈주의 공간

· 문의 : www.jungl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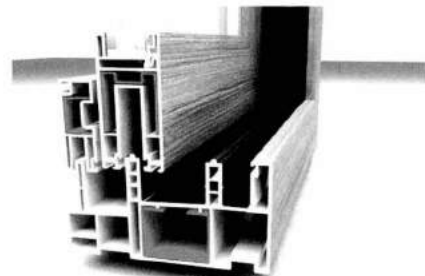
KCC, 푸른숲을 꿈꾸는 천장재 '에코텍스'와 Premium 발코니창호 'NEW프라임' 출시

KCC(www.kccworld.co.kr)에서는 2007년 5월 신개념 기능성 천장재인 '에코텍스'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급발코니창호 시장을 겨냥한 PVC 재질의 'NEW프라임'을 출시했다.

'에코텍스'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지



KCC-에코텍스



KCC-프라임

목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착 및 분해하는 특수 도료의 적용으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천장재며, 'NEW프라임'은 기존 기능성 발코니창호인 '프라임' 제품 대비, 성능 및 기능, 디자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고품격 프리미엄 발코니창호다.

특히 '에코텍스'는 기존 '아미텍스'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한 단계 진화된 제품으로 시공이 용이한 불연 천장재로서 기존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HB 마크) 제품이 포름알데히드(HCHO)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의 방출강도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던 반면, '에코텍스'는 실내 건축 자재나 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착하고 분해하는 기능까지 갖추었으므로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제어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단계 더 진화한 천장재이다.

또한 'NEW프라임'은 기존 '프라임' 제품 대비 창틀 폭과 높이의 치수를 상향 조정하고 내부 물막이턱(공틀부)의 폭을 한층 더 넓혀 고급스럽고 중후한 외관의 느낌을 연출하였으며, 안쪽 레일 부에 2-TONE 색상을 적용하여 미려한 느낌을 전해준다.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손잡이를 적용하여 까다로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이다.

KCC 관계자는 "올해에도 '마이텍스-청아람'과 더불어 기능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문의 : KCC 고객센터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건축

AIA 150주년 행사

AIA 2007 컨벤션이 5월 3~5일 동안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 열렸으며, AIA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다. AIA 역사에 의하면, 1857년 13명의 건축사가 모여 모임을 창설하였으며, 현재 8만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의 주된 테마는 '그린을 넘어'였으며, 3일간 이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강의와 연설이 있었다.

AIA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AIA150'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AIA가 건물과 커뮤니티 설계를 통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온 노력을 기념 행사로, '과거를 축하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표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행사로 '미국을 위한 청사진' (<http://www.aia150.org/bl150/default.php>)이 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와 협동으로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행사로 해리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미국이 좋아하는 건축물' (<http://www.favoritearchitecture.org>)을 발표 전시하고 있다.

'AIA 150' 행사는 구글 어스의 3D 이미지를 통하여 진행된다. AIA는 구글 어스에



구글 어스의 AIA 150 행사를 위한 레이아웃. 위와 그림은 3D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이 모델과 관련하여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추가하였다. AIA와 구글사가 협력하여, 2억명이 넘는 구글 어스 사용자에게 건축의 영향을 보이고 알리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미국이 좋아하는 건축' 레이어에서 사용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공원 다리, 건물, 기념관 등의 건물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와 주석을 볼 수 있다. 건물을 선택하면 사용자들은 구글 스케치업을 가지고 만들어진 랜드마크적 건물의 3D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미국을 위한 청사진' 레이어는 AIA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지역 서비스의 노력을 보여준다. AIA 회원들이 지역의 지도자와 시민들과 함께 무주택,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도심 재생과 같은 문제를 다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레이어에서 AIA 회원과 지역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AIA의 사회봉사와 지역사회의 계획과 관련되어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스크바 건축 유산의 위기

모스크바 건축 보존 협회와, 유럽 유산 보존협회는 모스크바의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사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두 건축기관인 현재 모스크바 시장 유리 루즈코프 아래 파괴의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플로리 아르주보 주택을 포함하여, 부루텔리즘의 스탈린시대 고층건물, 그리고 거대한 윌리 윙카와 유사한 초코렛 공장을 포함한 1,000여개의 역사적 건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모스크바의 고유하며 다양한 건축적 전통이 전면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두 사라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1,000여개의 역사적 건물들이 사라졌으며, 이중 200개는 모뉴먼트로 지정된 것이다.

러시아의 엄격한 보존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관료들은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역사적 건물들이 이상하게 불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곳에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모조품이 들어서고 있다. 모스크바는 런던의 코벤트 가든과 스미스필드 시장, 혹은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의 부두지대와 같은 유럽 수도의 역사적 지역의 부활의 중요 역할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현재 모든 시대의 건축적 모뉴먼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모스크바는 합성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잘못된 개발의 예를 들고 있으며, 최근 작업으로 캐서린 18세기 여왕시절 지어진 왕궁 사리시노를 예로 들고 있다. 이 건물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었으며, 최근 모스크바 남부 대중공원 '로맨틱 루인'이 개발되면서 완공되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장 루츠코프는 궁전의 완공을 결정하였으며, 콘크리트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완공하였다.

다른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는 파괴와 재건축에 의한 모스크바 호텔이다. 이 호텔은 크레믈린 궁의 옆에 있는 유명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1960년대의 러시아 호텔이다. 도이스트예프스키 소설 'Possessed'의 주인공들이 살던 프로스페르 미라의 궁전을 포함한 17세기 타운 하우스가 사라졌다. 이 건물은 2002년에 없어졌으며, 그 곳에 다른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 올해 초, 크레믈린 궁 옆의 과거 무역상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파괴되었다. 오래된 가로와 강변의 부둣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던 전통적 목조 주택들이 사라졌다. 이는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네델란드 시청각센터 개관

윌렘 안 뉴텔링과 마이클 리직은 일반적인 램쿨하우스의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건축물을 창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윌렘 안 뉴텔링과 마이클 리직에 의하여 설계되고 새로 개관한 시청각센터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설계는 대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유럽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이들은 순수한 재능과 유머 감각을 지닌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이 설계한 네델란드의 음향 시각 센터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 건물은 화려한 유리 패널로 덮혀 있는 가장 멋진 작품 중 하나이다. 빛나는 유리 패널을 통하여 오늘날 광고와 마케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실낱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건축의 주체적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힐버섬은 암스텔담 남동쪽의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네델란드 텔레비전 산업의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좋은 건축적 작품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네델란드 시각영상 센터는 방송관련 국가 자료 보관소로서 완벽한 큐브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절반은 지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실과 사무공간 이외에, 뮤지엄을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외진 곳에서 있는 이 건물은, 1963년 고든 번사프트가 설계한 예일의 메이백 회귀본 도서관의 외관과 같이 반투명한 번쩍이는 유리로 되어 있다. 65세 예술가 잡드루프스틴과의 협업으로, 구조 패널은 네델란드 텔레비전의 유명한 이미지를 새겨 놓았다.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유리에 새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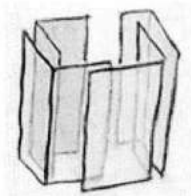
시애틀 중심의 아트 뮤지엄 증축

얼라이드 워크 건축사 사무소의 브래드 클로펠에 의하여 계획된 시애틀 도심 박물관이 확장개관하였다. 이 건물은 수직적 디자인과 연속적 공간의 개념으로 계획되었으며, 자연광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 뮤지엄은 도시의 생활 활동과 예술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장 계획에서는 늘어나는 소장품들을 수용하고, 프로그램과 청중을 수용하는 공간적 계획과 함께, 시애틀 도심의 문화와 경제에 활동감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다. 이번 확장에 따라 118,000ft²의 추가적 공간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관객의 증가와 소장품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 뮤지엄의 디자인은 변화와 변형을 주제로 계획되었다. 부지는 시애틀 도심으로

서 인공적 환경과 자연적 조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투명한 공공의 공간은 가로와 로비, 길과 갤러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생활 속에서 뮤지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른 한편 그 너머의 조경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앞으로 20년간 추가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이 건물은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연속적 예술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갤러리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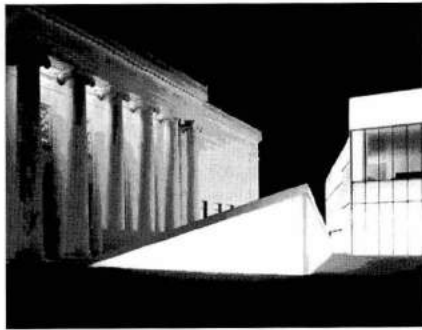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을 위한 공간계획, 교차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이 건물의 가장 혁신적인 특성은 태양에너지 장치이다. 이 장치는 철판으로 된 고정 및 가변 패널이다. 이 장치는 예술 프로그램을 고려한 시설이자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패널이 열렸을 경우, 자연 채광이 가능하다. 공공 공간과 방문객이 물과 산, 그리고 생동하는 도시를 볼 수 있다. 패널이 닫혀 있을 때는 빛에 민감한 예술 작품들을 보호할 수 있다.

건물 내부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유니온가와 퍼스트 애비뉴로부터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입구에 위치한 커다란 공공공간인 브로트만 포트를 통과하여 들어오게 된다. 이곳에서 국제적 예술가 카이 구오 팡의 상징적 설치 작품을 볼 수 있다.

넬슨-아트킨스 뮤지엄 6월에 완공

어떠한 예술 뮤지엄도 캔사스시의 넬슨-아트킨스 부지보다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는 드물다. 장엄한 형태의 고전적 건물로 1933년 완공되었으며, 테라스에서 보이는 언덕 밑의 광대한 전경은 미국 중서부의 공공 건물로서 왕궁과 같은 느낌을 준다. 1999년 확



구 건물과 새로운 뮤지움의 대비

장을 시작하였을 때, 신성 불가침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건물의 뒷면에 증축할 많은 공간이 있었으며, 6명의 건축사 중 5명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섯 번째 건축사는 스티븐 홀이었다. 그는 1947년생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동적인 건축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물이며, 한편 황소와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반투명한 유리의 불규칙한 형태를 제안하였다. 언덕을 따라 내려 오며, 일련의 지하 갤러리로 연결된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 안은 오래된 뮤지움의 경관을 변경시킬 것이 분명한 디자인이었다.

홀은 MIT의 기숙사와 헬싱키의 키아스마 현대 예술 뮤지움을 통하여 실제적 문제를 풀어 나가는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또한 총동적 디자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의 글에서 그는 강제적이며 열정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홀의 건물은 정신적으로 도발적이다. 항시 고객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과 멀 경우도 있다. 그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티븐은 진정한 창의적 사람이라고 뮤지움의 디렉터 마크 월슨은 이야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6월에 개관하였으며, 홀의 가장 좋은 작품이자, 지난 세기의 최고의 뮤지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대담함 뿐만 아니라 멋진 기능과 명확한 배치,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갤러리, 자연 채광의 활용 등을 보여주고 있다.

LA 카운티 뮤지움의 확장

미국 LA 카운티 예술 뮤지움은 15개월 전

마이클 고븐을 디렉터로 맞이하였다. 그는 이 뮤지움을 잠자는 거인이라고 묘사하였으며, 이는 뮤지움의 다양한 채우지지 못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일년이 지난 지금, 고븐은 렌조 피아노와 함께 야심찬 확장과 리노베이션 계획을 내 놓았다. 그의 뮤지움에 대한 비전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역사를 보는 장소이자, 미래를 현대 예술가를 통하여 보는 공간이다.

그는 뉴욕 엘리트 현대 예술 분야에서 대단한 인물로, 구겐하임 뮤지움의 2인자로부터 디아 아트 뮤지움의 최고의 위치에 이르렀다. 디아에서 그는 현대 예술품과 커다란 외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5,000만을 모금하여 뉴욕 비콘에 위치한 오래된 나비스코 공장을 광대한 전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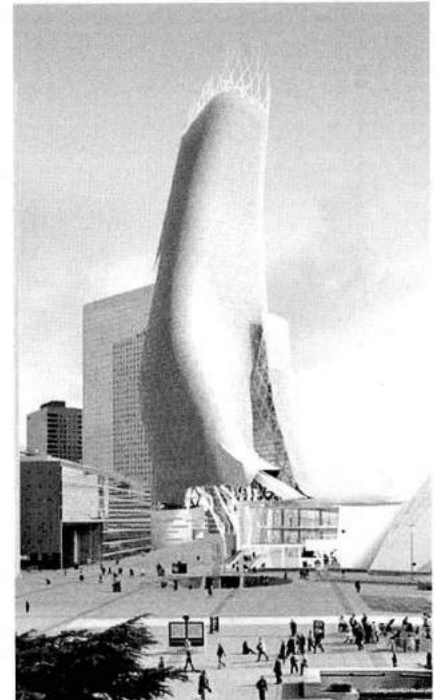
LA 카운티 뮤지움은 서부에서 가장 커다란 종합적 예술 기관으로 10만점의 소장품과 많은 후원자가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400만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는 뮤지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위치로 움직이고자 하고 있다. 부임 첫 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사람을 알고 그들의 목적을 이해하며,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첫 번째 작업으로 이 사회를 강화하였다. 작가이자 영화가 마이클 크리튼, 가수이자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저널리스트 일로우 베이, 발명가 안토니 프리츠키, 그리고 기술 기업가 테리 셰멜, 데이비드 보넷, 크리스 드올프를 영입하여 44명의 그룹으로 만들었다.

그는 렌조 피아노와 함께 확장의 첫 단계로 \$1.56억의 프로젝트로 브로드 현대 예술 뮤지움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사엘 보드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2월 9일에 완공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고븐이 부임하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다. 새로운 입구 파빌리온을 방문자 서비스나 주변 경관을 살리는 예술가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예술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담한 제안은 뮤지움 입구를 제프 쿤의 70ft '기차' 작품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160ft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건물에 대한 레노베이션은

두번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통합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의 지휘 하에, 그리스와 로마 예술품은 아멘슨 건물의 2층으로 옮겨 졌다.

파리의 고층건물 계획



돔 메인에 의하여 계획된 파리의 68층 타워. 이 건물은 2012년 완공 예정이다.

1889년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진 이래 가장 높은 건물이 계획되었다. 68층으로 계획된 페어 타워는 돔 메인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건물의 부지는 라데팡스 지역을 내려다보는 무표정한 비즈니스 지역으로, 우뚝 솟은 자태와 밝은 빛으로 이 지역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이 건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 벽체로 계획되어 있다. 빛을 잡아두기 위하여, 수평 금속성 봉을 설치하였다. 이는 해가 비출 때 속눈썹과 같은 차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건물은 빛을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여 건물이 동적인 변화를 하도록 계획되었다.

형태 디자인에는 메인의 산타모니카 오피스의 젊은 건축사가 참여하였다. 형태는 낭만적이며 멋진 구조물의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984ft의 높이로 부드럽고 감각적 형태를 하고 있다. 고인 인간의 몸통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이는 비인간적 공간을 인간화 하여

오랜 미적 전통의 도시 파리와와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건축사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메인은 파리의 역사와 비교가 되는 현재를 위한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건물은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부동고 에딘버러 동물원 계획



영국 에딘버러의 침팬지를 위한 시설 계획안

최대 침팬지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에딘버러 동물원 시설이 £4,500만 예산으로 시작되었다. 건축사 쿠퍼 크로머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은 1400㎡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 건물은 자연적 환경 하에서 침팬지에게 가능한 가까이 일반대중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세 개의 침팬지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리와 터널 그리고 외부 울타리를 통하여 연결된다. 일반 대중 관람 동선은 침팬지 집들과 교차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시각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간다의 부동고 침팬지 보호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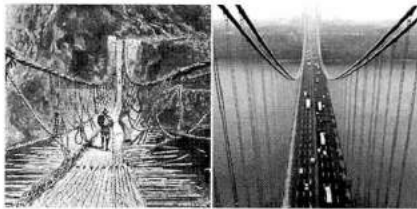
영상음향 시설을 갖춘 가변형 200개 객석의 오디오리움 공간이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곳에서 에딘버러 동물원 침팬지의 특성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상점과 작은 사무공간도 계획되어 있다. 이 건물 후면에는 관리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접근 동선이 계획되어 있다. 안전한 접근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5개의 침실과 관리자 사무소, 저장고, 음식준비실이 있다. 각 우리는 다른 공간적 형태와 조명의 밝기로 조절되도록 하고 있다.

잉카 제국 서스펜션 브리지에 대한 연구

스페인의 정복자들 잉카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여지껏 보지 못한 형식의 다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스페인 군사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깊은 안데스의 계곡을 가로 지르는 서스펜션 브리지 앞에서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좁고 움직이는 다리는 매우 약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스펜션 브리지는 잉카 제국의 매우 넓게 퍼져 있던 형식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1532년 도착하기 수백년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돌로 된 아치나 바퀴를 발명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섬유 이용 기술을 이용한 옷감, 배, 매다는 무기 등을 개발하였다.



잉카 제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던 현수 구조물에 대한 기록과 현대의 현수교

이에 따라 다리는 섬유 로프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것은 사람의 몸통 두께로 만들어졌다. 이는 험난한 지역에서의 다리 건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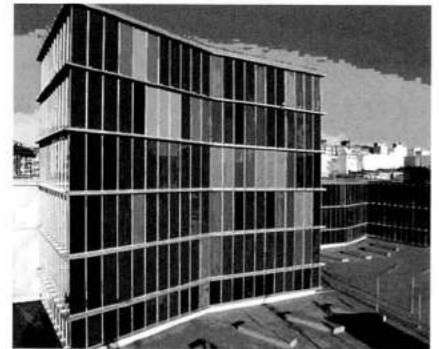
16세기에 최소 200개의 서스펜션 브릿지가 조지 강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다리는 아푸라맥 위의 다리로 손톤 윌더의 소설 '샌 루이스 레이의 다리'라는 소설에 기술되고 있다.

학계에서 콜럼비아 이전의 국가 통치를 위한 잉카의 도로 시스템의 중요성을 연구하였으나, MIT의 존 오체센도르프 박사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는 다리의 역할을 간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체센도르프 박사는 잉카 서스펜션 브리지에 관하여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주제는 그가 코넬대학의 학생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대학의 고고학과 재료학, 그리고 전통적 현장 기술의 융합이라는 관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MIT의 고고학적 재료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로 강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 미즈 반데로 상



2007년 미즈반데로 상을 수상한 MUSAC 카스텔라 현대 예술 뮤지움

만실라+투논에 의하여 설계된 카스텔라 레움 MUSAC 현대 예술 뮤지움이, 2007년 미즈 반데로 상의 유럽연합 현대건축 부문에 선정되었다. 유럽의 교육, 훈련 및 문화와 청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잔 피겔과 바셀로나의 시장이자 미즈 반데로 재단의 대표인 조디 헤루는 2007년 미즈반데로 상의 유럽 현대건축부분에서의 수상작으로 MUSAC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리차드 버넷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7개의 최종 작품들을 방문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 과정에서 이 건물 구조의 명확성과 프로그램의 지적 실현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심사 위원회는 현대 예술의 전시를 위해 필요한 효율적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동적 내부 공간 조성에 대한 개념적 해결방식이 높이 평가하였다.

이 상은 과거 2년간 유럽에서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고품질의 시공과 최고의 건축 설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출하며 혁신적인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 상은 문화 활동이 유럽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역할로써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07 AIA/ALA 시상

AIA는 2007 AIA/ALA 도서관 건물 상의 9명의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AIA와 미국도서관협회(AALA)가 격년으로 같이 발표하는 이 행사는 미국 건축사로서 가장 좋은 도서관 설계한 건축사를 선정한다. 2007년 상에서는 아

흡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공공 초등학교의 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도서관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들은 6월 22일~26일 사이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도서관협회 컨퍼런스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글루크만 메이어 사무소에 의한 뉴욕의 로빈후드 재단 도서관
- 리처드+바우어 사무소에 의한 피닉스의 사막 부름브렌치 도서관
- P&T 건축 및 엔지니어사에 의한 중국 포산의 도시 개발센터의 순 데 도서관
- 볼린 시인스키 잭슨 건축사에 의한 시애틀의 발라드 도서관 팀 주민서비스 센터
- CO 건축사 사무소에 의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산타모니카 대한 도서관 확장 및 리노베이션
- 안 배하 건축사 사무소에 의한 펜실바니아 이스턴의 라파엣 대학의 데이비드 비숍 스킵만 도서관
- 플세크 건축사 사무소의 아칸소 리틀록의 윌리엄 클린턴 재단을 위한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 센터
- 오피스 dA에 의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의 플리트 도서관
- 파카우/그로퍼-펠레티어/맨케스 슈너 다제나이스 건축사 사무소에 의한 몬트리알의 라그란데 도서관



2007 AIA/ALA 상을 수상한 플세크 건축사 사무소의 아칸소 리틀록의 윌리엄 클린턴 재단을 위한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 센터

2007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정

AIA의 환경위원회 COTE(Committee on the Environment)는 미국에서의 올해의 지속가능한 건물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에 생겨났으며, 매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들 선정된 건물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임이고 폐기물과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한 건물,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수자원을 재활용하는 건물, 지역이나 재활용 재료, 그리고 재생가능한 재료의 사용, 거주자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건물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건물 중에는 보스턴 남부 도심의 예술학교로 애로우 스트리트 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LEED 플래티넘상을 수상한 에피센터, 폴크 스탠리 로우랜드 쿠퍼존 포터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이자 알칸사 리틀록의 사무소 건물인 하이퍼 국제 센터, 건축가 레이 카프에 의하여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모델하우스, 모포시 스사에 의하여 설계된 오레곤 유진의 연방 법원 건물 등이 있다.

컴포넌트 홈

런던의 건축사 벨 트레버스 윌슨은 전통적 주택의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디지털 디자인 기술에 의한 소량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택을 생산을 위한 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상세한 3D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주택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다. 주택에 관한 디지털 정보는 공작기계CNC로 전달되어, 공장에서 합판을 절단하여 생산한다. 건물은 부속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각 부속은 운반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비싼 크레인이나 운송수단 없이 이동과 조립이 가능하다.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과정은 디지털 생산에 의한 속도와 질적 장점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전통적 대지에서 시공에 따른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있다.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절차에 의한 빠르고 저렴한 주택을 생산한다. 또한 일정 부분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변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주택 생산을 위하여 건축사는

3D MAX를 사용하여 상세 모델을 만든다. 이 모델에 나사 구멍을 포함한 모든 시공에 필요한 부품을 설계한다. 선반 가공에 의한 생산과 현장 조립이 가능하도록, 블록 조합의 형태로 설계한다. 개별 블록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전체 건물의 형태가 이들 블록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또한 각 블록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계를 수행한다. 최소한의 부품 블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3D 모델을 완성한다. 부품 블록의 반복적 사용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지나친 복잡함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건물 모델을 기반으로 상세한 설계로부터 제품 생산 정보로 변환한다.



벨 트레버스 윌슨에 의한 통합적 생산방식의 디지털 하우스

전체 블록모델과 개별 블록 상세모델, 그리고 실제 조합을 통한 조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최소화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정적 생산 시스템과 달리 이 시스템은 거의 무한한 디자인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회 및 컨퍼런스

텍토닉스 컨퍼런스

'Tectonics Making Meaning'은 국제 컨퍼런스이자 학생 설계 공모전으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건축과에서 열리고 있다. 이 이벤트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2007년 12월 10일~12일 사이에 열린다.

네덜란드 국가 건축사 펠스 크로웰이 컨퍼런스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기조 연설자

로 쾨양, 케네스 프람튼, 패트릭 발랑, 브렛 디릭스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와 설계 공모전의 주제는 텍토닉스이다.

텍토닉스는 건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경험하는 것으로 특히 건물을 구체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과 연관된 학문이다. 텍토닉스는 그리스의 어원 텍톤으로부터 나왔다. 의미는 목수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의미이다. 주된 개념은 건물을 만드는 방식이며,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구 조건의 개발을 구체화하며, 또한 건물의 모든 디자인적 요소를 발견하고, 도시의 스케일로부터 디테일의 스케일까지 건물의 모습을 고려한다.

재료, 기술, 구조 등의 선택을 고려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텍토닉스는 디자인 과정에서 재료와 구조가 사용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 이벤트에 많은 전문가와 학생들의 참여가 권장되고 있으며, 행사의 목적은 건물을 만드는 것에 관련한 국제적이며 다제간의 축제를 하기 위함이다.

「메트로폴리탄 홈」지의 「디자인 100」 발간

「메트로폴리탄 홈」지는 매년 발간하는 「디자인 100」의 올해 호를 발간하였다. 이 출판물에는 혁신 디자인의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 장소, 물체들을 수록하고 있다. 출판회는 맨하탄의 고급 포시즌 레스토랑에서 열리며, 2007년 5월호에 일부를 실을 예정이다.

일년간의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에서의 최고의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건축, 예술, 문화, 자동차, 음식, 녹색디자인, 기술, 그리고 여행과 친절 분야를 막라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 디자이너로 미국의 유리 예술가 데일 치후리, 상해의 떠오르는 별 펄 램, 옥외 가구 조달자 재누스 씨, 스케이트 공원 설계자 드림랜드 스케이트파크, 고급 액세서리 판매자 롱첵, 디자이너 마조리 스코라스와 환경운동가 폴 뉴만, 로버드 레드포드와 브레드피트가 선정되었다.

공모전

뉴욕 2007 공모전

아키텍트의한 뉴욕 2007 공모전은 뉴욕의 도시적이며, 코스모폴리탄적이며, '유니버설' 적 특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모뉴먼트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100m 크기의 타워 형태의 뮤지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계획의 배경으로 미국적 꿈이라는 파라다임을 믿고 건너온 이민자들 중, 1960년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이 보는 소장품, 기념품, 그리고 사진들을 전시할 것이다.

이 뮤지엄 타워는, 배터리 공원의 부두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17세기 네덜란드에 의하여 만들어진 맨하탄 내의 상업 지역이다.

이 뮤지엄은 1,000m²의 규모로 입구 홀, 임시 전시 공간, 영구 전시공간, 상점, 욕실, 관리부, 보안부서, 사무실, 카페테리아의 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뮤지엄은 건축적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제적 다문화와 상호 관계의 새로운 도시 역동성을 축하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안을 1메가바이트 크기의 한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사학위 취득자나, 건축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고 있다. 마감은 7월 31일이다. 당선작은 9월 1일에 있을 예정이며, 전시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러시아 뮤지엄 국제 공모전

러시아 현대건축 센터는 펴시의 새로운 뮤지엄을 위한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첫 21세기형 뮤지엄이 될 것이다. 뮤지엄의 건설은 실제 건축의 뛰어난 작품이어야 하며, 러시아의 현대 뮤지엄 사이트로써 도시의 브랜드와 도시와 지역 방문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모전은 2단계의 공개 공모전이며 상금은 다음과 같다.

• 일등상 : \$100,000

• 이등상 : \$70,000

• 삼등상 : \$50,000

펙 지역은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 우랄산맥과 초원 지역이다. 펴시는 동유럽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의 문화적 중심으로 2007년에 85주년을 맞이한 펴예술 갤러리가 있다. 이 공모전은 러시아 뮤지엄이 21세기 이데올로기와 기술을 수용하여 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새로운 뮤지엄은 도시의 브랜드와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AIA 2007 컨벤션과 디지털 기술

올해 AIA 컨벤션 참석자는 지난해 보다는 적었으며 약 2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모임에서 기술과 BIM에 관한 적은 수의 발표가 있었다. 그 이외에 AIA 엑스포에서의 기술 부분에서는 새로운 많은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의 주된 테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었다. 오토데스크사와 그래픽소프트사는 모두 BIM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다. 오토데스크사는 BIM을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몇몇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래빗 모델이 지속가능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 그린빌딩 카운슬과 협업을 통한 자동화된 LEED 확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완전한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래빗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능과 분석 기능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는 AEC 산업의 유행어인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개념에 대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개념은 BIM을 만들어 다

양한 분야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가상적 모델을 이야기한다.

오토데스크사는 200,000 라이선스를 계약하였다고 한다.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50만 계약을 하였으며 이는 래빗과 성장율이 유사하다. 오토 데스크사는 지속적으로 래빗에 투자할 것이며,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2008년 버전에서 래빗의 사용성 증진, 구글 어스로의 출력 기능, 색상관리 기능의 강화, 3Ds MAX와 의 호환성 강화, gbXML(green building XML)과의 강화된 호환성을 바탕으로 한 성능 분석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피소프트사는 AIA 쇼를 아키캐드 11의 발표장으로 삼았다. 새로운 기능은 가상 트레이스 기능이다. 다른 기능으로 가상 비교 기능으로 모델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밖에 구글 어스와 연결 기능들의 보강이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보강과 함께 그래피소프트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강조하였다. 그래피 소프트웨어의 가상 시공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석, 시공성 분석, 비용 계획, 프로젝트 계획 및 콘트롤의 기능을 보여주었다.

벤틀리사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BIM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구글은 AIA에 많은 참가를 하였으며, 최신의 개발인 스케치업 6를 선보였다. 이는 3D 웨어하우스와 구글 어스와 함께 전시하였다. AIA와 구글 어스와의 협업으로 AIA 150주년 기념 행사를 벌여, 두 개의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auto · des · sys사는 새로운 품지 기반 제품인 랜더존 플러스 v6.5를 발표하였다. 이는 랜더링을 위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아도비사는 포토샵 CS3 확장 버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3D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오토데스크 임프레션은 2D CAD 도면의 각색을 위한 제품을 선보였다. 피라네시는 5를 새로운 버전을 2004년 10월에 발표한 이래 새로이 선보였다.

HP는 새로운 2개의 프린터 HP Designjet

T610 and T1100을 선보였으며, 이는 이전 HP Designjet 800에 비하여 3배 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HP는 오토데스크사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두 사는 새로운 오토데스크 디자인 리뷰와 새로운 프린터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리뷰는 현재 무료의 제품으로, 이전에 DWF 뷰어로 알려졌으며, 2008년 버전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 되었다. 특히 3D 관련 기능들이 보강되었으며, DWF 파일을 XPS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아도비의 PDF 파일과의 경쟁을 하고자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비스타의 XPS 뷰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PDF 관련하여 아도비사는 아크로벳 8.0 프로페셔널과 몇 달 전에 새로이 출시한 아크로벳 3D v8을 선보였다. 아크로벳 3D v8은 지난해 프랑스의 작은 회사 TTF를 인수하여 얻은 압축파일 기술 PRC를 이용한 제품이다. 이는 아크로벳 3D에서 CAD로부터 정확하고 매우 압축된 형태로 PDF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모델로 보며 조작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CAD 소프트웨어 없이 이 CAD 파일을 직접 PDF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다른 아크로벳 3D v8의 향상된 기능으로, 오토데스크 래빗으로부터 모델을 가져올 수 있으며, DWF 입력기능이다. 건물 부속 데이터와 건물 모델 구성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모델을 자르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면절단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오토데스크사 'Design for Living' 조사 발표

18세~29세의 젊은 미국인은 주된 의사 결정에서 좋은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오토데스크사의 의뢰에 의한 켈톤 리서치의 연구 결과로 2,000명면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디자인이 단지 지나가는 중요성만이 아닌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Design for Living" 조사에서 일명

밀레니엄 세대들은 근무지의 만족 사항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어디서 살고 어디서 근무할 것이냐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들 세대들은 잘 설계된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보다 행복하고(74%), 보다 능동적이며(64%),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다(31%).
- 그들은 보다 좋은 디자인 제품을 위한 경제적 지불 의향이 있다 - 자동차(67%), 가구(60%)과 비디오 게임기(31%).
- 그들은 다른 도시로 옮기고자 할 경우 공공 공간(66%), 도시와 건축(42%)의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 웰빙과 자원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설계에 관하여 다른 세대보다 더욱 많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인의 일상 생활의 선택에 있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10명 중 7명이 답하기를 디자인 때문에 사고자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 30세~39세 사람들의 3/4이 시각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영화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설계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82%의 사람이 동의하였다.
- 55%의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네메척사 IFC 뷰어 발표

네메척사는 새로운 IFC 뷰어 소프트웨어를 발표하였다. 이는 윈도우상에서 IFC 빌딩 모델을 볼 수 있다. 무료로 http://www.nemetschek.net/architect/IFC_viewer.ph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네메척 IFC 뷰어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표준을 사용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장점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

최근 발표된 벡타웍스 IFC v2x3 플러그인은 벡타웍스에서 IFC 뷰어를 사용하여 볼 수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을 볼 수 있으며, 문, 창문, 방 등에 관한 분석과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 모델을 구글 어스로 보낼 수 있다.

그래피소프트사 ArchiCAD11 발표

그래피소프트사는 ArchiCAD 11을 5월 중순 발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와 맥킨토시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글 어스와 양방향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http://www.graphisoft.com/products/archicad/ac11/>

그래피소프트사는 ArchiCAD와 구글의 연결이 가능한 것을 발표하였다. 양방향 구글 연결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구글 어스로부터 지형과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구글 3D 웨어하우스로부터 건물과 건물 부품에 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 구글에서 아키텍트에 의한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다.
-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아키텍트로 만든 디자인을 보낼 수 있다.

벤틀리 아키텍처 IFC 2x3 인증 획득

벤틀리사는 벤틀리 아키텍처가 건축 설계 분야와 시공 문서 분야에 사용되는, IFC 2x3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 IFC 2x3 변환기는 벤틀리 스트럭처, 벤틀리 빌딩시스템과 벤틀리 일렉트릭 시스템에도 기능이 추가되었다. 인증에 관하여 벤틀리사는 IFC 표준을 프로젝트 팀과 협업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표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벤틀리사 프로젝트와이즈 패스포트 발표

벤틀리사는 협업을 위한 전세계적 라이선스

스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와이즈 패스포트를 발표하였다. 벤틀리사는 세계화에 따라 지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현재 ENR에서 선정한 500개의 최고 디자인 회사중 50명의 대표 중 42명은 프로젝트 와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회사측은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젝트와이즈 패스포트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프로젝트와이즈 패스포트를 가지고 사용자는 모든 프로젝트와이즈 고객으로 인정받는다.

아도비 포토샵 CS3 Extended

최근에 새로운 버전의 포토샵 CS3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버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AEC 전문가를 위한 3D 모델링 기능과 에디팅 기능이다. CS3에서 3D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는 포맷은 대부분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3DS와 OBJ, XML 기반 파일 포맷이다. 구글 어스에서 사용하는 KMS, 아키텍트, 벤틀리 제품, 그리고 아크로봇 3D에서 지원하는 U3D 포맷 또한 지원한다. 이들 3D 파일을 직접 열 수 있으며, 별도의 레이어에 저장할 수 있다. 가져온 3D 모델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모델의 에디팅을 할 수 있다. 에디팅의 경우 모델 표면의 텍스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특성으로 고급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능으로 과학이나, 보건, 영화, 비디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기능은 AEC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영화나 비디오를 위한 시각효과 기능, 개별 비디오 프레임의 수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비디오 포맷과 레이어 지원 기능을 지원한다. 비디오 파일을 개별 프레임으로 수정하거나,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여러 프레임에서 볼 수 있다. 비디오의 개별 프레임이 개별의 레이어로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전체 비디오 파일이 하나의 비디오 레이어로 가져

올 수 있다. 새로 개선된 애니메이션 팔렛은 비디오 레이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스크린에서 그리기



와콤사의 스크린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 디지털타이저 Cintiq 21UX

LED 모니터와 디지털타이저를 사용하여 와콤사의 Cintiq 21UX는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연필이나 펜, 마커나 붓을 이용하여 종이 위에 그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Cintiq 21UX는 LCD 모니터이자 디지털타이저가 합친 모델이다. 21.3인치 크기로 최대 해상도는 1600 x 1280 pixels이다. 이는 압력에 반응하여 가벼운 선이나 짙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스크린의 양쪽에 기능 단추가 있다. 무선 그림 펜과 함께 나온다. 1,024 레벨의 압력을 감지한다. 펜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일상적 사용을 위한 표준 펜, 붓과 같은 느낌을 주는 펜, 마커의 느낌을 주는 펜이 있다. 두 개의 추가적 펜이 있다. 6D 이트펜은 6차원의 컨트롤이 가능하며, 잡기 편한 두꺼운 펜이 있다. 이는 입력, 로테이션 등을 감지한다. 다른 펜으로 에어브러시 펜으로 에어브러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경관법

(2007.5.17 공포 / 법률 제84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수립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 및 제18조는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8조제2항은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관법 제정이유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법 제6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1)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법 제13조 내지 제15조)

-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2)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경관사업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

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 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18조 및 제22조)

- (1)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 (2)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23조 및 제24조)
- (1)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경관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경관위원회를 따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3)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경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2007년 4월호는 주목할 만한 오피스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도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되고있는 관청사와 일반 오피스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들은 주요한 장소에 상당한 면적과 부피를 차지함에도 자본적 논리에 의해 주변에 무심했던 그간의 오피스가 우리에게 보내는 반성문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 utopia regained

샌프란시스코 청사 by

모포시스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냉혹할 만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사무소 건축의 전통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로부터 시작했다. 라킨 빌딩에서 적용된 빌트인 시스템과 가구의 배치, 급식과 연수와 음악공연 시설의 조합, 완벽히 조절되는 공기조절 장치들은 단일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0년 뒤 라이트는 다시 한 번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무소 건물인 존스 왁스 빌딩(완벽하게 내향적인)을 디자인 하게 된다. 여기에 미스 반 데어 로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 낸 일련의 박스 건물을 거쳐 미국 사무소의 전형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벽이 없는 내향적인 것이었고, 외부와 격리된 밀봉된 박스였다.

이 전형이 모포시스에 의해 급진적으로 재구축되었다. 기존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던 연방 정부의 ‘연방 정부 건물은 기념비적이면서도 열려있고 우호적이어야 하며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기조와 911 사태 이후 공공건물에서의 보안과 안전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충돌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청사의 디자인은 기능을 우선하면서도 새로운 작업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했다. 기능 중에서도 거대한 부지의 잠재력을 살리고 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이 건축물에서 시민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미션 스트리트와 새로 조성된 광장에 면한 입구에 따라 방문객의 위한 시설을 4개층에 걸쳐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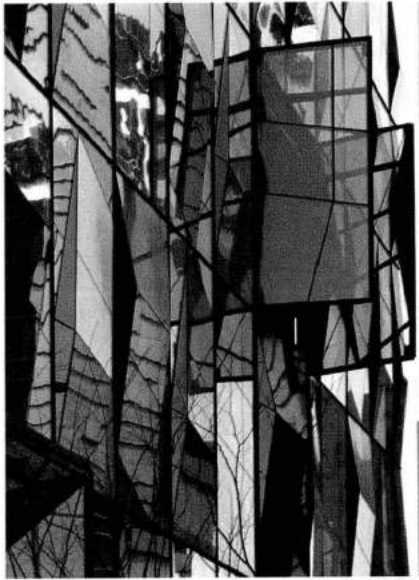
한편 직원 식당을 본청사에서 분리하여 모두에게 개방된 독립 파빌리온에 설치하였으며, 컨퍼런스 센터와 주간 위탁 시설 또한 독자적으로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직원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모두 중시하는 계획하에 이 건물은 도시에서 장소성을 강조하는 도시계획의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 Daring Kild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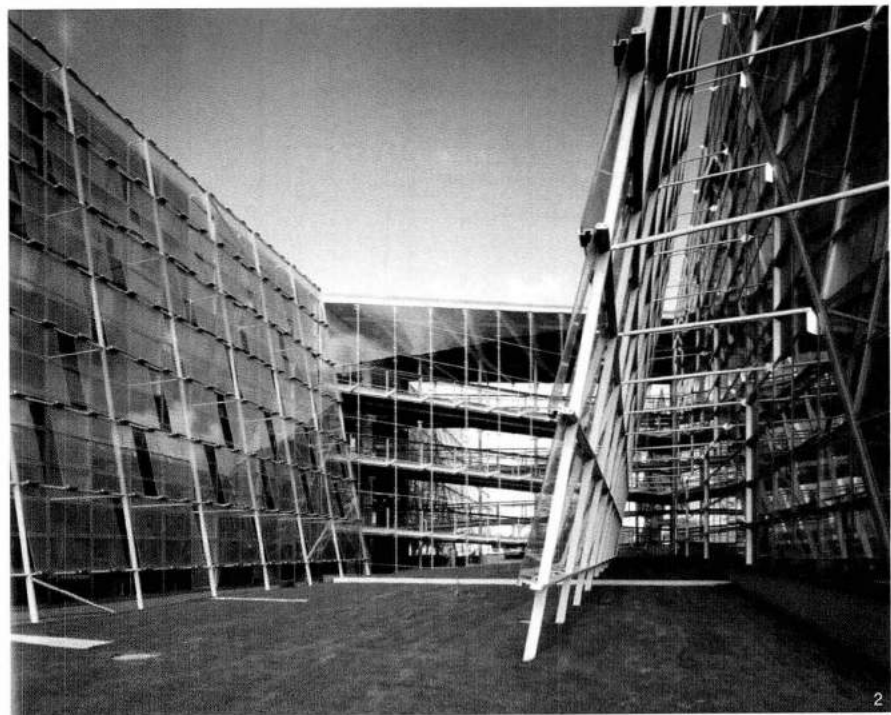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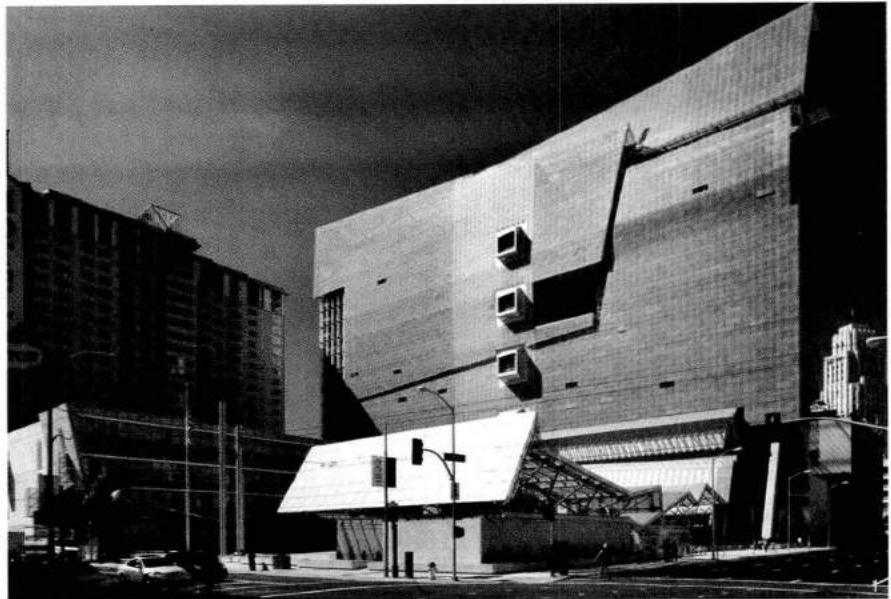
킬데어 시청사 건물 by

Heneghan Peng / 아일랜드 킬데어

헤네건 펑의 첫 완공 작업인 아일랜드 킬데어의 관공서 건물은 이성과 급진성을 결합한 건축물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이슈는 연계성이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인공적 풍경을 통하여 건축물과 주변 컨텍스트, 그



DMC B6-2



1. SANF 2. Kildare

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과 각 부처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진입 광장은 사용자와 직원들이 안전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로부터 건물을 1.8m 경사지게 들어 올려 주출입부에 있어서의 위계를 만드는 동시에,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있다. 자연이 가지는 연속적이고 수평적인 특성과 고정적이지 않은 경계 등의 특성을 참조하면서 건물은 연속되면서 구부러진 입면과 유리의 특성을 심분 활용한 스킨을 가지게 되었다. 내부 정원을 향한 입은 전부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유리벽 외부에는 25퍼센트의 유리 잿물로 처리된 녹색 스크린이 있다. 이 스크린에 의해 형성되는 녹색의 음영은 내부 정원 잔디와 어우러져 건물과 조경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3가지 방식의 표면처리-스판드럴, 고투명 유리, 반사유리-는 연계라는 큰 원칙하에 정교하게 선택되었다. 자신들을 뮤지션이 아닌 지휘자로 인식하고, 창발적인 이미지 보다는 시스템과 정해진 프로그램을 중요시 하는 건축사의 특성은 이 건축물을 다양하고 섬세한 공간의 지적인 배열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들의 차기작을 기대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 The Mirrorball cracked

DMC B6/2 건물 by

Barkow Leibinger / 서울

전세계를 걸쳐 비즈니스 파크라는 장소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다. 바로 '진. 부.함.' 상상력이 부족한 도시계획의 전제 밑에서 획일적인 블록들이 이식되고 그 위에 천편일률적인 유리 커튼월의 건물로 뒤덮여 지는 것이다. 서울 북부의 월드컵 주경기장 근처에 조성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 블록이 전부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특색 없는 고층 건물이 증식되리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2001 emerging architecture award 수

상자인 Barkow Leibinger는 표준적인 스펙의 오피스 블록(건축물 이름을 보라. 너무도 무미건조해서 무슨 제품 모델명 같다)을 반짝거리고 조각난 미러글래스 스킨을 통해 색다른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 건물은 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700명의 직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11층의 오피스와 쇼룸, 그리고 옥상정원과 5개층의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요소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었으므로, 건축사는 내부로부터 외부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임점이 예상되는 독일 기계 공구회사의 요구에 의해 1층 바닥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코어는 한쪽에 몰려있으며, 구조적 이유로 RC조로 코어를 구성하였으며 외부는 검은색 징크로 마감하였다. 외부 파사드의 기하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함몰된 개구부를 지나면 천정에 매단 계단의 진입로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외부 공간은 조각난 지형의 형태로 흡수되어 건물의 특성을 숨기고 위장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브루노 타우트의 파빌리온을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이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위한 상징 혹은 완벽한 외피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서울과 DMC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Green Gauge

멜버른 시의회 건물 by Mick Pearce
+ Design Inc / 호주 멜버른

90년대 중반 짐바브웨 하라레 개발 사업에서 공격적으로 기술에 의존하는 접근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환경 조절을

시도하였던 건축사 믹 피어스가 호주 로컬 건축사무소인 Design Inc와의 협업을 통해 멜버른 시의회 청사를 디자인 했다. 멜버른 시의회 건물인 CH2, 이런 접근을 확장 재정의 한 케이스이다.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특징 짓는 요소는 담합이라도 한듯한 멜버른 도심부 오피스 건물들의 밋밋하고 암전하기 짝이 없는 외양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목조루버의 과격한 움직임이다.

이 루버들은 재생 목재들로 만들어 졌으며, 루버 회전은 태양전지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정된다. 길쭉한 북쪽 면에는(호주는 북쪽이 벌이 잘드는 방향이다)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연속적인 프레임들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태양이 비추지 않아 서늘한 남쪽 면에선 '샤워 타워' 라는 것을 두어 서늘한 공기와 물을 저층으로 순환시켜 지상층의 상업공간의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 환기는 건물의 자연적 환경조절의 키포인트이다. 뜨겁고 쿨리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여 천정의 빈틈을 지나북쪽 파사드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야간 배출과 PCM 전지를 사용하여 냉각을 저장하여 주간에 사용되며, 빗물 또한 저장되어 연구실과 일반용수는 정화되어 재사용된다.

이런 각종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통해 전기 사용이 85%, 가스 사용이 87% 감소되는 충격적 결과를 만들었고 물 또한 28%의 사용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환경 재앙의 경고보다 이런 친환경적 태도가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그 중요성은 더욱더 절실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 출강)



CH2



Leadenhall